

정책연구보고서

#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평가 및 개선 방향 연구

2023. 11



대구광역시의회



# 제 출 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평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1.

연구용역수행기관  
대표자 오정일  (인)

## 참여연구진 및 용역수행기관

###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희망포럼」 대표 황순자

제안의원 윤권근 의원

참여의원

황순자, 이성호, 김대현, 전태선, 박우근, 이재숙, 하중환, 정일균,  
김재용, 윤권근, 김정옥, 박소영, 박창성, 육정미

### □ 용역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성영태 (계명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원 최종민 (계명대학교 교수)

임태경 (계명대학교 교수)

# 요 약 문

## I. 제 목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평가 및 개선 방향 연구”

##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 연구의 배경

- 2017년 이후 비수도권 청년층 인구의 순유출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청년 인구의 대거이탈 현상이 가속화
  - 2011년 대구 청년인구(20~39세)의 수도권 유출은 100명당 0.7명이었으나, 2021년 대구 청년인구 59만 3786명 가운데 9,108명이 수도권으로 전입하며 100명당 1.5명으로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함
- 대구광역시의 핵심 인적자본인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현상 심화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저해 및 존폐의 문제와 연관되는 상황임
- 청년층 인구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 지원정책에 노력을 쏟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와 주거 안정 지원에 가장 많은 비중과 예산을 쏟고 있지만 청년층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함
- 현재 청년층들은 고학력이 대부분이지만 보수나 근로환경, 사회적 인정 미미 등 만족할만한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지방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

###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 및 주거 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 분석과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주거정책의 종합적인 정책개선 방향성 및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Ⅲ. 연구내용 및 범위

-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 환경 분석
  - 중앙부처의 일자리·주거 정책 관련된 법 현황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 기조 탐색
- 대구광역시 청년 정책 현황 분석
  - 대구광역시의 청년 정책 현황 진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주거 정책 관련 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여 시사점 제시
- 대구광역시 거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주거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대구광역시 청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 정책 인지 및 만족도, 개선방안 등을 진단 및 평가하며, 이를 위해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국내 청년 일자리·주거정책 우수사례 검토로 방안 제시
  - 대구광역시에서 벤치 마크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도출

### Ⅳ. 연구결과

#### ■ 대구광역시 청년 설문조사 결과

-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뜻하며, 대구광역시에서 좋은 조건의 기업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대구 연고지 청년층의 경우 급여 수준이 만족된다면 대구광역시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대기업보다 급여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급여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검토 필요.
- 청년층이 문화여가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여가 인프라시설의 부족보다는 금전의 부족으로 나타남
  - 대출금 상환, 이자부담의 압박으로 인해 실질 소득 감소
- 청년층에게 “풍부한 문화기반시설 지역”보다 “일자리 기회가 풍부한, 임금수준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데 우선순위로 작용

- 대구광역시 청년층은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한 적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청년층의 수요가 명확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대구 청년이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청년층 수요 기반 정책 발굴 필요
- 청년층의 주된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식비를 제외하고 주거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저렴한 임대료 정책, 다양한 주거비 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주거사다리” 마련이 필요
- 연고지가 대구인 청년층은 대구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낮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타 지역으로의 이전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

## ■ 대구광역시 일자리·주거정책 평가

- 한편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평가 결과, 2023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총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분야에 집중
- 최근 3년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총예산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적인 사업의 수는 변동이 크지 않음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중 주거분야에서는 청년층 전월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 대학생의 주거공간 지원, 청년층의 월세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정책은 이미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주거사다리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발굴 필요
- 대구지역의 산업구조 특성과 연관된 지역 주도형 일자리 공모사업 확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 담당하고 있으나, 간접적인 지원인 청년 복지 관련 정책이 다소 미흡
- 기회 추구적이며 생활 혁신적인 창업지원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유사·중복 사업의 개편 필요

## V.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 ■ 대구광역시 일자리 정책 제언

- 대구광역시 일자리 정책의 유사·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일자리 관련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일자리 재단 설립이 필요함
- 대구광역시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하여,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미취업-재취업-실직·장기미취업-육아, 가사돌봄-취업 등 다양한 고용상황에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련한 일자리 보장을 제공
- 2016년 대구광역시 청년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청년센터를 청년들의 일자리/일경험 등에 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존재함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복지 지원으로 대구광역시 청년들이 역외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 대구광역시 주거 정책 제언

- 도심융합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역세권 중심의 청년주택 공급 지원 방안 수립 및 주거만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닌 일자리·청년지역정착과 연계된 주거정책 마련
- 현재 주거 여건이 심각한 상태인 청년의 문제를 치유하면서 향후 청년층이 시장에서 주거권을 자생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접근에서의 투트랙 지원 체계 운영
- 대구광역시에서도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조례(가칭)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대구광역시 일자리재단을 거점으로 청년주거와 관련된 민관의 유관기관 즉 시·구·군 관련 부서, 주거복지센터, 대구도시공사, LH,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b>제1장 연구의 개요</b> .....	3
제1절 연구의 배경 .....	3
1. 연구의 배경 .....	3
제2절 연구의 목적 .....	6
1. 연구의 목적 .....	6
제3절 연구의 내용 .....	8
1. 연구의 내용 .....	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	9
제4절 연구의 방법 .....	10
1. 연구의 방법 .....	10
<b>제2장 청년정책배경 및 추진현황분석</b> .....	15
제1절 청년의 개념과 특성 .....	15
1. 청년의 개념과 특성 .....	15
2. 청년의 계층 특성 .....	18
3.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 .....	22
제2절 청년정책 관련 법률 현황 .....	29
1. 개요 .....	29
2. 청년정책 관련 법률 현황 .....	30
제3절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현황 .....	35
1. 대구광역시 청년인구 현황 및 실태 .....	35
2.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현황 .....	42
<b>제3장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설문조사</b> .....	51
제1절 조사개요 및 내용 .....	51

1. 조사개요 및 내용 .....	51
제2절 청년정책 설문조사 결과 .....	54
1. 청년취업 현황 .....	54
2. 청년 생활여건 .....	62
<b>제4장 국내 청년정책 사례조사 .....</b>	<b>83</b>
제1절 일자리 관련 사례 .....	83
1. 서울시 일자리 청년정책의제 .....	83
제2절 살자리 관련 사례 .....	91
1.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사업 .....	91
제3절 설자리 관련 사례 .....	98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	98
<b>제5장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 .....</b>	<b>109</b>
제1절 대구광역시 쟁점 및 청년정책 평가 .....	109
1. 대구광역시 청년 쟁점 .....	109
2.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의 평가 .....	111
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과제 .....	117
참고문헌 .....	125
부 록 .....	127

## 표목차

<표 2-1> 법령 및 조례상 청년의 정의 .....	17
<표 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청년 관련 법률 .....	29
<표 2.3> 청년기본법 주요내용 .....	30
<표 2.4>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현황(위촉직 20% 이상) .....	32
<표 2.5> 청년정책 지원 관련 기타 법률 및 주요 .....	34
<표 2.6> 광역지방자치단체 청년인구 현황 .....	36
<표 2.7> 대구광역시 연령대별 청년인구 현황 .....	37
<표 2.8> 대구광역시 청년인구 연령대별 인구비율 현황 .....	38
<표 2.9>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청년인구 현황 .....	40
<표 2.10>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연령별 청년인구 현황 .....	41
<표 2.11>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청년기본조례 제정 시기 .....	44
<표 2.12>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정책 분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비교(2023년 기준) .....	45
<표 2.13> 대구광역시 제1·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간의 비교분석 평가 .....	48
<표 3.1> 조사설계 .....	51
<표 3.2> 조사내용 .....	52
<표 3.3> 응답자 특성 .....	53
<표 4.1>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제 및 중점과제 도출 .....	85
<표 4.2> 청년일자리보장제 중점과제 .....	86
<표 4.3> 공공일경험 플랫폼의 역할 .....	87
<표 4.4> 사회초년생 권리보장 중점과제 .....	89
<표 4.5> 일자리 영역의 중점과제 수행 로드맵 .....	90
<표 4.6>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입주자격 .....	94
<표 4.7> 사업체 당 종사자수( '15년) 및 미충원율( '16년) 현황 .....	98
<표 4.8>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101

<표 4.9>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동점차 처리 기준 .....	102
<표 4.10>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 서류 .....	102
<표 4.11>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 서류 .....	104
<표 5.1> 대구광역시 분야별 청년사업 분야별 예산 .....	111
<표 5.2> 대구광역시 분야별 청년사업 사업수 .....	112
<표 5.3> 최근 3년간 대구광역시 청년사업 추진현황 .....	114
<표 5.4> 대구광역시 분야별 청년사업 수 .....	114
<표 5.5>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주거부분 사업추진현황 .....	115
<표 5.6>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일자리 부분 사업추진현황 .....	117
<표 5.7>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 보장제도 .....	119
<표 5.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 .....	121

##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및 방법 .....	11
<그림 2.1>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연령별 청년인구 비율변화 .....	40
<그림 2.2> 제1·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 전략과제 비교 .....	48
<그림 3.1> 구직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 .....	54
<그림 3.2> 대구지역 근무 희망여부 .....	55
<그림 3.3> 대구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	56
<그림 3.4> 대구지역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	57
<그림 3.5> 일자리 정보 탐색처 .....	58
<그림 3.6> 일자리 고려 요소 .....	60
<그림 3.7>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61
<그림 3.8> 주된 소비·지출 항목 .....	62
<그림 3.9> 재정상태 개선 시 소비·지출 항목 .....	63
<그림 3.10> 문화·여건 생활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	64
<그림 3.11> 대구지역 프로그램, 인프라 만족도 .....	65
<그림 3.12> 대구광역시 문화·여가 시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66
<그림 3.13> 생활·문화 여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67
<그림 3.14> 청년 공간을 조성할 경우 가장 필요한 공간 .....	68
<그림 3.15>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	69
<그림 3.16> 거주지 유형 .....	71
<그림 3.17>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유 .....	72
<그림 3.18> 주거입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3
<그림 3.19> 희망하는 공공주택 형태 .....	74
<그림 3.20>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	75

<그림 3.21> 청년들의 주거 안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	76
<그림 3.22> 청년정책 수립과정 참여/활동 여부 .....	78
<그림 3.23>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79
<그림 3.24> 청년정책 항목에 따른 필요성 .....	80
<그림 4.1> 청년 일자리보장제 지원체계 .....	86
<그림 4.2>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사업의 추진체계 .....	96
<그림 4.3> 청년 복지사업 추진체계 .....	99
<그림 4.4>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원대상 후보자 모수 .....	100
<그림 4.5> 경기청년몰 홈페이지 .....	103
<그림 4.6>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플랫폼 .....	104
<그림 5.1>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분야별 예산·사업 비중 .....	112
<그림 5.2> 대구광역시 청년주거지원 협의체 구축(안) .....	124



# 제 1 장

##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

제4절 연구의 방법



---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연구의 배경

#### ■ 체감하지 못하는 다수의 청년지원정책 존재

- 2017년 이후 비수도권 청년층 인구의 순유출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청년 인구의 대거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2011년 대구 청년인구(20~39세)의 수도권 유출은 100명당 0.7명이었으나, 2021년 대구 청년인구 59만 3786명 가운데 9,108명이 수도권으로 전입하며 100명당 1.5명으로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함
- 대구광역시의 핵심 인적자본인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현상 심화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저해 및 존폐의 문제와 연관되는 상황
- 청년층 인구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 지원정책에 노력을 쏟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와 주거 안정 지원에 가장 많은 비중과 예산을 쏟고 있지만 청년층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함

#### ■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이슈로 부각, 청년 일자리대책 수립

-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IMF 이후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9.8%로 역대 가장 높았고, 고용률은 42.1%로 가장 낮았음<sup>1)</sup>
  - 2017년 이후 청년의 실업률과 고용률은 다소 개선<sup>2)</sup>되고 있으나 3포(연애, 결

---

1)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수 비율을,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수 비율을 의미함

2)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9.0%, 고용률은 42.9%로 2017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지

혼, 출산 포기), 5포(3포+내집마련, 인간관계 포기), 7포(5포+꿈, 희망 포기)를 넘어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대를 의미하는 ‘N포 세대’ 등의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sup>3)</sup>

- 2000년대 이후 청년층의 실업과 고용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서 정부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9년에는 이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한 바 있음
  -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관련 법률 하에서 정부는 청년고용 및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음
-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개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 확보가 최고의 복지라고 밝힌 문제인 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청년고용의무제 확대<sup>4)</sup>, 추가고용장려금 신설<sup>5)</sup>,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sup>6)</sup>, 블라인드 채용확대<sup>7)</sup> 및 청년일자리 기본권<sup>8)</sup>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

## ■ ‘88만원 세대’를 거쳐 ‘에코붐 세대’의 등장

- 청년실업 및 고용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88만원 세대’를 거쳐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뜻하는 ‘에코붐 세대’ 등장
  - 2007년 처음 등장한 ‘88만원 세대’는 취직에 성공한 20대 청년층도 대부분 비정규직, 20대의 월평균 급여는 88만원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별칭<sup>9)</sup>

만 OECD 평균 실업률 4.1%와 고용률 60.0%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3) ‘이태백’은 ‘20대 태반이 백수’를 의미하고, ‘캥거루족’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경제적으로 부모에 기대어 사는 젊은이’를 일컫는 용어임
- 4) 20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매년 정원의 3%→5%),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
- 5)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2017년 5천 명, 2018~2020년은 매년 신규 2만 명)
- 6)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월) 신설·지급(2017~2018년), 2019년부터 훈련 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 지급, 2020년부터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 7)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 관행 개선
- 8)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 9) 우석훈, 2008, 「88만원 세대」

-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하며, ‘에코붐’에는 이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sup>10)</sup>
- ‘경력의 피비우스 띠’로 표현되는 2차 에코붐 세대가 처한 현실은 기존 88만원 세대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지적이 대두
  - 경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하고 취업을 못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 고리의 지속<sup>11)</sup>
-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다른 청년층에 비해서 2018년부터 4~5년간 급증하다가 2022년 이후 줄어들 전망

## ■ 지역에서는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문제 발생

- 현재 청년층들은 고학력이 대부분이지만 보수나 근로환경, 사회적 인정 미미 등 만족할만한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지방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
  - 그러나 대도시 지역으로 유입된 15~29세 청년층들은 ‘17년 기준 실업자가 전체 42.6만명으로 이 중에서 57.7%인 24.6만명이 수도권에 거주(관계부처합동·일자리위원회, 2018)
- 대도시 지역과는 달리 지역의 중소기업과 농·어가 등은 지속적으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어 구인 - 구직 간 미스매치(mismatch) 문제가 심각함
  -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유출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 등은 지역사회 인적자원 부족과 활력저하, 자율적 문제해결역량 감소,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공동체 역량을 약화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음

10) 연합뉴스(2018.01.25.일자): '에코붐 세대' 마주한 문 대통령...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주문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5067751001>

11) 머니투데이(2019.05.01.): '88만원 세대가 부러운 '요즘 애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564446&memberNo=36310338&vType=VERTICAL>

## 제2절 연구의 목적

### 1. 연구의 목적

#### ■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 주거 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 분석

- 청년층의 고용 및 일자리 주거를 지원하는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분석
- 청년 일자리 및 주거정책 환경과 대구광역시의 청년정책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체감과 평가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주거정책 방향을 모색

#### ■ 만족도 조사 및 청년일자리 주거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시사점 도출

- 정량적·정성적 분석으로 대구광역시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공모델 발굴 및 정책 지속성 강화
  - 특히 청년층의 고용문제 저감, 지역에서의 안정적 거주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근거 자료로 활용
- 지자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상향식으로 발굴한 일자리 사업의 성과 및 주요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지자체 일자리 모델 정립
  - 향후 사업운영 우수 표준매뉴얼 개발 및 대구광역시 청년일자리 사업 개선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

#### ■ 대구광역시 청년일자리 주거정책의 종합적인 정책개선 방향성 및 방안 마련

- 대구광역시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청년관련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대구광역시가 가지는 특성과 지금까지의 관련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수
  - 기존의 성과분석 연구가 청년 관련 사업성과의 측정을 위한 정량적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정량적 성과 측정 이외에 정성적 분석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 우수사례분석을 수행하여 청년일자리주거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성공요인 도출
    -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의 구상-실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내용 및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
    - 대구광역시장의 청년일자리 및 주거정책의 차별성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

## 제3절 연구의 내용

### 1. 연구의 내용

#### ■ 과제1 :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 주거 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 분석 부문

-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 환경 분석
  - 중앙부처의 일자리·주거 정책 관련된 법 현황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 기조 탐색
- 대구광역시 청년 정책 현황 분석
  - 대구광역시의 청년 정책 현황 진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주거 정책 관련 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여 시사점 제시

#### ■ 과제2 : 대구광역시 청년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 부문

- 대구광역시 거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주거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대구광역시 청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 정책 인지 및 만족도, 개선방안 등을 진단 및 평가하며, 이를 위해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 과제3 : 우수사례 분석 부문

- 국내 청년 일자리·주거정책 우수사례 검토로 방안 제시
  - 대구광역시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도출

#### ■ 과제4 :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 주거 사업개선방안 연구 부문

-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 방향 수립 및 향후 개선과제 도출

---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 선행연구에서는 청년 인구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논의나 주거 정책에 대한 논의를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거나, 정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청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김태운·박선주, 2019)나 대구광역시 청년의 정주 및 귀환에 관한 연구(엄창욱 외, 2018), 청년정책(청년보장제)에 대한 효능감 등 운영의 실태조사(서정욱, 2021)
-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 및 주거정책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차별성 존재
  - 중앙부처 및 대구광역시의 청년정책 중 일자리·주거정책 관련 법률 등의 분석부터 청년들의 일자리·주거 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개선방안 조사, 벤치마크할 수 있는 국내 사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의 정책 기조에 맞고 대구광역시 청년 수요자 맞춤형 정책 제시가 가능하다는데 핵심적인 차별성 존재
- 정부의 정책 기조 분석을 통해 대구광역시의 청년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 대구광역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주거 정책 대안 마련
- 대구광역시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인구의 역외유출방지책 마련에 기여

## 제4절 연구의 방법

### 1. 연구의 방법

#### ■ 문헌검토 및 행정통계자료 분석

- 대구광역시 인구 및 지역 특성 현황
- 대구광역시 청년현황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및 시책사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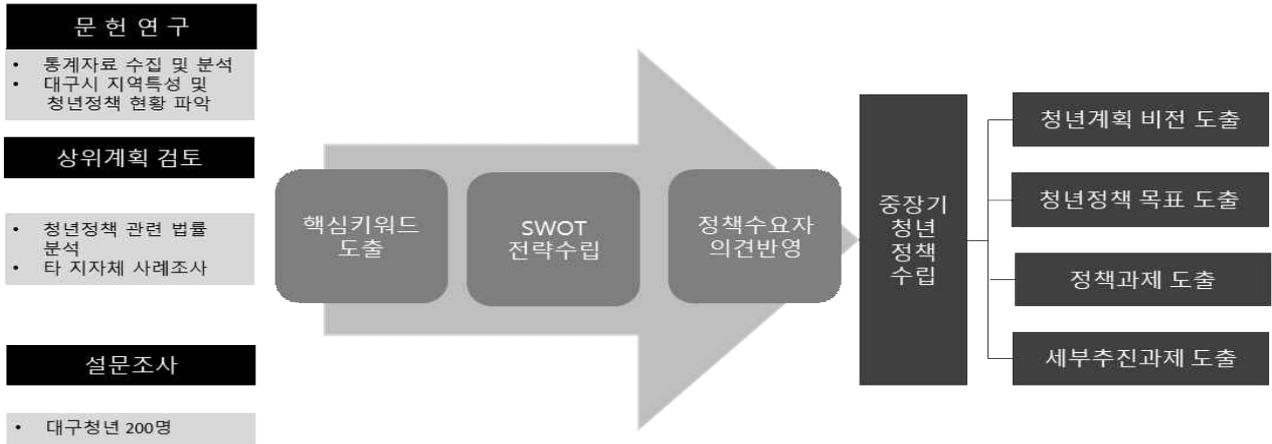
#### ■ 설문조사

- 현황 분석, 기존 사례분석 등 문헌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을 구성함
- 지역 내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현황, 생활여건, 주거여건, 정책참여 등에 대한 조사
-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 주거정책, 청년 참여방안 등의 결과를 분석함
- 대구광역시 관내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 사례조사

- 국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주거, 복지 관련 사례를 조사함
-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세부 추진 내용, 성공요인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및 방법





---

# 제 2 장

---

## 청년정책 배경 및 추진 현황 분석

제1절 청년의 개념과 특성

제2절 청년정책 관련 법률 현황

제3절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현황



---

# 제2장 청년정책배경 및 추진현황분석

## 제1절 청년의 개념과 특성

### 1. 청년의 개념과 특성

#### 1) 청년의 개념과 범위

##### ■ 청년의 개념

###### ○ 사전적·통념상의 개념

- 사전적으로 청년의 의미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좁게는 20대 정도의 나이대에 속하는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는 말이며, 넓게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집단으로 점차 연령이 확대되고 있음
- 청년의 청(靑)은 계절의 순환에 있어서 봄을 상징하며, 푸름의 의미를 갖고 원숙한 기성세대와 아직 미성숙한 소년 사이에 해당하는 청춘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임
- 최근 청년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청년대책이 점진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하면서 정책수혜자로서 청년연령과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 법적·정책적 관점에서의 개념

- 청년기본법('20.2.4.제정 및 '20.8.5시행)에서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여기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년관련 대표적 법률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04.3.5.제정 및 '04.6.6시행)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까지로 정함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15세 이상 34세 이

하인 사람으로 확대 정의하기도 하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은 39세 이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34세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19~34세로 청년 나이 하한을 대부분 만1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이들 법령의 청년 상한은 만29세 이하 혹은 만34세임. 통계청의 청년고용동향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청년층을 15~29세까지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종합적 관점에서의 개념

- 청년기는 세분화된 복수의 하위 집단층에서 경제활동인구인 정규직 취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등과 비경제활동인구인 구직자, 취업·창업준비자, 진학준비자, 재학생, 휴학생, 군입대자, 알바생, 졸업유예생 등으로 구성됨
- 청년대상으로서 청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과 고용, 주거, 생활수준 등 서로 다른 삶의 양상을 취하고 있음을 정책적으로 이해하고 청년의 다층적·복잡성을 고려해야 함
- 한편 청년기본조례상 청년연령 역시 모두 상이해서 서울·세종의 경우 15세~34세로, 대구는 18~39세, 인천·대전은 19~39세, 울산은 15~29세로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전남 고흥, 전북 장수, 경북 봉화·예천, 경남 창녕·합천, 충북 괴산 등은 청년 기준을 49세까지, 전라남도는 45세까지 확대함
-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1개로 향후 청년기본법과 지역 정책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청년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향후 민법상 상이한 성인 기준 관련 논의와 함께 청년의 정의 및 범위(18세 하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표 2-1〉 법령 및 조례상 청년의 정의

법령 및 조례	청년의 정의(연령)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세 이상 29세 이하(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19세 이상 34세 이하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15세 이상 29세 이하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15세 이상 29세 이하

## ■ 청년의 범위

- 법령과 달리 청년의 연령대 범위를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한을 올리는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출산·고령화 영향 등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자구책으로 청년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면서 청년 관련 정책의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청년정책에서 배제되는 연령을 줄이기 위함
  - 둘째,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청년정책이 인구정책을 포함하기도 하였고, 청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지자체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포용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상향시키고 있다는 점
  - 셋째, 청년고용, 창업지원이나 귀농·귀촌 사업을 장년층까지 지원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장년층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 청년을 규정하는 단일 규정은 없지만, UN과 OECD, World Bank에서는 15세부터 2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청년을 18~34세, 영국의 통계청은 청년을 16~24세,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청년고용정책에서 청년을 15~39세로 청년의 연령이 40대를 넘는 경우는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소멸지역 중심으로 45~49세까지 연령을 높여 정책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음
- 결국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조례를 개정한 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과 지역 정책 간의 연계성에 따라 청년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청년 나이 기준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법률 및 조례의 청년의 연령 범위를 특정 연령으로 정의하였으나 생애주기적 특성과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1항을 고려하여 19세 이상 39세로 설정하도록 함
- 따라서 청년정책은 청년의 위기가 곧 지역사회 위기라는 인식하에 우리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역별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 그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여할 것임

## 2. 청년의 계층 특성

### 1) 전환기 시대 청년의 특성

- 한국은 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으며, 특히 2020년 COVID-19로 인해 그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음
- 한국 연령별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X세대, 밀레니얼세대(Y 세대)로 구분되며,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가 고속성장시대의 가치를 공유했던 고크트 집단이라고 한다면 밀레니얼세대는 세계금융위기와 글로벌 저성장시대를 공유한 고크트 집단임
- 본 연구에서 ‘청년’에 해당되는 밀레니얼 세대는 개방적인 ‘가치관’과 개성있는 감성을 추구하는 ‘뉴트로’ 세대이며,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는 ‘N잡러’<sup>12)</sup>세대라는 특징을 가짐

## ■ 소비성향 변화와 탈물질주의 라이프스타일 추구

- 2000년대를 기점으로 소비에 대한 개념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변화가 시작됨. 소비와 소유의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물질’에 대한 욕망은 열어지고 소비형태는 물질에서 ‘일’이나 ‘관계’로 변화되기 시작함
  - 요즘 세대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것보다는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것을 선택하고, SNS같이 즉물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리얼한 현실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을 중시함
  - 우리나라도 탈산업화·탈물질 사회로 이동 중에 있으며, 다양한 개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세상을 만들어가는 다원주의 사회로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음
  - 탈물질주의 사회는 개성과 다양성, 심미성, 차별성, 연대의 가치가 강조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함. 탈물질주의적 라이프스타일은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뜻함
  - 탈물질주의적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청년세대는 획일화된 상업문화를 지양하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색적인 문화경험과 감성적인 소비활동, 지역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탈물질주의 사회에서는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이 성공하고, 그러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역이 변영한다는 의미임
- 청년의 탈물질주의적 라이프스타일 중시 경향의 결과로 나타난 로컬 지향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도시공간의 변화를 야기시킴
  - 청년의 소비생활은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과정을 넘어 공간 특유의 장소성이나 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높은 가치를 매겨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는 과정으로 진화되고 있음
  - 최근 지방으로 회귀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으며, 청년 창업가 또는

12) ‘N잡러’는 특정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노동하기를 선호하는 직업관을 의미함

창작가 집단 사이에서는 지방이나 시골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무대로 인식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 (조성철 외, 2019)

## ■ SNS 혁명과 ‘느슨한 관계’ 선호

- 최근 청년들은 SNS를 통해 ‘느슨하게 뭉치려는’ 특성이 있으며, 조직에 대한 소속감은 떨어진 반면 SNS를 통해 개인과 사회간 거리는 가까워져 있음. 즉 서로 얼굴을 대하고 사는 범위 내에서 평범한 삶을 누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공헌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임(마쓰나가 게이코, 2015)
  - 공동사무실,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코리빙하우스(co-living house), 살롱(salon) 등 청년층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개성을 표현하는 청년들이 조직의 규칙에서 벗어나 소통하고 협업하는 대안문화의 표상을 살펴볼 수 있음
  - 최근 대안적인 청년 커뮤니티의 특징은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주의적 공동체’로 협업공간 또는 공유사무실의 기본적인 기능은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고 받는 커뮤니티 기능을 담당함
  - 나아가 최근에는 코워킹, 코리빙, 커뮤니티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여 관점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창의적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로컬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음(전정환, 2019)

## ■ 청년세대의 노동에 대한 가치관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

- 최근 일자리의 부족과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인해 다수의 청년층이 프리랜서나 자유노동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으로 일하며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유노동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sup>13)</sup>라고 하는 원격으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몇 개

13) 노마드(nomade)는 탈산업화시대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로,

---

월 단위로 머물며 여행하는 IT시대의 유목민들이 실리콘벨리의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1990년대 출생한 청년들은 입사하자마자 퇴사를 계획하는 세대라 지칭되고 있으며, 종신고용에 대한 기대가 낮고 개인의 미래와 가치상승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몰입을 하기도 하며, 일을 하는 장소가 갖는 의미도 변화하여 플랫폼 세계로 인해 노동환경이 수도권이나 지방이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 2) 청년의 계층 특성

- 개인 생애주기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면서도 모두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생애주기는 개인의 삶이 독특하더라도 인간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일정한 과정이 있는데 성인 발달 단계를 성인 전 단계(0~22세), 전반기 성인 발달(17~45세), 이행기(40~45세), 중반기 성인발달(40~65세)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삶을 구상하는 22~28세, 30대에 접어드는 28~33세, 삶을 개발하는 33~40세, 삶을 재구상하는 45~50세, 50대에 접어든 50~55세, 삶을 다시 개발하는 55~60세로 세분화함(Daniel J. Levinson, 1986)
- 무엇보다 청년을 생애주기적으로 접근하되 사회적·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삶을 구상하는 22~28세 시기는 이후의 연령대에 비해 발달과업 성공수행은 무엇보다 중요함
- 점차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청년 상한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청년의 과도기적 생애단계의 특성과 함께 경험·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고용 등 노동시장의 여러 도전에 직면한 경우가 많음

- 청년 계층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변수(성별, 직업 등)와 사회변수로 나누기도 하며, 특정 세대의 영향을 강조할 수도 있는데, 인구와 관련해서는 베이붐 세대(1955~1963년)가 특성 세대의 경험과 정체성을 확고히 보여주는 386 세대(1960년대), X 세대(1970~1980년대 초반), 밀레니얼 세대(Y세대), 2021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하나로 묶은 MZ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구분법이 사회적으로 쓰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과거 '젊은 층'이라고 불렀던 명칭을 MZ세대로 바꿔 이들을 위한 정치적 마케팅을 연구하고 활용하고 있다. 전기 밀레니얼(1981년~1988년)과 후기 밀레니얼(1989년~1996년)로 구분하기도 하며,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신조어임
  
- 현재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대부분은 일자리 영역, 임대료 지원 등 생활지원 영역, 취업역량 강화 영역 등으로 각각의 부처에 의해 정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 무엇보다 청년 계층 특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현시점에서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추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

### 3.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

#### ■ 청년세대의 주요 아젠다

-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및 청년정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청년 관련 의제는 크게 '취·창업 등의 일자리 문제', '주거문제', '부채 등의 경제적 문제', '가치적·관계적 문제'로 구분될 수 있음
  -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청년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연구원(2023)의 '서울시민 정신건강 실태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생애주기별을 정신건강을 살펴보면 청년층에서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

증상, 불면 등 모든 정신건강 문제의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일자리 문제)

- 세계적 저성장 기조 및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의 감소 및 청년 실업률의 증가세 지속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세계적인 저성장, 규제 강화, 소비 위축 현상이 가져온 뉴노멀 시대의 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recovery)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COVID-19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 심화, 기업 고용 위축 및 청년 실업의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음
- 2023년 10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기준, 청년실업률은 5.1%, 청년 실업자 수는 20.9만명이며,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이 63.3%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증가 하였으며,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오르는데 반해, 청년층만 보합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 (경제적 문제)

-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등 빈부격차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 청년의 경제활동 지연 및 경제력 약화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부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
- 빈곤통계연보(2022)에서는 일자리 감소로 경제활동이 지연되고 저소득 청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청년층(19~34세) 빈곤율은 20.2%로 OECD 평균 13.9%보다 높으며, 높은 부모 동거 비율 등 특수성이 간과된 현행 산출 방식으로 인해 과소 추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최근 학자금 대출 및 빚을 끌어 쓴 뒤 이자조차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20~30대 청년층이 2023년 상반기 23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잔여 대출원금인 '등록금액'도 증가하여 금융채무 불이해야 중 29세이하 평균 등록금액은 2022년 말 2150만원 이었으나 2023년 6월말 2370만원으로 불어나고 있음

- 재정과탄으로 개인회생으로 넘어간 청년층도 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21년 3만 6248건, 2022년 4만 49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올 상반기에만 2만 5244건으로 연말까지 전년도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청년의 마이너스통장 및 마이너스 카드론 대출액이 2조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소액대출과 파산 신청 사례가 급증하면서 부채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됨
- 이러한 청년층의 빚 부담은 금융 전반의 부실로 확대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됨

#### ○ (주거 문제)

- 정부의 주거 정책에도 여전히 청년들은 불안정한 주거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접근들이 시도되어야 함
- 부동산 가격 및 투기 관련 문제와 연계되어 청년층 경제력 대비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수도권에 밀집된 주요 대학 및 대기업 소속 청년의 경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좋은 직주근접지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주거비 문제와 취약한 주거 환경에 동시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 정상화 및 공급 확대 정책들과 관련한 갈등이 커지며, 청년층이 무리한 투자를 통해 자가를 매매하는 경향성이 증가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성도 함께 증가함

### ■ 청년세대의 계층적 특성<sup>14)</sup>

#### ○ 일자리에 대한 인식

- 청년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냈으며, 취업

14)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2019)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 및 창업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선호 일자리 유형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19.4%), ‘급여가 높은 회사’(17.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에 취업 의사는 37.6%가 취업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유로는 ‘고용의 불안정(25.8%)’과 ‘낮은 급여(22.1%)’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경쟁 전망에서는 취업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절반 이상(63.6%)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졸업 유예 경험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51.0%)’,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22.8%)’, ‘졸업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1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응답자가 62.5%,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이 없는 응답자는 25.3%로 다수가 창업에 대해 소극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육 중심의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보다 기업 대상 일자리 및 경제 중심의 노동수요 중심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81.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물질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나, 고연령일수록 주거비 마련, 학자금 마련 등 사회적 자립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영역은 휴가 및 여가 지출, 자동차 등의 사치재 영역에서의 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박탈감에 대한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채무 여부와 채무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5%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채무 보유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채무 발생의 주된 이유는 ‘주거비 마련(59.6%)’, ‘학자금 마련’(21.2%), ‘생활비 마련’(9.6%), ‘창업 자금 마련’(6.5%)의 순으로 나타남

○ 주거에 대한 인식

- 청년들은 자가 보유 및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이를 실현하는 시간은 10~20년 및 20년 이후로 예측함
- 청년층의 절반 이상(62.8%)이 본인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현재 집값이 적정치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76.4%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하는 예상 시기는 ‘향후 10~20년’(29.2%)과 ‘20년이 후’(17.0%)라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가치 및 관계에 대한 인식

- 청년들은 개인 생활과 경제력, 결과 등의 현실적 측면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재산·경제력’(31.2%)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화목한 가정’(24.6%), ‘건강’(16.3%)의 순으로 조사됨
- 가치별 선호 조사에서는 일과 여가 중 ‘여가’(44.6%)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현실과 이상 중에서는 ‘현실’(70.2%)을 과정보다는 ‘결과’(53.9%), 집단보다 ‘개인’(40.8%)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단체모임이 힘든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28.8%)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23.5%)에 대한 응답률 순으로 나타남

■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

-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개편은 청년 실업률 증대와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져 사회계층의 양극화로 인한 위기의 대물림 등 청년문제는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연결되어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청년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결혼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청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입장

---

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점검해 나가야 함

- 따라서, 각 지자체는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해 일자리, 주거, 문화, 여가, 의료, 교육 등 청년지원 사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의 정책체감 및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제안 및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의 현실을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
- 청년세대는 미래만 생각하면 현재 자신의 삶보다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이 부정적 미래를 궁금해하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2022)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미래에 관해 낙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으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회의적임을 드러내고 있음
- 이와 같이 청년 문제에 대한 인식, 즉 청년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남
- 첫째, 일자리와 주거가 가장 큰 문제이며 수도권으로 올라와 일하는 청년들은 수도권 밖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라도 수도권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하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는 서울에서 살기 위해 대출금을 갚기 위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임. 따라서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노동 구조를 불안정 노동 또는 비정규 노동 중심으로 재편해 사회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임
- 둘째, 자신의 성장을 도와줄 공동체의 부재가 문제이며,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지역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즉 문화나 과학기술 분야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가 힘들어 서울과 수도권으로 나가게 되며, 지역에 성장의 기회가 없다 보니 청년들이 더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음
- 셋째, 청년정책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참여했지만, 관료적 질서에서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영향력이 부족함을 느끼며,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과거에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공정하고 더 공고해지지 않는다는 점임
- 정부든 정치권이든 청년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소비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사회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없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낙관하지도 않으며, 더 이

상 문제를 문제라고 볼 힘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임(박성원 외, 2023)

- 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해 단편적인 인식과 시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방식으로 나가기 위해서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참여 비율을 높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청년문제를 주도할 기회를 다수의 청년들에게 부여하며, 지역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해 타지에 있는 청년층의 인구유입에도 적절해 대응해 나가야 함

## 제2절 청년정책 관련 법률 현황

### 1. 개요

#### ■ 청년정책 관련 법률 개요

-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 및 8월 시행으로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중앙부처에서도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표 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청년 관련 법률

부처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국조실	「청년기본법」	▶ 청년 연령(19~34세) 국가·지자체 책무, 청년의 권리책임 등
고용부	「구직자취업촉진법」	▶ 청년구직촉진수당지급 등
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등
중기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
중기부	「중소기업창업법」	▶ 창업사관학교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지원 등
과기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SW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 마련
국방부	「병역법」	▶ 병사 민간 병원 진료비 지원근거 마련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 공공주택 지구·조정 및 공급·관리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교육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농식품부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청년 농업인 기준, 우대, 고용지원 규정 등 마련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 국가건강검진대상에 청년 포함, 우울증 검사주기 개선
외교부	「여권법」	▶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자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1~’25]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p.10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에서 청년정책 관련 법률을 시행 중

## 2. 청년정책 관련 법률 현황

### 1) 청년기본법

#### ■ 청년정책 관련 법률 개요 및 내용

- 고용환경 악화로 인하여 청년의 사회진입 진출이 어려워지고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지원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함
-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의 기본 이념(제2조)과 정의(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제5조) 등과 함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제2장 제8조-제12조), 청년정책의 총괄·조정(제3장 제13조-제16조), 청년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근거(제4장 제17조-제24조),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제5조 제24조의 2-6)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3〉 청년기본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본이념(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li> <li>·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고려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li> <li>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li> <li>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li> <li>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li> </ol> </li> </ul>
청년의 정의(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li> <li>·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li> </ul>
청년의 날 지정(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li> </ul>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8조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국무총리)</li> <li>· 매년 시행계획 수립(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li> </ul>

제9조)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제11조 및 제12조)	· 고용·주거·교육·문화 등 청년실태조사 실시(정부) ·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위한 연구사업 수행(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 원회 설치(제13조)	· 국무총리 소속(40인 이내, 위원장:국무총리 1명과 부위원장 2명 포함) ·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조정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국무조정실)설치
지방청년정책조 정위원회 설치(제14조)	·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제15조)	·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에 청년 참여 및 의견수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청년정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일 경우10분의 3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청년정책책임관 신설(제16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기본 시책 (제17조~제24조)	· 청년의 창업·능력개발·주거·복지·금융·생활·문화활동·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대책 수립 의무

자료: 청년기본법을 요약·정리함

-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목적과 청년정책의 대상자를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정책 수혜자를 명확하게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 등 청년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청년의 형식적인 참여나 의견제시가 아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참여자로서 청년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이 기존의 청년정책과는 다른 방식임
- 정부가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시책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하고 별도로 고용·교육·복지 등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대책(제8조제3항)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법률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각 중앙부처에서 운영 중인 정부위원회에서의 청년참여 의무화로 인해 청년참여가 대폭 확대된 특징이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청년위촉비율은 50% 이상이며,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는 30% 이상임

〈표 2.4〉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현황(위촉직 20% 이상)

소관기관	위원회(청년위원 목표/위촉직/전체위원)	청년위촉 비율
국 조 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12명/20명/40명)	50% 이상
고 용 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5명/10명/22명)	
교 육 부	등록금심의위원회(각 대학별 구성, 3인이사/7인이상/7인이상)	30% 이상
국 방 부	군인복지위원회(1명/3명/8명)	
대 통 령	미세먼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5명/22명/43명)	20% 이상
국무총리	양성평등위원회(2명/10명/25명)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4명/20명/35명)	
교 육 부	학자금제도심의위원회(1명/5명/13명)	
국 방 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1명/5명/12명)	
복 지 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2명/10명/22명)	
중 기 부	창업지원정책협의회(2명/6명/16명)	

자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1~’25]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p.11

## 2) 기타 청년정책 관련 법률

### ■ 청년정책 지원 관련 기타 법률

- 청년기본법 이외 청년정책 지원 관련된 기타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의 취업촉진, 고용, 복지, 주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구직자취업촉진법」에서는 법률 내에서 직접적으로 청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 주요 정책 수혜 대상이 청년이라는 점에서 청년고용촉진과 연관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정책 대상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년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중소기업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활성화 및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기금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가 대표적임
  - 「중소기업창업법」에서는 종합계획수립 시 청년창업기업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창업지원사업에서 청년창업기업 우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는 「구직자취업촉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 내에서 직접적으로 청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공정계약 원칙을 수립함
  -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제 혜택(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표 2.5〉 청년정책 지원 관련 기타 법률 및 주요

법률	주요내용
「구직자취업촉진법」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의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으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법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제4조)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제2장제5조-제8조의4) -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등(제5조) - 중소기업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제7조)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제3장제9조-제13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제12조)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제12조의2)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제35조의 2)
「중소기업창업법」	· 청년창업기업을 포함한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제7조) ·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에서 청년창업기업 우대(제1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청년을 포함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공정계약 원칙 수립(제38조)
「공공주택특별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제 혜택(감면)이 가능(제3조의2)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 ·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농어업인 고용의 비용 지원(제10조) · 후계농어업인 육성 시책 수립·시행에 있어 청년농어업인 우대(제13조) ·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 체험기회 제공 등(제17조)

자료: 해당 법률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

## 제3절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현황

### 1. 대구광역시 청년인구 현황 및 실태

#### 1) 청년인구현황

##### ■ 2022년 기준 대구광역시의 청년인구수는 전국의 4.4% 차지

-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5세 구분별 인구이동통계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의 조작적 정의를 20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연령층으로 정의한 후 현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자료는 기본적으로 통계청(KOSIS)의 자료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활용함
- 2022년 기준 지역별 청년인구 총규모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수도지역에서 경상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순으로 청년인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022년 기준 대구광역시의 청년인구수는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18년부터 꾸준히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 2022년 기준 대구광역시의 청년인구수는 573,820명으로 대구광역시 전체인구의 24.28% 차지

- 2018년 이후 20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청년인구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대구광역시 전체인구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2018년 기준 대구광역시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6% 였으나 2022년 대구광역시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은 24%로 감소함
- 2022년 기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총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광역시로(27.10%)로 나타났으며, 대구광역시는 광주광역시(26.28%) 세종특별자치시(25.9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표 2.6〉 광역지방자치단체 청년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청년 인구수	청년인구 비중								
전국	14,094,116	27.20	13,881,380	26.77	13,679,270	26.39	13,379,358	25.91	13,032,692	25.34
서울시	2,998,560	30.71	2,966,582	30.49	2,935,517	30.36	2,861,556	30.09	2,815,291	29.86
부산시	899,448	26.14	871,859	25.54	850,001	25.06	820,849	24.50	791,825	23.87
<b>대구광역시</b>	<b>648,823</b>	<b>26.36</b>	<b>629,627</b>	<b>25.83</b>	<b>615,844</b>	<b>25.47</b>	<b>593,786</b>	<b>24.89</b>	<b>573,820</b>	<b>24.28</b>
인천시	843,463	28.55	828,797	28.03	807,692	27.45	793,142	26.90	781,788	26.35
광주시	406,163	27.83	400,391	27.49	395,242	27.26	387,661	26.89	376,036	26.28
대전시	422,995	28.39	413,109	28.01	406,576	27.77	399,066	27.48	391,878	27.10
울산시	319,567	27.65	308,880	26.91	296,274	26.08	282,313	25.17	268,844	24.21
세종시	92,412	29.42	97,804	28.72	98,945	27.81	100,229	26.95	99,462	25.93
경기도	3,698,625	28.28	3,696,522	27.92	3,715,307	27.67	3,698,716	27.27	3,619,591	26.64
강원	358,469	23.23	351,771	22.82	346,364	22.45	338,241	21.99	330,559	21.51
충청북도	406,509	25.42	400,285	25.02	393,886	24.61	385,022	24.10	375,742	23.56
충청남도	537,386	25.27	524,990	24.72	511,798	24.13	497,862	23.49	484,574	22.82
전라북도	425,428	23.16	411,844	22.64	400,476	22.20	388,760	21.76	374,789	21.18
전라남도	411,745	21.87	400,334	21.42	386,773	20.89	372,163	20.31	358,232	19.71
경상북도	619,667	23.15	601,357	22.56	575,280	21.80	555,496	21.15	529,688	20.37
경상남도	835,415	24.76	810,243	24.10	777,994	23.29	742,547	22.41	703,314	21.44
제주도	169,441	25.40	166,985	24.89	165,301	24.50	161,949	23.93	157,259	23.19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 대구광역시 20-24세 청년층의 인구비율은 5년간 감소추세에 있음

- 2022년 전국 기준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인구 중 20-2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9.24%로 나타났지만, 대구광역시 기준 전체 청년인구 중 20-2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51.29%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대구광역시 20-29세 청년인구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0-24세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24.23%(2018) → 23.91%(2019) → 23.76%(2020) → 23.33% (2021) → 22.57% (2022) 로 나타남
  - 대구광역시 기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0-24세 인구 역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6.47%(2018) → 26.11%(2019) → 25.97%(2020) → 25.37% (2021) → 24.56% (2022)로 나타남
- 2022년 전국 기준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인구 중 30-3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50.76%로 나타났지만, 대구광역시에서는 전체 청년인구 중 30-3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48.70%로 나타나 전국비율에 비해 30-39세 청년인구 비율은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7〉 대구광역시 연령대별 청년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대구								
20-24세	3,414,902	171,726	3,319,645	164,413	3,249,676	159,933	3,121,322	150,657	2,941,841	140,917
25-29세	3,409,071	159,119	3,490,711	159,498	3,556,477	161,601	3,534,601	158,264	3,475,340	153,446
30-34세	3,189,361	137,036	3,158,230	135,805	3,145,998	134,656	3,216,061	136,780	3,317,257	141,065
35-39세	4,080,782	180,942	3,912,794	170,181	3,727,119	159,654	3,507,374	148,085	3,298,254	138,392
소계	14,094,116	648,823	13,881,380	629,627	13,679,270	615,844	1,337,9358	593,786	13,032,692	573,820

※ 위의 표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도출한 결과임

## ■ 대구광역시의 청년인구 중에서도 30-34세 청년층의 인구비율은 5년간 상승 추세에 있음

- 2022년 기준 대구광역시 전체 청년인구 중 25-29세 연령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2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30-34세의 연령대가 24.58%, 20-24세 연령대가 24.56%, 35-39세 연령대가 24.12% 순으로 높게 나타나 30-39세의 청년층보다 20-29세의 청년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대구광역시 전체 청년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35-39세(27.89%)로 나타났지만, 2019년 기준 27.03%, 2020년 기준 25.92%, 2021년 기준 24.12%로 해마다 35-39세 연령층의 청년인구비율은 급감하는 추세를 보임
- 놀랍게도 30-34세 연령대는 2018년부터 해마다 청년인구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구체적으로 2018년 21.12% → 2019년 21.57% → 2020년 23.04% → 2022년 24.58%로 나타남
- 25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대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26.24% → 2021년 26.65% → 2022년 26.74%로 나타남
- 하지만 20세부터 24년 연령층의 청년들은 2018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표 2.8〉 대구광역시 청년인구 연령대별 인구비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수	비율								
20-24세	171,726	26.47	164,413	26.11	159,933	25.97	150,657	25.37	140,917	24.56
25-29세	159,119	24.52	159,498	25.33	161,601	26.24	158,264	26.65	153,446	26.74
30-34세	137,036	21.12	135,805	21.57	134,656	21.87	136,780	23.04	141,065	24.58

35-39세	180,942	27.89	170,181	27.03	159,654	25.92	148,085	24.94	138,392	24.12
소계	648,823	100	629,627	100	615,844	100	593,786	100	573,820	100

## ■ 2022년 기준 대구광역시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자체는 달서구

- 최근 5년동안 대구광역시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달서구(23.08%)로 나타났으며, 북구(19.17%), 수성구(15.78%), 동구(14.13%), 달성군(11.46%), 남구(6.22%), 서구(6%), 중구(4.16%)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대구광역시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달서구지만 청년인구 비율은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23.92%(2019) → 23.68%(2020) → 23.24%(2021) → 23.08%(2022))
  - 대구광역시 중에서 달서구 다음으로 청년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북구로 나타났으며 북구의 청년인구 비율은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18.18%(2018) → 18.36%(2019) → 18.86%(2020) → 19.13%(2021) → 19.17%(2022))
  - 수성구 역시 달서구와 북구 다음으로 청년인구 분포 비율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파악되지만 최근 4년간 그 비율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15.98%(2019) → 15.95%(2020) → 15.93%(2021) → 15.78%(2022))
  - 남구, 서구, 중구는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청년인구 분포 비율은 현저히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파악됨

〈표 2.9〉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청년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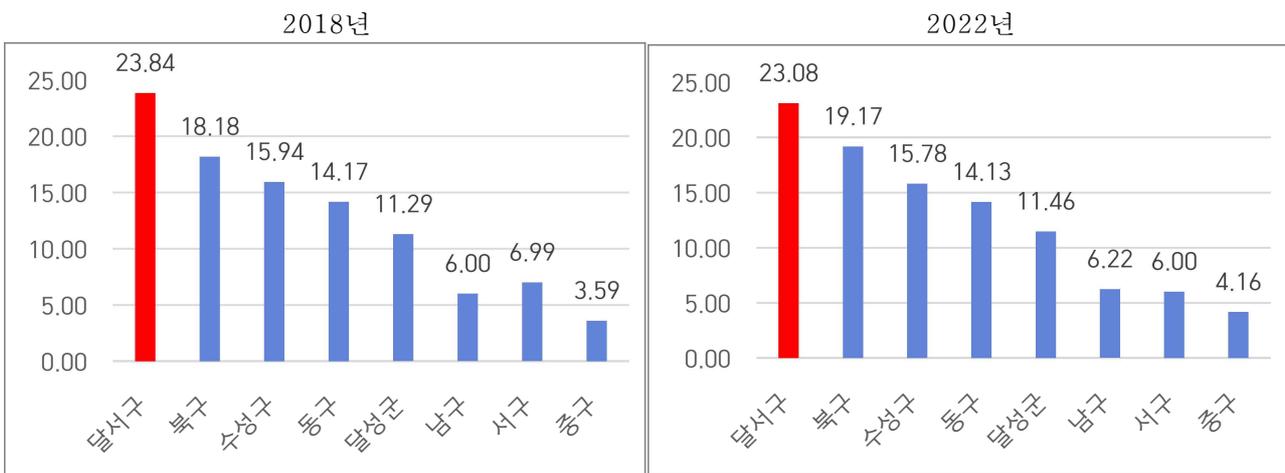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인구	청년인구								
대구광역시	2,461,769	648,823	2,438,031	629,627	2,418,346	615,844	2,385,412	593,786	2,363,691	573,820
중구	79,401	23,323	77,421	22,759	76,547	22,619	74,791	21,955	80,199	23,871
동구	351,291	91,931	345,469	88,128	341,920	85,505	341,436	83,696	339,530	81,106
서구	184,372	45,384	175,277	41,395	170,700	39,116	164,528	36,612	159,827	34,418
남구	150,501	38,906	148,113	37,946	146,632	37,635	143,175	36,448	141,519	35,678
북구	439,489	117,927	437,710	115,570	440,263	116,146	437,008	113,598	430,912	109,975
수성구	432,759	103,422	428,614	100,627	424,314	98,229	417,097	94,587	411,553	90,540
달서구	573,413	154,710	568,887	150,595	558,631	145,852	544,926	138,002	536,989	132,458
달성군	250,543	73,220	256,540	72,607	259,339	70,742	262,451	68,888	263,162	65,774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023년 7월1일부터 관할구역이 변경됨 점을 반영하여 해당 통계수치에 미반영됨

〈그림 2.1〉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연령별 청년인구 비율변화

(단위: %)



■ 대구광역시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달서구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층은 20-24세

- 2020년 2021년 기준 대구광역시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달서구에서 20-24세 연령층의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25-29세, 35-39세, 30-34세 순으로 나타남
- 대구광역시 중에서도 달서구에서는 20대의 청년인구 비율이 30대의 청년인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달서구 다음으로 청년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 북구에서 20대(20-29세)의 청년인구 비율이 30대(30-39세)의 청년인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 대구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달서구의 20-24세 청년인구 비율 역시 감소추세

- 최근3년간 수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달서구의 20-24세 청년인구 비율은 감소추세이지만, 달서구의 30-34세 청년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로 나타남
- 달서구 다음으로 청년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 북구에서는 20-24세, 24-29세, 35-39세에서는 최근3년간 청년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유일하게 30-34세 청년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30-34세 청년층이 북구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2.10〉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연령별 청년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4	25-29	30-34	35-39	20-24	25-29	30-34	35-39	20-24	25-29	30-34	35-39
대구광역시	159,933	161,601	134,656	159,654	150,657	158,264	136,780	148,085	140,917	153,446	141,065	138,392
중구	5,094	6,770	5,169	5,586	4,762	6,610	5,255	5,328	4,877	7,019	6,218	5,757
동구	19,381	22,303	20,200	23,621	18,425	22,088	21,012	22,171	17,054	21,401	21,745	20,906
서구	9,892	11,781	8,407	9,036	8,864	11,033	8,514	8,201	7,816	10,203	8,846	7,553
남구	9,352	11,105	8,330	8,848	8,651	11,084	8,457	8,256	8,308	10,779	8,902	7,689

북구	32,197	29,939	24,951	29,059	31,104	29,907	25,401	27,186	30,005	29,460	25,570	24,940
수성구	30,007	25,396	18,636	24,190	28,176	24,739	19,355	22,317	25,871	23,869	20,065	20,735
달서구	40,323	38,950	30,904	35,675	37,558	37,538	30,678	32,228	34,857	35,946	31,621	30,034
달성군	13,687	15,357	18,059	23,639	13,117	15,265	18,108	22,398	12,129	14,769	18,098	20,778

### ■ 연령별 청년인구 수요를 고려해 연령별 맞춤형 청년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

- 현재 대구광역시의 청년인구는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30-34세의 청년층의 인구비율은 소폭 상승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20-24세 청년층의 인구비율은 최근 5년간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연령층별로 청년층을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획일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연령별 수요를 고려해 다각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속적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유일하게 청년인구가 소폭 상승 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정책적 환경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반영하여 정책적 설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현황

### 1)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의 전개

####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의 전개

- 대구광역시는 2015년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 청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함
  - 태동기(2015-2016): 전국 최초 청년위원회 구성, 청년기본조례 제정, 대구청년센터 개소

- 정착기(2017-2018): 청년정책과 신설, 2020 청년기본계획발표
  - 확산기(2019-현재): 사회진입조력사업 본격추진, 청년희망공동체 선포 등
  - 청년 거버넌스 「청년정책네트워크」 발족
- 전국 최초 청년위원회 출범 등 소통과 협업에 기반한 청년정책 수립·추진
-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 청년교류, 정책자문, 역량강화 등 대구 청년들의 삶과 권익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플랫폼
  - (청년정책TF) 신규사업과 주요 청년시책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발굴함으로써, 실국별로 분산된 청년지원책을 체계적으로 관리
  - (청년정책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요 청년시책을 종합·관리하여 정책의 체계성 확보 및 지역청년과 시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정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확대
- 청년이 겪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청년을 중심으로 대구광역시와 민간이 함께하는 소통·협업기구 운영
- (민·청·관 협업TF) 유관기관, 단체, 대학, 기업, 언론 등 지역사회 주체 및 청년당사자와의 유기적인 협업에 기반한 청년정책 수립·추진
  - (청년희망공동체대구 협업회의) 청년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범사회적 차원의 정책 연대와 협력 강화

## 2) 법·제도적 측면

### ■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 평가

-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는 2015년 제정되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함
-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을 19세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살펴보면 가장먼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달서구로 2018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다음으로 남구, 북구가 2019년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도에는 서구, 중구가, 2021년도에는 달성군, 군위군이, 가장 최근에 동구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대구광역시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5년 청년위원회가 전국최초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제1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으로 2023년 제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표 2.11〉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청년기본조례 제정 시기

구분	제정연도
대구광역시	2015
중구	2020
동구	2022
서구	2020
남구	2019
북구	2019
수성구	2019
달서구	2018
달성군	2021
군위군	2021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 정책 분야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정책은 참여확대, 능력개발, 일자리 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7개 분야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동소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 중구와 달서구의 「청년기본조례」의 경우 특별한 사항의 청년정책 분야로서

창업지원, 부채경감, 복지증진, 지역정착, 교류확대 등을 포함하여 더 상세하게 청년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부채경감, 건강권보장, 지역정착에 관련된 청년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파악됨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생활 문화 여건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한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기본소득 지원 부채완화 등 금융지원”이라고 응답한 청년층의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채경감 지원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채경감에 대한 부분을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나타남

〈표 2.12〉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정책 분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비교(2023년 기준)

구분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b>1. 일반사항</b>										
참여확대	○	○	.	.	○	○	○	○	○	○
능력개발	○	○	○	○	○	○	○	○	○	○
일자리확대	○	○	○	○	○	○	○	○	○	○
주거안정	○	○	○	○	○	○	○	.	○	○
생활안정	○	.	.	○	○	.	.	○	○	○
문화활성화	○	○	○	○	○	○	○	○	○	○
권리보호	○	○		○	○	○	○	○	○	.
<b>2. 특별사항</b>										
창업지원	○	○	○	.	.	○	○	○	.	○
부채경감	.	○	.	.	.	.	.	.	.	.
건강권보장	.	.	.	.	.	○	.	.	.	.
복지증진	.	○	○	.	○	.	.	○	.	○
지역정착	.	○	○	.	.	.	.	○	.	.
교류확대	.	○	○	.	○	○	.	○	.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 제1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 청년기에서 중장년기로의 원활한 생애이행 지원에 초점을 두고 청년의 삶 전체를 포괄 지원하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2017.1)하여 청년정책의 기본틀 구축
  - 비전 : 2020년 청년희망 대구
  - 목표 : 청년이 꿈을 키우는 기회의 도시(일자리와 역량 개발), 청년이 살고 싶은 즐거운 도시(가족 형성과 문화 향유), 청년이 주체가 되는 참여의 도시(참여와 교류)
- 제1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9대전략
  - 청년이 꿈을 키우는 기회의 도시 : ① 청년 일자리 기반 강화 ②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③ 미취업 청년 노동시장 진입 ④ 청년창업 성공 기반 구축
  - 청년이 살고 싶은 즐거운 도시 : ⑤ 결혼하기 좋은 대구 만들기 ⑥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⑦ 청년문화 활성화
  - 청년이 주체가 되는 참여의 도시 : ⑧ 청년 주도의 소통과 참여 ⑨ 외부와의 적극적 교류

## ■ 제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 제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살펴보면 인구유출, 코로나 19, 4차산업혁명 등 청년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와 창업 등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함에 중점을 둬
- 동시에 기존 청년보장제에서 나아가 청년 효능감이 높은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추구함
  - 비전 : 청년의 미래와 함께하는 대구
  - 목표 : 역동적인 청년, 편안한 청년, 성장하는 청년, 행복한 청년, 주체적인 청년
  - 전략: 국가 지역간 역할 분담, 정책의 선별적 확대 추진, 정책의 연계강화로 시너지 창출

---

○ 제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방향

- 일자리/취업과 관련된 국비 연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마중물 역할 담당
- 대기업이 부재한 지역 상황에서 제조업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도시에 걸맞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도심 주변 인프라 및 근대 골목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 지역에 외국계 호텔 다수 건립 : 동대구역 앞(미국 메리어트 호텔, 일본 토요코인 호텔), 동성로(일본 토요코인 호텔)
- 디지털, 비대면 확산에 대비하여 지역이 선점해야 할 분야 육성
- VR, AR,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산업
- 섬유, 식품 등 기존 전통산업의 부가가치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강화
- 고령화 시대 사회복지, 돌봄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 지역 소재 기업문화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 제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중점과제는 「휴스타(Hustar) 시즌 1 사업」의 내실화

- 대구는 지역의 핵심산업인 5+1(물, 의료, 에너지, 로봇, 미래형자동차, ICT) 관련 업체와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연계시켜 상생하는 휴스타(HuStar)사업을 지방정부로는 전국 최초로 진행중에 있음
- 혁신대학(6개 대학)과 혁신아카데미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에서 다소 차이 존재
- 혁신아카데미는 교육생들의 호응도도 높으며 실제 가시적인 성과도 있는 반면, 혁신대학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휴스타 시즌1의 문제점과 성과를 기초로 (가칭) HuStar 시즌 2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가 있는 부문은 확대하는 전략에 중점

〈그림 2.2〉 제1·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 전략과제 비교

제1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

제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



〈표 2.13〉 대구광역시 제1·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간의 비교분석 평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법 제도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근거하여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차원의 근거마련에 따른 사우이계획과의 정합성 유지</li> <li>청년기본법 제정</li> <li>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li> </ul>
계획 수립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의 계획수립 및 실행기반 마련을 위한 대구광역시 주도의 계획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주체 및 청년당사자의 유기적인 협업에 기반한 계획수립</li> </ul>
주요 사업 발굴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광역시의 청년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에 의한 청년정책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효능감이 높은 정책의 스케일업</li> <li>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패키지형 프로젝트 발굴 및 계획 수립</li> <li>지원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시너지 창출 모색</li> </ul>
정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참여, 권리,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기본법 및 중앙정부 청년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참여 권리로 구분함</li> </ul>

자료: 대구광역시 제1·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제 3 장

---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설문조사

제1절 조사개요 및 내용

제2절 청년정책 설문조사 결과



# 제3장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설문조사

## 제1절 조사개요 및 내용

### 1. 조사개요 및 내용

#### ■ 조사설계

-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20~39세 남녀 총 2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구광역시 청년인구를 남녀로 비례할당하여 표본을 설정함
- 조사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었음

〈표 3.1〉 조사설계

항목	내용
조사모집단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20~39세 남녀
조사표본	200명
조사방법	모바일(Web) 설문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3년 9월 4일 ~ 9월 13일

#### ■ 조사내용

-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청년의 취업현황, 생활여건, 주거여건, 정책참여현황 등 총 네가지 분야임
  - 청년 취업현황은 구직활동에 어려운점, 대구지역 근무 희망여부, 일자리 정보 탐색처, 일자리 고려요소,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필요 자원 등임
  - 청년 생활여건은 주된 소비·지출 항목 구분, 문화여가 생활, 대구지역 인프라 만족도, 청년공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 등임

- 청년 주거여건은 거주유형, 대구광역시 거주 이유, 입지결정요인, 공공주택,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임
- 청년 정책참여는 청년정책 참여 또는 활동 여부, 참여하지 않은 이유, 청년정책의 필요성임

〈표 3.2〉 조사내용

구 분	주요 설문내용
청년 취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li> <li>◦ 대구지역에서의 근무 희망 여부</li> <li>◦ 대구에서 일하고 싶은(싶지 않은) 이유</li> <li>◦ 일자리 정보 탐색처</li> <li>◦ 일자리 고려 요소</li> <li>◦ 일자리 확대,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li> </ul>
청년 생활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된 소비·지출 항목</li> <li>◦ 재정상태 개선 시 소비·지출을 늘릴 항목</li> <li>◦ 문화·여가 생활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li> <li>◦ 대구지역 프로그램, 인프라 만족도</li> <li>◦ 대구광역시 문화·여가 시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li> <li>◦ 생활·문화 여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li> <li>◦ 청년 공간을 조성할 경우 가장 필요한 공간</li> <li>◦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li> </ul>
청년 주거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유형</li> <li>◦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유</li> <li>◦ 주거입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li> <li>◦ 희망하는 공공주택 형태</li> <li>◦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li> <li>◦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li> </ul>
정책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 수립과정 참여/활동 여부</li> <li>◦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li> <li>◦ 청년정책 필요성</li> </ul>

## ■ 응답자 특성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24세 54명(27.0%), 25~29세 51명(25.5%), 30~34세 49명(24.5%), 35~39세 46명 (23.0%)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105명(52.5%), 여성 95명(47.5%)으로 나타남
- 최종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27명 (13.5%), 전문대 재학/졸업 44명(22.0%), 대학교 재학/졸업 111명(55.5%),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명(9.0%)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107명(53.5%), 비정규직 35명(17.5%), 미취업/취업준비 31명(15.5%), 학생 17명(8.5%), 창업/창업준비 중 10명(5.0%)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달서구가 60명(30.0%)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동구 41명 (20.5%), 북구 28명(14.0%), 수성구 27명 (13.5%) 순임

〈표 3.3〉 응답자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연령별	19~24세	54	27.0%
	25~29세	51	25.5%
	30~34세	49	24.5%
	35~39세	46	23.0%
성별	남성	105	52.5%
	여성	95	47.5%
최종 학력별	고졸 이하	27	13.5%
	전문대(2~3년제) 재학/졸업	44	22.0%
	대학교(4년제) 재학/졸업	111	55.5%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9.0%
경제활동 유형별	정규직	107	53.5%
	비정규직	35	17.5%
	미취업/취업준비	31	15.5%
	학생(대학/대학원)	17	8.5%
	창업/창업 준비 중	10	5.0%
지역별	중구	12	6.0%
	동구	41	20.5%
	서구	13	6.5%
	남구	10	5.0%
	북구	28	14.0%
	수성구	27	13.5%
	달서구	60	30.0%
	달성군	9	4.5%

## 제2절 청년정책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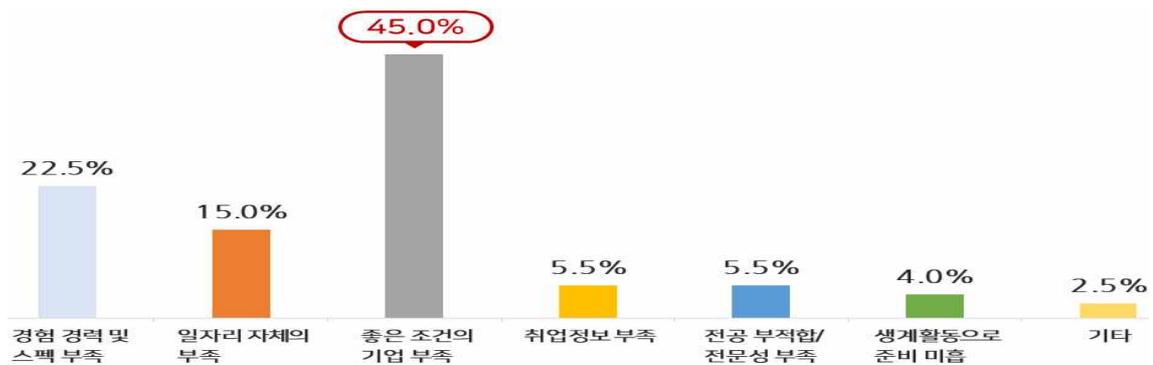
### 1. 청년취업 현황

#### 1) 구직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

■ 질문)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구직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 조사결과, ‘좋은 조건의 기업 부족’이 45.0%로 나타남. 이와 같이 기업 측면의 문제 이외에도 ‘경험·경력 및 스펙 부족’(22.5%)과 같은 대구 청년들 개인의 역량도 하나의 이유로 손꼽혔음

〈그림 3.1〉 구직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



- 연령별 조사결과, 전 연령층에서 ‘좋은 조건의 기업 부족’이 구직활동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손꼽혔다. 30~34세의 경우 ‘경험·경력 및 스펙 부족’, ‘일자리 자체의 부족’이 18.4%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 개인 및 기업 측면 양방향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성별 조사결과, 남성, 여성 양측 모두 ‘좋은 조건의 기업 부족’을 구직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선택하였으며 남성(54.3%)이 여성(34.7%)에 비해 19.6%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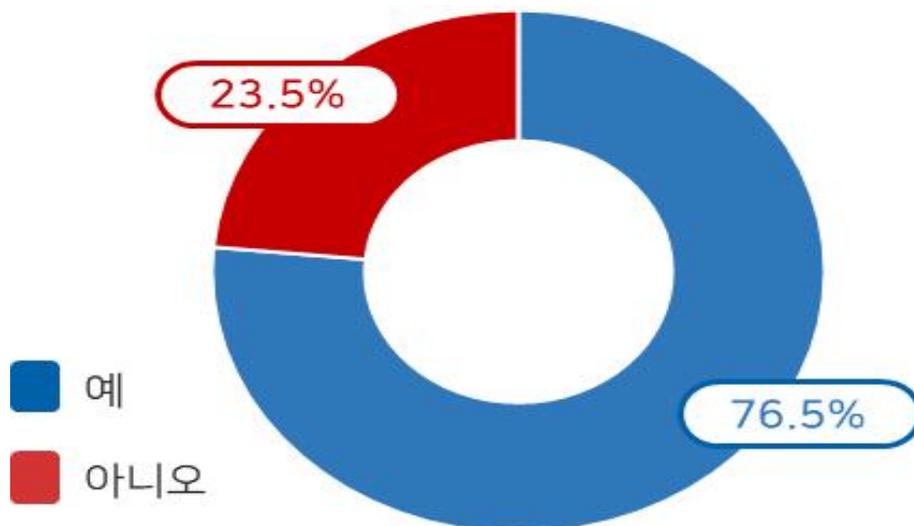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창업/창업 준비 중(60.0%), 정규직(55.1%), 비정규직(37.1%)은 ‘좋은 조건의 기업 부족’을 미취업/취업준비생(38.7%)·학생(35.3%)은 ‘경험 경력 및 스펙 부족’을 선택하였음

## 2) 대구지역 근무 희망여부

■ 질문) 귀하께서는 현재 타지역과 대구지역에 일자리가 생긴다면 대구지역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직자일 경우: 귀하께서는 타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도 대구지역에 남아서 계속 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대구지역에서 근무 희망 여부 조사결과, 76.5%의 대구 청년이 타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도 대구지역에 남아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그림 3.2〉 대구지역 근무 희망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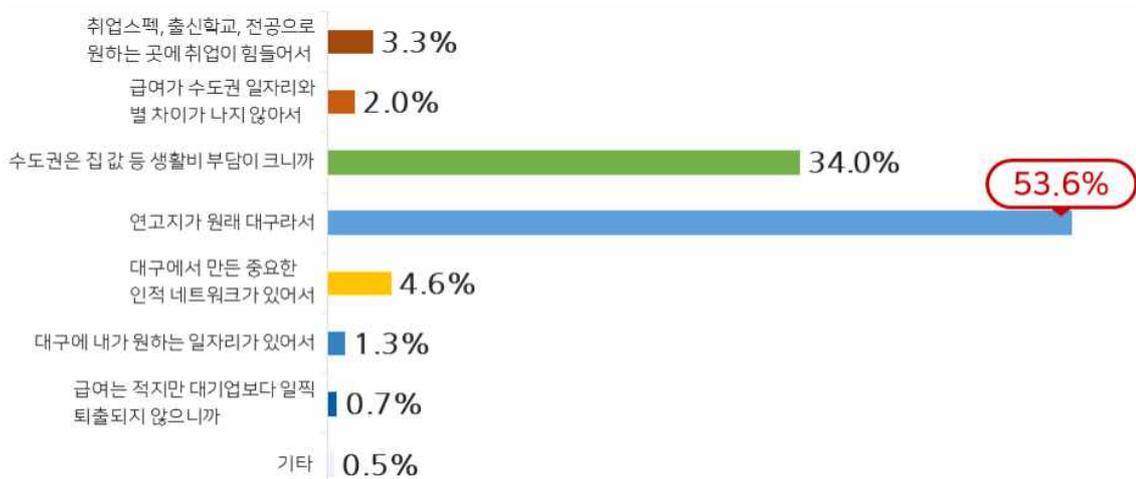
- 연령별 조사결과, 35~39세가 80.4%로 대구지역에 남아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25~29세에서 66.7%로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냄
- 최종학력별 조사결과,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타 지역에서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대구 청년들은 오직 55.6%만 대구지역에 남아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대체로 대구지역에 남아 근무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창업/창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우 90.0%가 대구지역에서 창업할 계획이라고 의사를 나타냄

## 2-1) 대구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 ■ 질문) (2번 문항에서 ‘①예’ 항목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 그렇다면 대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구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 조사결과, ‘연고지가 원래 대구라서’ 53.6%, ‘수도권은 집값 등 생활비 부담이 크니까’ 34.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자취하는 집이 대구에 위치해 있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나타났음

〈그림 3.3〉 대구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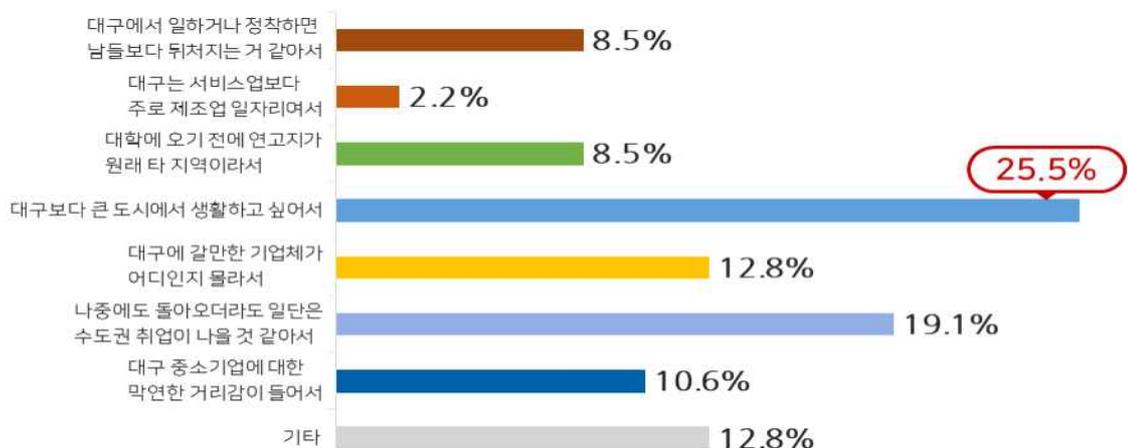
- 연령별 조사결과, 25~29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연고지가 원래 대구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에서는 ‘수도권은 집값 등 생활비 부담이 크니까’, ‘연고지가 원래 대구라서’ 동일하게 44.1%로 조사되었음
- 성별 조사결과, 남·여 모두 ‘연고지가 원래 대구라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 없이 대구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의 비중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학생의 경우 ‘수도권은 집값 등 생활비 부담이 크니까’ 81.8%로 높게 나타났고 창업/창업 준비 중인 대구 청년들은 ‘연고지가 원래 대구라서’ 의견에 100%로 만장일치된 의견을 나타냈음

## 2-2) 대구지역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 ■ 질문) (2번 문항에서 ‘②아니오’항목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 대구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구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은 이유 조사결과, ‘대구보다 큰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25.5%, ‘나중에도 돌아오더라도 일단은 수도권 취업이 나올 것 같아서’ 19.1% ‘대구에 갈만한 기업체가 어디인지 몰라서’, ‘기타’ 12.8% 순으로 나타났음
- 기타의견으로는 대구지역의 연봉이 타 대도시 등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고, 기업 주변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을 느낌 등의 의견이 나타났음

〈그림 3.4〉 대구지역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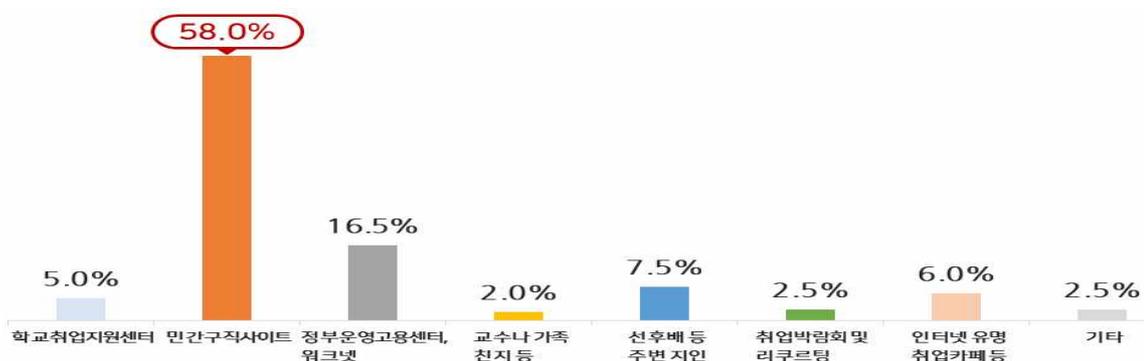
- 연령별 조사결과, 19세~24세는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일단은 수도권 취업이 나올 것 같아서’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29세, 30~34세에서는 각 29.4%, 30.0%로 ‘대구보다 큰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서’를 선택한 비율이 1순위로 높았음
- 성별 조사결과, 여성은 30.8%가 ‘대구보다 큰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서’의 이유로 대구에 남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대구보다 큰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대구에 갈만한 기업체가 어디인지 몰라서’, ‘대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이 들어서’가 19.0%로 동일하게 조사되었음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은 ‘대구보다 큰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25.0%, 미취업/취업준비생의 경우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일단은 수도권 취업이 나올 것 같아서’, ‘대구보다 큰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서’가 33.3%로 나타났음

### 3) 일자리 정보 탐색처

#### ■ 질문) 귀하는 일자리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 일자리 정보 탐색처 조사결과, 58.0%로 절반 이상의 대구 청년들이 ‘민간 구직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 등)’를 이용하여 일자리 정보를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음으로 ‘정부운영고용센터, 워크넷’이 16.5% 순으로 높았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시청, 전문직협회, 교육청 인력풀, 사립 유치원 연합회 등이 나타났음

〈그림 3.5〉 일자리 정보 탐색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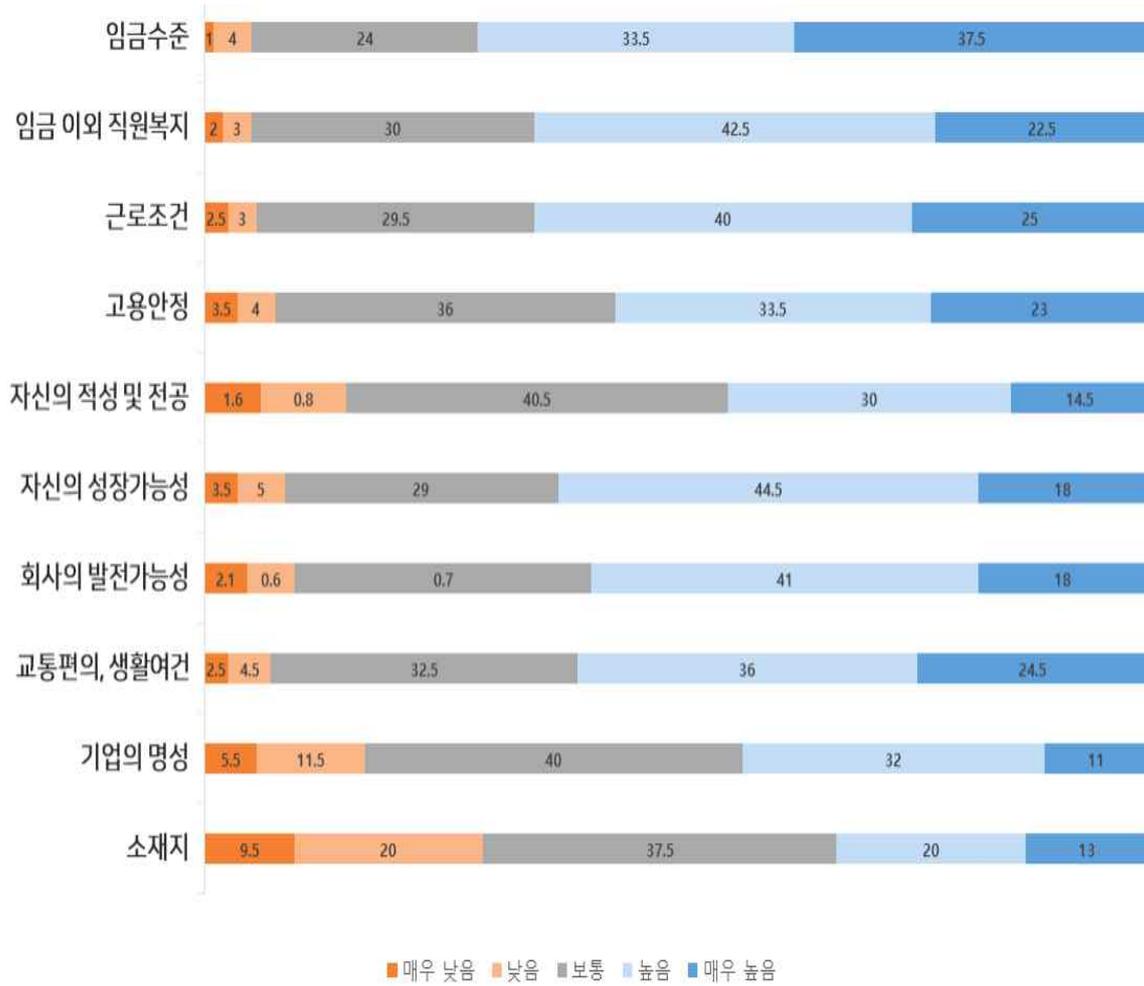
- 연령별 조사결과, 대부분 '민간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여 일자리 정보를 찾고 있었지만 25세~29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정부 운영 고용센터, 워크넷'에서도 동시에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성별 조사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민간 구직사이트', '정부운영고용센터, 워크넷' 순으로 일자리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남성의 경우 '인터넷 유명 취업카페(9.5%), 선후배 등 주변 지인(8.6%)'을 통해 구직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종학력별 조사결과, 전체 조사와 마찬가지로 최종학력에 관계없이 '민간 구직사이트'에서 일자리 정보를 얻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고졸 이하의 청년은 '선후배 등 주변 지인'(14.8%),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의 청년은 '교수나 가족 친지'(11.1%)에서도 구직 정보를 얻는 것으로 밝혀짐

#### 4) 일자리 고려요소

■ 질문) 다음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주요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일자리를 선택하실 때 각 항목마다 중요시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일자리 고려요소 조사결과, '임금 수준'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음. 긍정 응답(매우 높음+높음)도 마찬가지로 71.0%로 '임금 수준'이 일자리 고려요소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일자리가 위치한 '소재지'는 긍정 응답의 비율이 33.0%로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

<그림 3.6> 일자리 고려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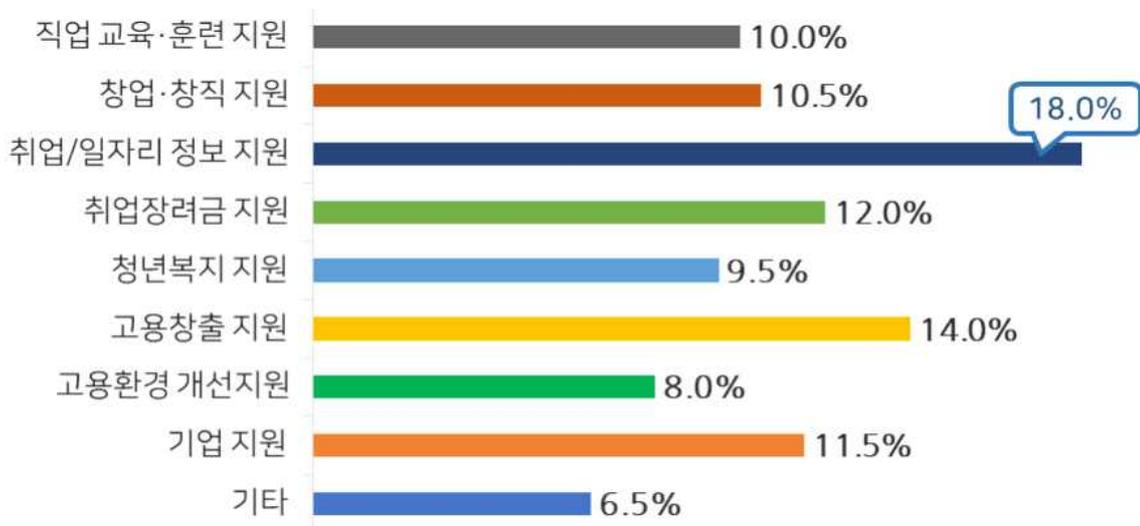


## 5)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 질문) 청년의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 확대,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 조사결과, ‘취업/일자리 정보지원’ 18.0%, ‘고용창출 지원’ 14.0%, ‘취업장려금 지원’ 12.0%, ‘기업 지원’ 11.5% 등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7〉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연령별 조사결과, 19~24세, 35~39세는 ‘취업/일자리 정보지원’(각 18.5%, 23.9%), 25~29세는 ‘기업지원’(19.6%), 30~34세는 ‘취업장려금 지원’(18.4%) 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별 욕구가 상이한 결과를 보였음
- 성별 조사결과, 여성은 ‘취업/일자리 정보지원’(22.1%), 남성은 ‘창업·창직 지원’, ‘취업/일자리 정보지원’이 14.3%로 나타나 구직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임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정규직·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 미취업/취업준비생은 각 15.0%, 17.1%, 29.0%로 ‘취업/일자리 정보지원’을 우선시켰으며 학생의 경우 ‘취업장려금’ 및 ‘고용창출 지원’을 각 23.5%로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2. 청년 생활여건

### 1) 주된 소비·지출 항목

#### ■ 질문) 귀하의 주된 소비·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

- 주된 소비·지출 항목 조사결과, ‘식비 및 주류’가 4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거비’ 26.0%, ‘부채·이자 상환’ 19.0% 등 순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소비 패턴에 고정지출을 제외한 여가 생활 비중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8〉 주된 소비·지출 항목



- 연령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식비 및 주류’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이자 상환’의 비율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성별 조사결과, 주된 소비·지출 항목 중 ‘식비 및 주류’, ‘주거비’에 지출하는 항목의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음(‘식비 및 주류’ 52.6%, ‘주거비’ 27.4%)
- 이 밖에 ‘부채·이자 상환’의 항목은 남성(25.7%)이 여성(11.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차이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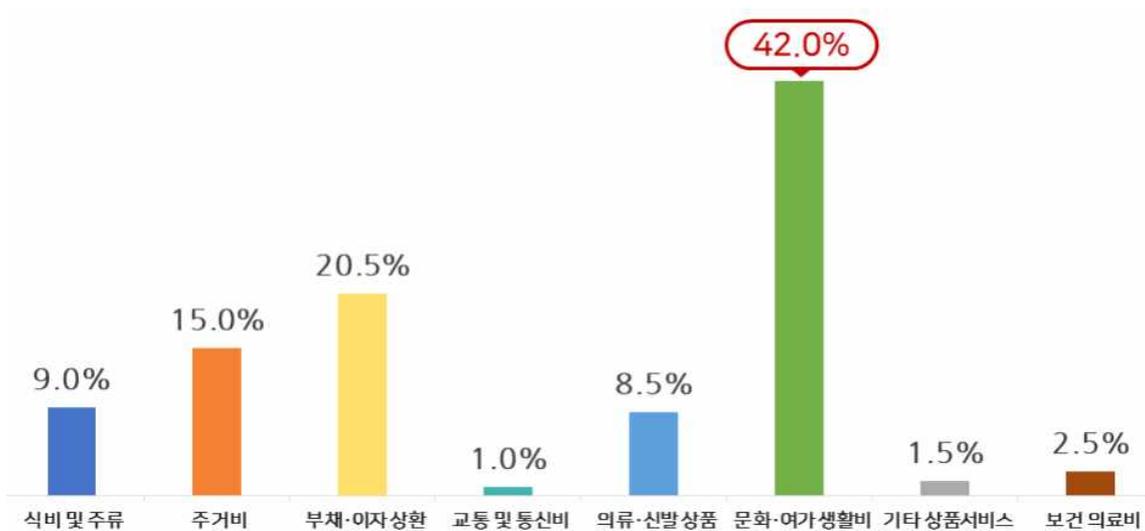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정규직·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식비 및 주류’, ‘주거비’, ‘부채·이자 상황’ 순서대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고 학생의 경우 대다수가 주된 소비 지출 항목에 ‘식비 및 주류’(70.6%)로 응답하였음

## 2) 재정상태 개선 시 소비·지출 항목

### ■ 질문) 귀하의 재정상태가 개선된다면 소비·지출을 늘릴 항목은 무엇입니까?

- 재정상태 개선 시 소비·지출 항목 조사결과, ‘문화·여가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싶다는 비율이 42.0%로 제시되었음. 이외에 보건 의료비(2.5%), 기타 상품서비스(1.5%), ‘교통 및 통신비’(1.0%)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늘리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3.9〉 재정상태 개선 시 소비·지출 항목



- 연령별 조사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이자 상황’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의류·신발 상품 소비’에 지출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음
- 성별 조사결과, 남·여 모두 ‘문화·여가 생활비’(남성 38.1%, 여성 46.3%)에 지

출 비율을 늘리고 싶은 것으로 보아 개인의 여가시간을 조금 더 풍족하게 보내고 싶다는 것으로 추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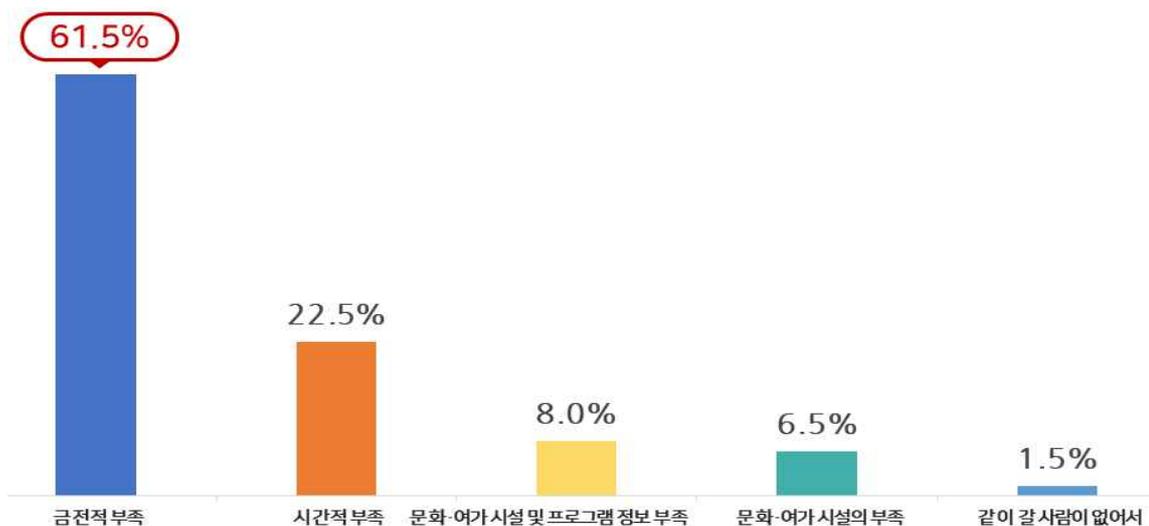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경제활동 유형에 상관없이 ‘문화·여가 생활비’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생의 경우 ‘의류·신발 상품 소비’(29.4%)에도 지출을 희망하는 비율이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3) 문화·여가 생활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 ■ 질문) 귀하의 문화·여가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여가 생활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조사결과, ‘금전적 부족’의 이유가 61.5%, ‘시간적 부족’ 22.5%로 프로그램 정보의 부족과 시설 부족이 아닌 개별적인 이유에서 문화 여가 생활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음

<그림 3.10> 문화·여가 생활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 연령별 조사결과, 연령별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30대가 20대보다 ‘시간적 부족’을 우선으로 꼽는 비율이 더 높았음
- 성별 조사결과, 남성은 64.8%, 여성은 57.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금전적 부

족' 측면에서 6.9%p 더 높은 비율을 얻었음. 이 밖에도 여성의 경우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부족',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이 둘 다 8.4%로 나타나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일부 존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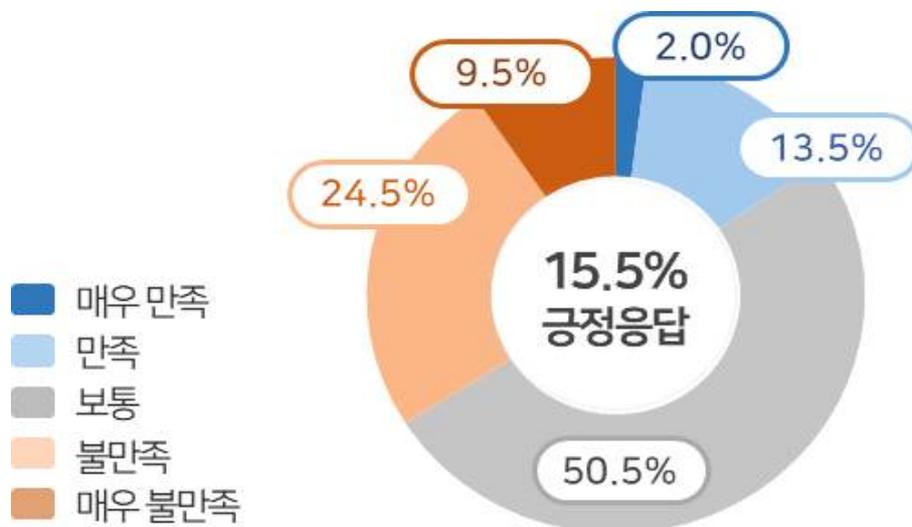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은 '시간적 부족',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부족'이 모두 20.0%로 다른 경제활동 유형에 비해 다양한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4) 대구지역 프로그램, 인프라 만족도

##### ■ 질문) 대구지역의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인프라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대구지역 프로그램, 인프라 만족도 조사결과, 긍정응답('매우 만족'+ '만족')은 5.5%로 조사되었음. 중도층이 50.5%로 조사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부정응답('매우 불만족'+ '불만족')의 합은 34.0%로 나타나 대구 청년들은 문화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1〉 대구지역 프로그램, 인프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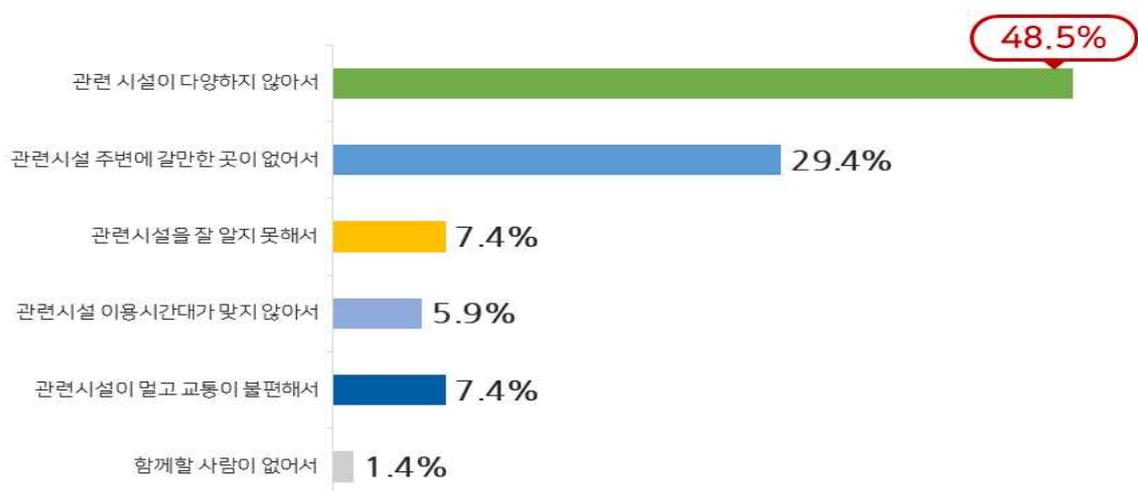
- 연령별 조사결과, 비교적 35~39세에서 긍정응답 17.4%로 대구지역 프로그램 및 인프라 만족도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30~34세는 14.3%의 가장 낮은 긍정응답을 보여 대다수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조사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긍정응답이 1.5%p 높은 16.2%를 기록하였지만 소극적인 응답(‘보통’)을 52.6%나 기록한 여성 측에서 향후 대구지역의 문화·인프라가 나아짐에 따라 이들의 행보가 주목될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긍정응답은 학생이 23.5%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부정응답의 수치도 11.8%밖에 나타나지 않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타 계층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

#### 4-1) 대구광역시 문화·여가 시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 질문) (9번 문항에서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항목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 대구광역시 문화·여가 시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구광역시 문화·여가시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조사결과, ‘관련 시설이 다양하지 않아서’ 48.5%, ‘관련시설 주변에 갈만한 곳이 없어서’ 29.4%, ‘관련 시설을 잘 알지 못해서’, ‘관련 시설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각 7.4%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12> 대구광역시 문화·여가 시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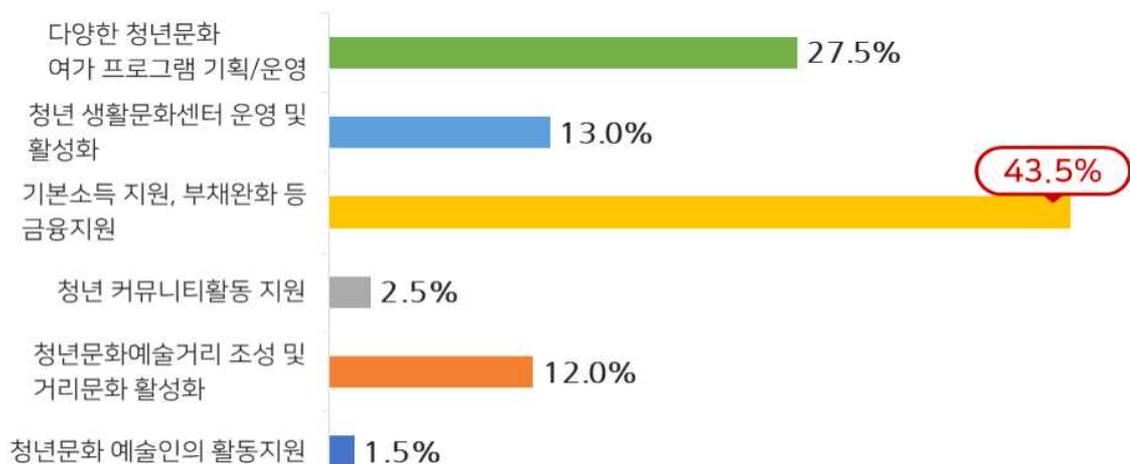
- 연령별 조사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관련 시설이 다양하지 않아서’에 응답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반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관련 시설 주변에 갈만한 곳이 없어서’의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비교적 우세하였음
- 성별 조사결과, ‘관련 시설이 다양하지 않아서’ 응답이 남·여 모두 우세한 가운데 여성이 61.3%로 남성에 비해 23.5%p 더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창업/창업 준비 중인 청년 응답자들은 만장일치로 ‘관련 시설이 다양하지 않아서’(100.0%)를 선택하였고 미취업/취업준비생들은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의 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에 비슷한 수치를 기록

## 5) 생활·문화 여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 질문) 청년의 생활·문화 여건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한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문화 여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조사결과, ‘기본소득 지원, 부채완화 등 금융지원’에서 43.5%를 기록하였음. 다음으로 ‘다양한 청년문화 여가 프로그램 기획/운영’ 27.5%, ‘청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활성화’ 13.0%, ‘청년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거리문화 활성화’ 12.0% 순으로 밝혀졌음

〈그림 3.13〉 생활·문화 여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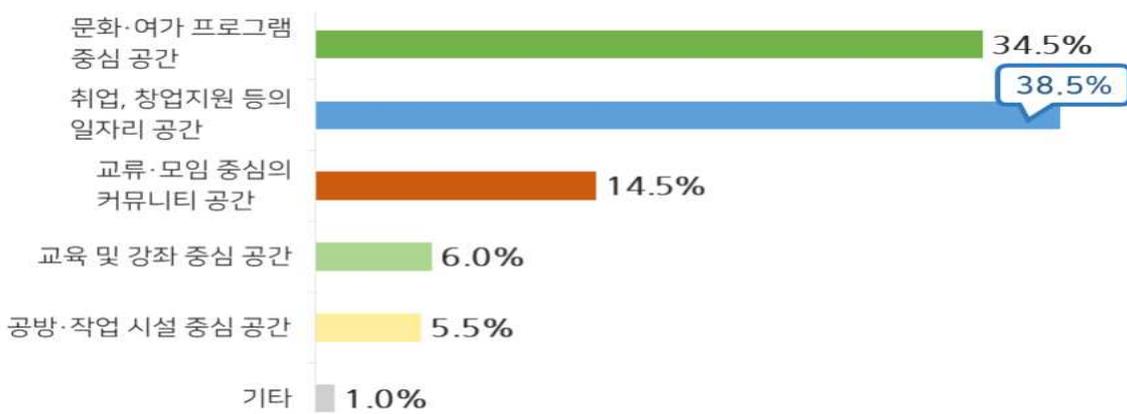
- 연령별 조사결과, 35~39세에서 47.8%로 ‘기본소득 지원, 부채완화 등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9~24세에서는 ‘다양한 청년문화 여가 프로그램 기획/운영’ 35.2%로 연령대별 결과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성별 조사결과, 남성 48.6%, 여성 37.9%로 ‘기본소득 지원, 부채완화 등 금융지원’과 같은 현금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혔으며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문화 예술인의 활동 지원’은 비교적 대구 청년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정규직·비정규직/미취업·취업준비/창업·창업 준비 중인 청년들은 ‘기본소득 지원, 부채완화 등 금융지원’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선택하였음. 반면, 학생은 ‘다양한 청년문화 여가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52.9%를 기록하였음

## 6) 청년 공간을 조성할 경우 가장 필요한 공간

### ■ 질문) 대구광역시에서 청년층들을 위한 청년 공간을 조성할 경우 가장 필요한 공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년 공간을 조성할 경우 가장 필요한 공간 조사결과, ‘취업 창업지원 등의 일자리 공간’ 38.5%,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심 공간’ 34.5%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체육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제시되었음

〈그림 3.14〉 청년 공간을 조성할 경우 가장 필요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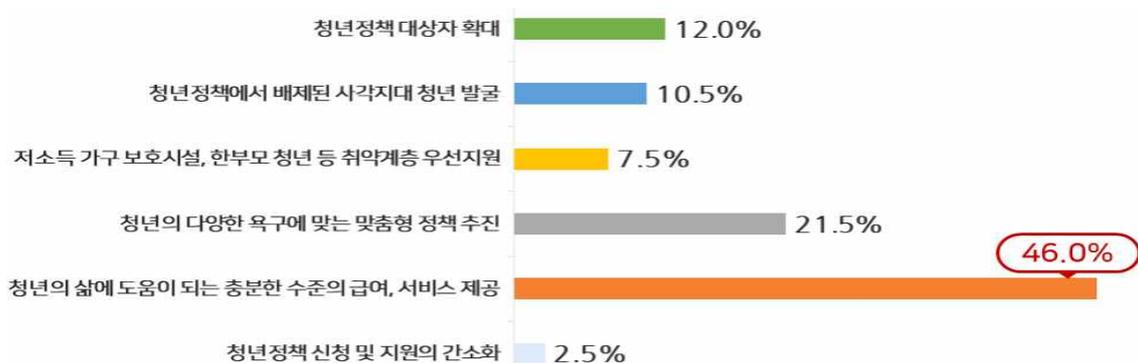
- 연령별 조사결과, 25~29세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심 공간’(41.2%)을 19~24세/30~34세/35~39세는 ‘취업·창업지원 등의 일자리 공간’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음. 25~29세의 경우 ‘공방·작업시설 중심 공간’(11.8%)을 선택한 비율도 일부 나타났음
- 성별 조사결과, 여성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심 공간(38.9%), ‘공방·작업시설 중심 공간’(8.4%)에 관심을 보였고 남성은 ‘취업, 창업지원 등의 일자리 공간’(41.0%), ‘교류·모임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18.1%), ‘교육 및 강좌 중심 공간’(6.7%)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정규직(36.4%)/학생(35.3%)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심 공간’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고 미취업, 취업준비(54.8%)/창업, 창업 준비 중(40.0%)/비정규직(37.1%)에서는 ‘취업, 창업지원 등 일자리 공간’을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7)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 ■ 질문) 대구광역시에서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개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조사결과,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수준의 급여, 서비스 제공’이 46.0%를 기록해 대다수의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현금·현물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림 3.15〉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 연령별 조사결과, 19~24세의 경우 ‘청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수준의 급여, 서비스 제공’은 모두 31.5%의 동일한 비율을 얻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성별 조사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수준의 급여, 서비스 제공’, ‘청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청년정책 대상자 확대’(14.7%), 남성의 경우 ‘청년정책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청년 발굴’(12.4%) 응답도 일부 확인할 수 있음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학생층에서 ‘청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41.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또한 타 경제활동 유형에 비해 ‘저소득 가구, 보호시설 한부모 청년 등 취약계층 우선지원’에도 17.6%로 응답한 비율이 일부 나타나 타 유형과 차별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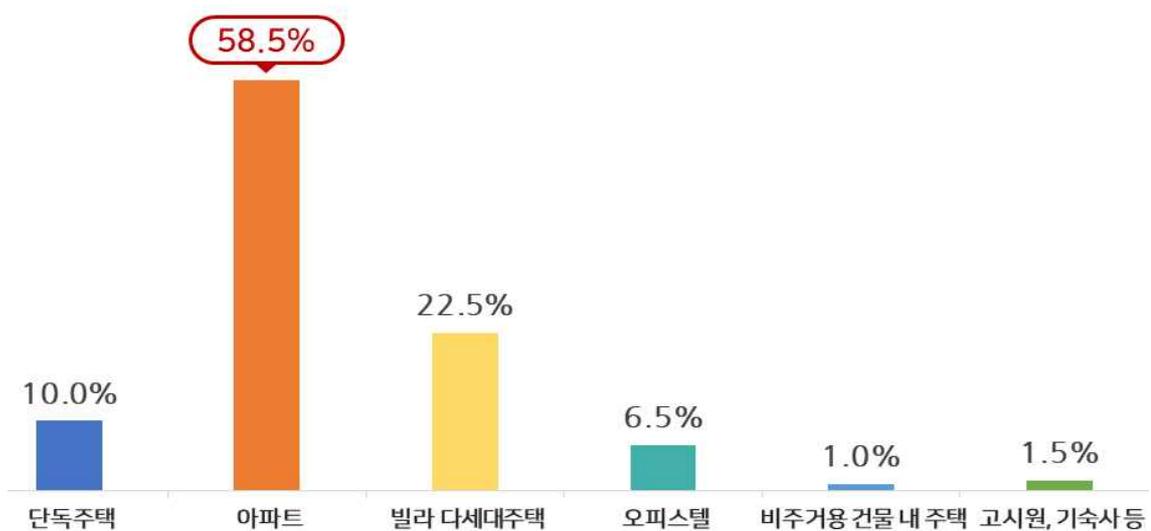
### 3. 청년 주거여건

#### 1) 거주지 유형

##### ■ 질문)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거주지 유형은 무엇입니까?

- 거주지 유형 조사결과, ‘아파트’ 58.5%, ‘빌라/다세대주택’ 22.5%, ‘단독주택’ 10.0% 순으로 나타나 대구 청년층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6> 거주지 유형



- 연령별 조사결과, 19~24세/30~34세/35~39세에서 각 60% 이상이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25~29세는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빌라/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35.3%로 일부 파악됨
- 성별 조사결과, 남성 61.0% 여성 55.8%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5.2%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70.6%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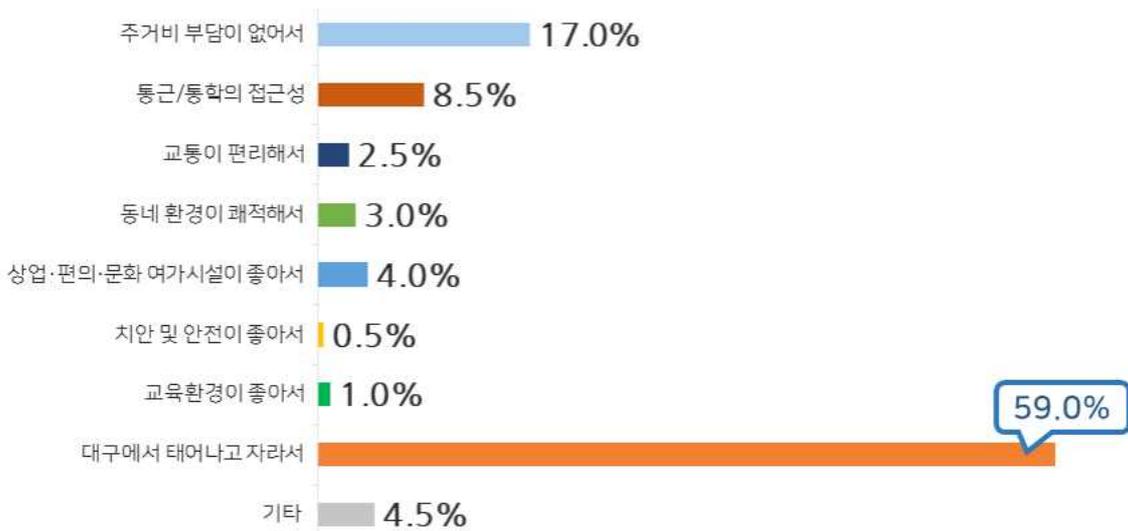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 ‘아파트’ 40.0%, ‘빌라/다세대주택’ 28.6%, ‘오피스텔’ 14.3% 등 여러 거주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유

### ■ 질문) 귀하께서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거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유 조사결과,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59.0%의 연고지가 대구라는 것이 파악되었음. 기타 응답으로는 대구에 정착했기 때문에 / 본가와 가까워서 등의 이유가 나타났음

<그림 3.17>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유



- 연령별 조사결과, 연령별 구분 없이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의 이유로 현재 까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음. 이 밖에 ‘주거비 부담이 없어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소된 것으로 해석됨
- 성별 조사결과,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주거비 부담이 없어서’, ‘통근/통학

의 접근성' 순으로 남·여 응답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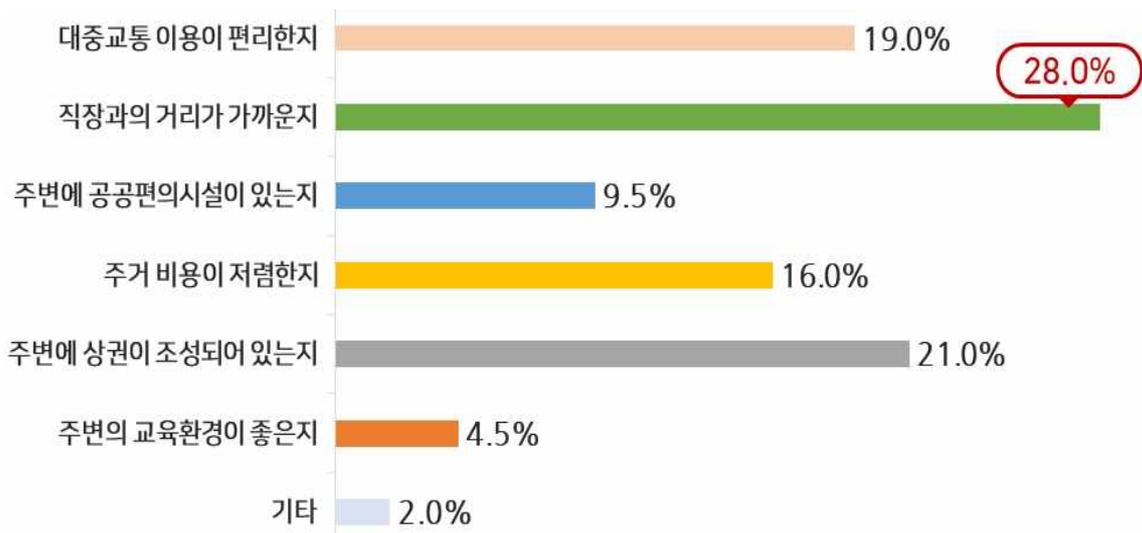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응답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의 21.5%는 '주거비 부담이 없어서'와 같은 이유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3) 주거입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질문) 귀하가 주거입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중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 주거입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결과,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지'가 28.0%로 주거입지 결정 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조사되었음. 다음으로 '주변에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지' 21.0%,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19.0%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18〉 주거입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연령별 조사결과, 30~34세 청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주변에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지'(각 24.5%) 3가지 이유를 주된 요인으로 파악하였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지'를 중요 요인으로 고려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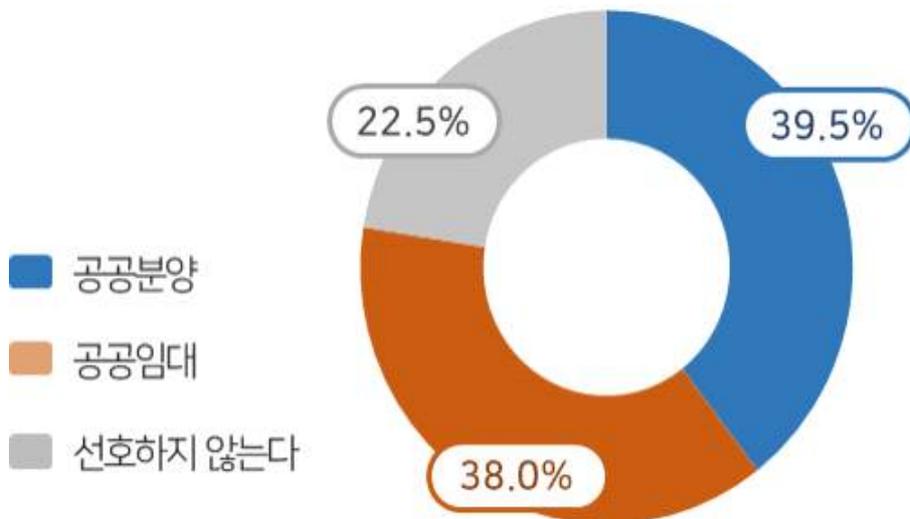
- 성별 조사결과,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지’에 대해 남성 29.5%, 여성 26.3%가 주거입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23.2%), ‘주변에 공공편의시설이 있는지’(12.6%)에도 일부 비중을 둔 모습을 보였음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비정규직(28.6%) 및 미취업/취업준비생(25.6%)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정규직(32.7%)/학생(29.4%)들은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밖에 창업/창업 준비 중인 청년의 경우 ‘주거비용이 저렴한지’(40.0%)에 대한 요인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4) 희망하는 공공주택 형태

■ 질문) 현재 대구광역시는 공공임대 등 다양한 청년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공공주택 중에 어떠한 형태를 선호하시나요?

- 희망하는 공공주택 형태 조사결과, ‘공공분양’ 39.5%, ‘공공임대’ 38.0%로 조사되어 대구 청년들은 분양 및 임대에 대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19〉 희망하는 공공주택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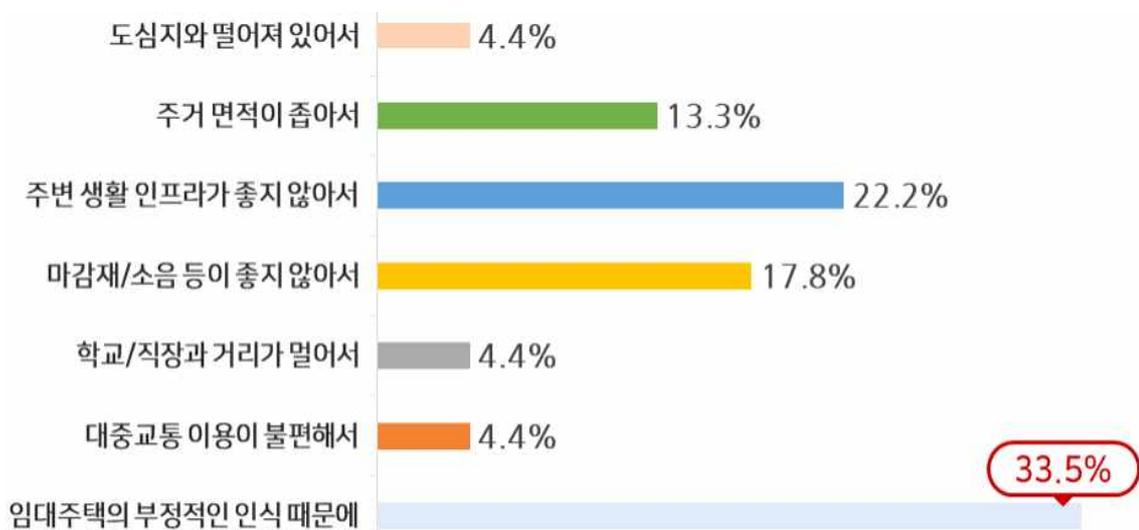
- 연령별 조사결과, 25~29세는 공공임대(56.9%)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9~24세(42.6%)/30~34세(51.0%)/35~39세(41.3%)는 공공분양을 대체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성별 조사결과, 남성은 공공분양(40.0%)을 더 희망하고 있으며 여성은 공공임대(4.1%)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정규직(43.0%) 및 창업/창업 준비 중(50.0%)인 청년들은 '공공분양'의 형태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비정규직(45.7%), 미취업/취업준비(41.9%) 청년들은 '공공임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둘 다 동일한 비율(35.3%)로 조사되었음

#### 4-1)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 ■ 질문) (16번 문항에서 '③선호하지 않는다' 항목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조사결과,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응답이 가장 많은 33.5%로 조사되었음. 이외에도 '주변 생활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22.2%, '마감재/소음 등이 좋지 않아서' 17.8% 등으로 나타났음

〈그림 3.20〉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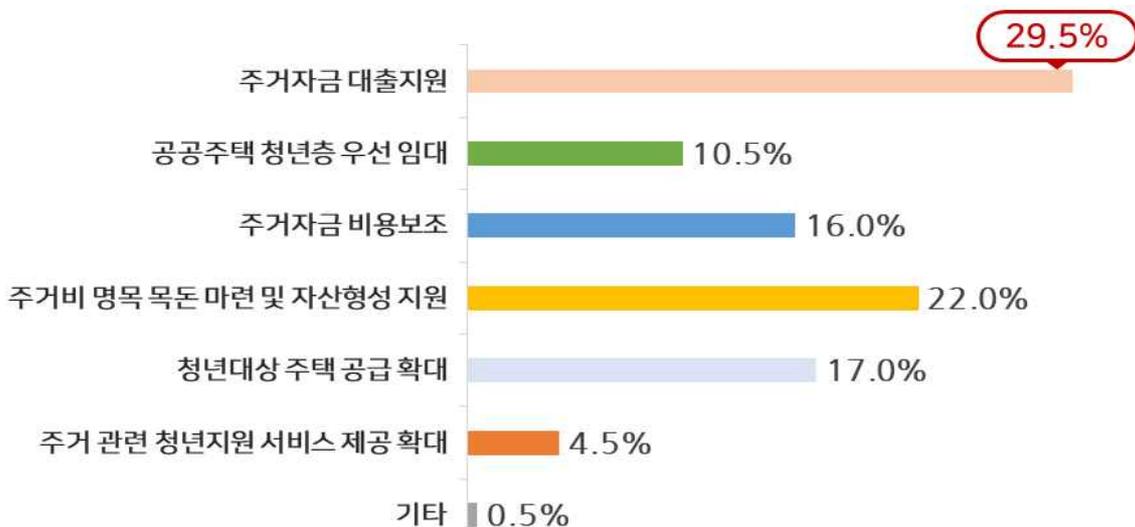
- 연령별 조사결과, 19~24세에서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37.5%)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25~29세에서는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마감재/소음 등이 좋지 않아서'(각 30.0%), 30~34세는 '주변 생활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44.0%, 35~39세에서는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마감재/소음 등이 좋지 않아서'가 각 40.0%로 나타나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연령별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성별 조사결과,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 34.6%, 여성 31.6%로 조사되었음. 특이사항으로는 여성 측에서 '주거 면적이 좁아서'(15.8%) 의견도 일부 있었으며 남성에 비해 4.3%p 높은 것으로 밝혀짐

## 5)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 ■ 질문)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조사결과, '주거자금 대출지원'이 29.5%로 가장 높았고 '주거비 명목 목돈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 22.0%,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17.0%, '주거자금 비용 보조' 16.0%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21〉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 
- 연령별 조사결과, 35~39세에서 특히 ‘주거자금 대출지원’(41.3%)이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음. 이 밖에 19~24세에서는 ‘공공주택 청년층 우선 임대’ 응답도 18.5%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 성별 조사결과, 남성은 ‘주거자금 대출지원’(33.3%)의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주거자금 대출지원’(25.3%), ‘주거비 명목 목돈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24.2%) 2개의 항목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음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정규직(32.7%)/비정규직(28.6%)/학생(29.4%)은 ‘주거자금 대출지원’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취업/취업준비생은 ‘주거비 명목 목돈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29.0%)의 비율이 우세하였음. 창업/창업 준비 중인 청년은 ‘공공주택 청년층 우선임대’, ‘주거비 명목 목돈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각 30.0%)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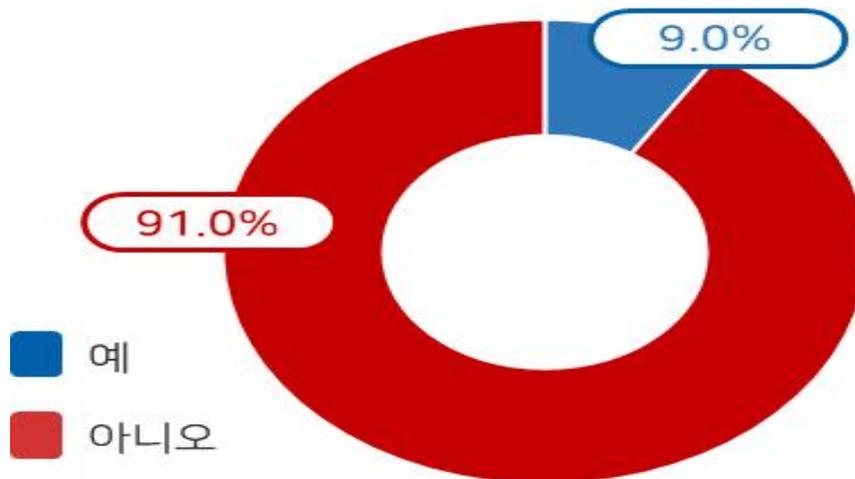
## 4. 청년 정책참여

### 1) 청년정책 수립과정 참여/활동 여부

■ 질문)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으로서 의견 개진 등 참여/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 청년정책 수립과정 참여/활동 여부 조사결과, 대다수의 대구 청년이 청년으로서 의견 개진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91.0%)고 응답하였음

〈그림 3.22〉 청년정책 수립과정 참여/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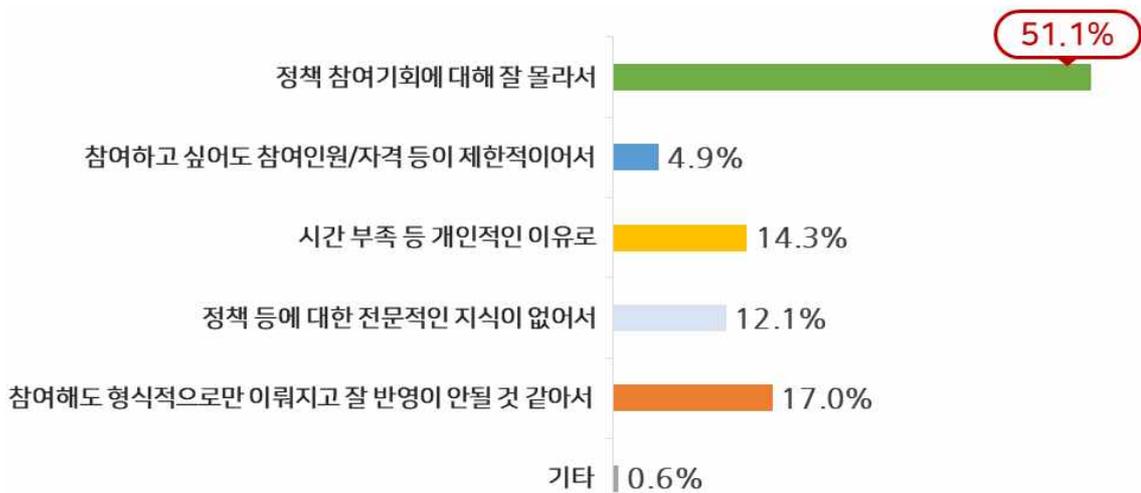
- 연령별 조사결과, 35~39세에서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한 비율이 10.9%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25~29세에서 청년 정책 활동 참여 비율이 5.9%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이들은 취업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됨
- 성별 조사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0.9%p 많은 9.5%가 청년으로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학생 및 창업/창업 준비 중인 청년들은 만장일치로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100.0%)고 응답하였음. 반면, 미취업/취업준비생의 12.9%는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높았음

### 1-1)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 질문) (18번 문항에서 '②아니오'항목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나 활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이유 조사결과, 절반 이상의 대구 청년들은 '정책 참여기회에 대해 잘 몰라서'(51.1%)의 이유로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23〉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연령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정책 참여기회에 대해 잘 몰라서'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해도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잘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비율이 점차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성별 조사결과, 남성은 '정책 참여기회에 대해 잘 몰라서'(57.3%), '참여해도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잘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20.8%)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시간 부족 등 개인적인 이유로(18.6%), '정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17.4%),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인원/자격 등이 제한적이어서'(7.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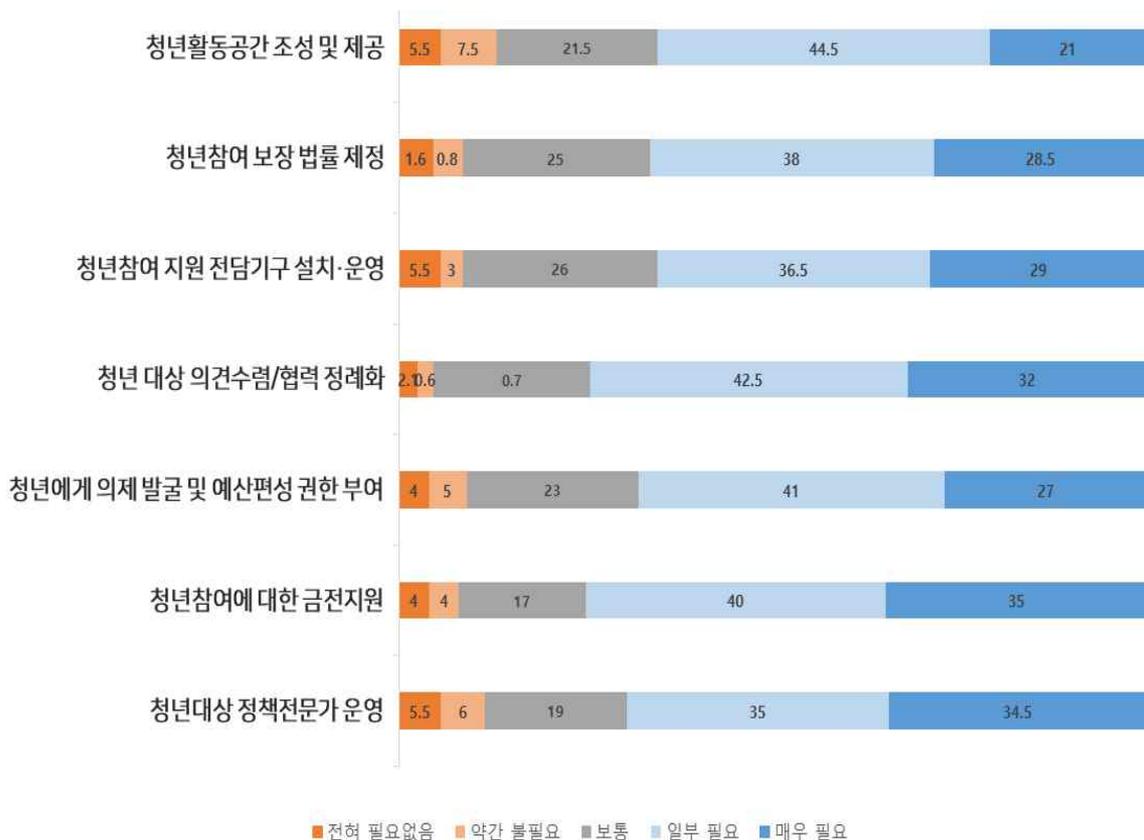
- 경제활동 유형별 조사결과, 경제활동 유형에 관련 없이 ‘정책 참여기회에 대해 잘 몰라서’ 응답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았음. 학생의 경우 학업에 몰두하고 있어 ‘시간 부족 등 개인적인 이유로’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29.4%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남

## 2) 청년정책 필요성

### ■ 질문) 다음의 청년정책 주요 항목마다 그 필요성을 정도에 따라 선택해 주십시오.

- 청년정책 필요성 조사결과, 긍정응답(‘매우 필요’+‘일부 필요’)은 ‘청년참여에 대한 금전지원’에서 75.0%로 다양한 청년정책 가운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음. 이에 반해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제공’에서 부정응답(‘전혀 필요 없음’+‘약간 불필요’)에서 13.0%를 얻어 비교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24〉 청년정책 항목에 따른 필요성



---

# 제 4 장

---

## 국내 청년정책 사례 조사

제1절 일자리 관련 사례

제2절 주거 관련 사례

제3절 복지 관련 사례



# 제4장 국내 청년정책 사례조사

## 제1절 일자리 관련 사례

### 1. 서울시 일자리 청년정책의제

#### 1) 정책의 추진 배경

##### ■ 좋은 일자리 기회 소멸과 일자리의 위험 증가

-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의 소멸로 일하는 청년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도가 증가
  -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33.4%)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37.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청년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청년은 전통적 노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분야의 노동에 종사해야할 가능성이 높으며, 취업자 중 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비율은 전국보다 서울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체 플랫폼노동자<sup>15)</sup> 중 30대 이하가 36.7%를 차지함
- 일자리 형태의 분화는 일하는 청년이 경험하는 불안정의 차원을 확장
  - 과거 불안정한 노동은 예측가능한 노동시간과 이로 인한 실질적 소득상실을 의미하였지만, 최근의 불안정노동은 노동과 소득의 불확실성 및 자기통제가 힘든 노동환경을 의미함

##### ■ 좁은 문 앞에 선 청년, 불평등에 대한 분노

- 최근 조직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보장의 이중화도 심화되고 있음

15) 플랫폼 노동자는 취업자 중 '한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유급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혹은 '한달 동안 일거리 1건당 수수료나 수수료 정액급여 혼합방식으로 소득이 결정되는 단기 아르바이트 앱/웹 이용자'로 정의함

-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수준은 72.4%, 2019년 (69.7%)보다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간 이동의 단절은 생애초기 일자리의 불리함이 전 생애를 거쳐 지속, 확대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 ■ COVID-19 사태로 인해 일하는 청년의 불안도 심각

- 2020년 2월 이후 실직 경험자 29.9%, 실직 경험자 중 82.5%가 코로나 19와 관련이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은 23.6%에 불과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수행한 '코로나 19와 청년현황 조사'에서 서울시 거주 청년 중 29.9%가 코로나 이후 실직 경험이 있으며, 학력에 따라 고졸 이하 (44.4%), 전문대 재학·중퇴(39%)에서 실직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프리랜서·특고(51.3%), 기타 비정규직(44.4%)의 실업 경험이 높음
- '코로나 19' 이후 구직과 관련한 부정적 경험 중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소득기회가 감소했다'가 79.0%, '기업의 채용 감축'이 64.8%, '코로나로 인한 구직관련 비용부담이 증가'했다는 비율이 63.4%로 나타남

## 2) 일자리 청년정책 의제

### (1) 정책의제 개요

- 다음 <표 4.1>은 서울시 일자리 영역의 진단을 토대로 일자리정책의 정책의제와 중점과제를 요약정리한 것임. 청년 일자리 기회가 감소 되고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 및 일을 통해 청년들이 활력을 유지하고,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표 4.1〉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제 및 중점과제 도출

일자리 영역의 진단	
청년 일자리의 소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일하는 청년의 불안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의 의미를 ‘생산적 활동’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확장</li> <li>• 청년이 하고 싶은 일,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의 창직(創職)을 지원</li> <li>• 소득단절 청년의 생활유지를 위한 긴급일자리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을 하고 있지만, 다음 일자리를 찾는 청년, 휴직 중인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li> <li>• 일하는 청년의 권익보호 강화</li> </ul>

서울시 청년정책 일자리 영역의 정책의제와 중점과제

정책목표	청년의 일자리 이행을 보장하는 서울
핵심의제	1. 청년 일자리 보장제 2. 사회초년생 권리보장
중점과제	1-1. 청년 일자리 1,000개의 꿈 1-2. 공공일경험 플랫폼 1-3. 청년고용계좌제 실적수당 1-4. 서울형 깡이어 추진 1-5. 청년트램폴린 성공불용자 1-6. 서울청년 청년직장 내 괴롭힘 패스트트랙 1-7. 서울형 중소기업 청년복지포인트

## (2) 주요 내용과 중점과제

### ■ 정책의제 1 : 청년일자리 보장제

- 배경 : COVID-19 사태에 야기된 고용시장 축소에 따른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앞으로 장기 미취업청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전통적 방식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단기일자리 제공에 국한된 현재의 청년 일자리정책과 차별화되며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목표 :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이행을 위한 통합적·지속적 청년일자리 지원체계의 구축

- 대상 : 만 19~34세 구직·미취업 청년
- 내용 : <그림 4.1>은 청년일자리보장제의 지원체계를 요약한 것이며, ‘청년일자리보장제’ 참여 청년들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노동시장의 이행을 지원하는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 후 5년간 청년들을 관리함

<그림 4.1> 청년 일자리보장제 지원체계

이행 상태	미취업 신규구직	재취업	실직 장기미취업	육아, 가사 돌봄	취업
제안 과제	교육·훈련	일자리·일경험 제공		활동수당	
	갭이어(인생설계학교) 공공일경험 플랫폼	통합지원형 뉴딜일자리 청년 트램펄린 (성공불요자)		고용계좌제 실직수당 사회적가치노동에 대한 참여수당	
운영	5년간 등록 지원 공공일자리 데이터 패널로 운영				

- <표 4.2>는 청년일자리보장제의 중점과제를 설명한 자료이며, 장기미취업(2년 이상) 구직 청년들은 ‘서울시 통합지원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졸업예정자 및 이직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는 갭이어,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 청년에게는 ‘고용계좌제’ 등 노동시장 이행 상태에 맞는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고용관리·모니터링을 통해 5년간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있음

<표 4.2> 청년일자리보장제 중점과제

과제명	내용	대상
서울형 갭이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 삶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갭이어(gap-year)의 경험과 시간을 보장</li> </ul>	서울시를 생활권(거주지, 대학 및 직장)으로 하는 만 19~34세 청년
공공일경험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 등의 일거리 정보를 공공일경험 플랫폼에 등록하여, 청년들이 일의 경험을 쌓아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및 경력확인서 발급함</li> </ul>	서울시를 생활권(거주지, 대학 및 직장)으로 하는 만 19~34세 청년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통합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공공서비스, 사회적경제 4개 분야,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참여자에게 현장실무교</li> </ul>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및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자 중 미래업종으로

뉴딜일자리)	육과 실습 제공	재진입을 희망하는 청년 1,000명
청년트랩떨린 성공불용자	•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성공불용자 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창업과 새로운 도전을 위한 목돈을 지원	서울 거주(예비) 창업자
청년고용계좌제 실적수당	•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직으로 인한 소득단절의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	서울 청년 중 일자리보장제 신청 참여하는 청년 및 뉴딜사업 등 공공일자리 참여 청년, 가입을 희망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 청년일자리보장제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는 아래와 같음

국내 일자리보장제 관련 제안

-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안
  - 2020년 4월 “한국판 뉴딜 및 포스트코로나 대책에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포함하자”고 제안
  - 35세 이하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과감한 일자리, 교육훈련, 실습 보장 패키지 실시
- 공공 일경험 플랫폼(김수영, 2020)
  - 공공일자리정책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경험과 단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청년에게 필요한 수익이 되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주로 민간시장의 재능마켓 플랫폼으로 영리 추구를 위한 수수료, 지불의 부담과 교육·훈련 제공에 한계가 있음
  - 한편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뉴딜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정책은 교육·훈련과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낮고 청년의 일자리 수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민간 재능마켓 플랫폼과 공공일자리정책을 결합하여 ‘공공 일경험 플랫폼’을 마련하여 청년에게 일 경험과 교육·훈련을 제공

<표 4.3> 공공일경험 플랫폼의 역할

구분	내용
일 경험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가 단기 인력이 필요한 일거리 정보를 공공플랫폼에 등록하면, 일경험 플랫폼 참가자들은 자신의 재능과 시간에 맞는 일거리를 신청해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li> <li>- 예) PPT작성, 포스터 디자인, 문서작성, 통번역, 행사 진행 등</li> </ul>

	- 이후 플랫폼 참여자 중 경력자가 플랫폼을 통해 교육훈련과 관련된 동영상 강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교육·훈련의 제공	- 일 경험 플랫폼 참여자 중 경력자가 플랫폼을 통해 교육훈련과 관련된 동영상 강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

#### 아르헨티나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제공 사례

- 아르헨티나는 2001년 외환위기와 함께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2년 실업률이 21.5% 까지 치솟음. 실업구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GDP의 1%, 정부 예산의 4.9%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입하여 실업자에 대한 직접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함(Kostzer, 2008)
-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방정부가 담당하였으며, 각종 지역커뮤니티 프로젝트와 아동 돌봄 및 교육에 경제활동 인구의 15%에 달하는 20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도 18세 이하의 자녀, 임신한 여성, 장애인이 있는 실업 가구당 1인으로 한정하였고 그 외 별도의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음
- 정부가 직접고용에 나섰다는 점에서 일자리보장제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실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났다는 점도 의외로 평가되었음. 특히 프로그램의 지원자 중 3/4이 여성 실업자라는 점이 있음(박가분, 2020)

## ■ 정책의제 2 : 사회초년생 권리보장

- 배경 : 청년기는 생애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력을 형성하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첫 일자리 취업 후 이직하는 비율이 높음. 지속적 경기 침체 및 코로나 19로 인한 신규일자리 감소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이직을 포기하게 하고 있음. 고용절벽으로 인해 직무, 전공, 근로조건이 적합하지 않아도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면서 이직을 포기하는 청년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목표 : 청년 사회초년생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이직 지원
- 대상 : 만 19~34세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청년
- 내용: <표 4.4>는 사회초년생 권리보장의 중점과제를 요약한 것임

- 서울시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패스트트랙 : 직장내 괴롭힘, 성폭력, 산재 등 사회초년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에 대한 집중 관리, 신속한 권리구제, 피해자 지원을 도모
- 사회초년생 노동권의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실태조사 및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표 4.4〉 사회초년생 권리보장 중점과제

사업명	내용	대상
서울시 청년 직장내 괴롭힘 패스트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설치</li> </ul>	서울 거주 만 19~34세 노동자 중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자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복지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지원</li> </ul>	서울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
서울청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각지대 여성 노동자 성희롱 실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성평등 증진 및 사회초년생 노동권인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li> </ul>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민간위탁 포함), 비영리단체, 민간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청년 및 관련 사업장

### 3) 서울시 청년정책 일자리 중점과제 수행 로드맵

- 서울시 청년정책 중 일자리 추진과제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영역의 핵심 추진과제는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과 ‘공공일경험 플랫폼’, ‘청년고용계좌제 실직수당’, ‘서울청년 노동인권 실태’등이 있음
  -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은 COVID-19 이후 일자리 축소를 고려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청년일자리 기회를 확대 개정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이행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인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공공일경험 플랫폼’은 COVID-19사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세대의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진로탐색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며, 단기적으로 공공일경험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서울청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서는 단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노사대타협과 청년 노동인권 점검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함

<표 4.5> 일자리 영역의 중점과제 수행 로드맵

중점과제	인력시설	단계별 추진과제		
		단기(21-22)	중기(23-24)	장기(25년 이후)
청년 일자리보장제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청년센터, 직업상담사 일자리코디네이터 양성 배치	일자리보장제 시행 (기업인턴십, 공공일자리 예고제)	평가 및 개선	확대 강화
공공일경험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청년센터 (경력 인증관리)	공공일경험 플랫폼 개발	시범사업 및 개선	시행
청년고용계좌제실 직수당	청년센터 (신청관리)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청년 우선 시행	계속	평가 및 확대
서울형 깎이어 추진	청년센터 (신청관리)	대상 확대	유지	평가 및 개선
청년 트램플린 성공불용자	-	청년창업자 대상 시행	계속	평가 및 개선
사회초년생 권리보장				
서울청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회적 대타협 준비	사회적 대타협 추진, 노동인권 점검 시행	정례적 조사 및 노동인권 점검
청년직장내 괴롭힘 패스트트랙	지방노동청, 근로감독인력 추가배치	조례 마련 신고센터 설치	신고센터 설치 확대	계속
서울형 중소기업 청년복지 포인트	서울시 온라인복지 플랫폼	사업계획 마련	청년 복지플랫폼 구축	시행

---

## 제2절 살자리 관련 사례

### 1.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사업

#### 1) 정책 추진배경

##### ■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공급 확대를 강화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업무와 문화시설 기능이 결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69만호 공급하는 등 총 24만 3천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임
  -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청년주택을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하여 주택 품질이 제고된 물량을 배포할 계획임
  - 중앙정부는 신혼부부·청년 가구의 주거 불안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매입임대주택의 물량 확대와 청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신규 공급임
  -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과 시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서울시처럼 택지 확보가 어려워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중요한 공급 수단이 될 수 있음

##### ■ 저소득층을 티켓 공공주택사업은 많으나 무주택 청년(서민)층의 '자가소유' 목표를 지원하는 정책은 부재

-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의 비중은 높으나,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자가소유 목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부재함
  - 정부의 주택정책은 대개 저소득층 가구나 노인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1인가구이거나 미혼가구가 많은 청년세대는 주택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

- 최근 높은 주택가격으로 전월세에서 자가주택으로 올라타지 못하는 청년층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되고 저출산 및 지속가능 사회 대비 측면에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2) 세부 추진내용

### ■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사업 「시프트(SHift)」

- 2007년 8월부터 강성구 발산2단지를 시작으로 16년 동안 서울 시내에 총 3만 3973호가 장기전세 「시프트」를 통해 공급중이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사람 10명 중 7명은 내 집 마련에 성공
  - 서울시는 기존 임대주택 유형 중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재건축매입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 왔으나 공급기준과 방법은 개별 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취지와 정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2008년 3월 18일 발표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서 민간이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면 서울시가 이를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음. 이에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법제화를 위하여 도입 초기부터 국토해양부에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수차례 걸쳐 요청하였으며, 시장이 직접 앞장서서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는 기회마다 장기전세주택 법제화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주택국장 및 실무자들을 독려하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등 관계부서에 40여차례 방문 협의를 진행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60/100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시도지사에게 표준건축비로 공급하고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역세권 민간부문 장기전세주택공급방안이 명시된 개정 주택법이 2009.2.3. 공포되었으며 주택법시행령은 2009.4.21. 개정 공포됨
  -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하기

---

위한 주택조례가 2009.5.28. 개정되어 완화된 용적률의 50/100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함

-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기존에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주택 공급대상을 무주택 중산층으로 확대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중에 있음
  - 장기전세주택은 SH공사가 2007년 4월에 1차로 장지지구와 발산지구에 481호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0년 3월 13차 공급까지 장지지구, 발산지구, 은평뉴타운, 반포지구, 강일지구, 상계장암지구, 신내지구, 상암지구 등에 9,884호를 공급하였다(천사라, 2011). 이후 매해 공급계획을 설정하여 2019년까지 30,345호를 공급하였고, 2020년에만 약 2,180호의 공급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보급중에 있음

##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사업의 지원내용

-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운영방식으로 운영되며 주변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임대기간 : 기본계약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4㎡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한 가격으로 운영되며 최장 20년에 이르는 전세기간을 보장하고 있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역세권에 건립하여 높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함
  - 서울 장기전세 시프트 사업의 경우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품질로 보급되고 있으며 동이나 호 구분이 안되게 혼합단지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주택촌에서 지적되어온 ‘슬럼화’ ‘사회적격리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2년 마다 돌아오는 전세기간 만료를 더 이상 염려할 필요없이 최고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운영되며,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에 입주 후에도 청약저축 통장을 쓸 수 있게 설계되어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자가소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시민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기준

- 장기전세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기존 임대주택과 정책취지와 대상이 다르며 무주택 중산층의 ‘자가소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함
- 공급면적 45평형(전용면적 85㎡ 초과): 소득 7분위이상을 대상으로 소유에서 거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 공급면적 33평형과 26평형(전용면적 60㎡이상~85㎡이하) : 소득 5분위와 6분위의 도시근로자 가구 및 중산화 가능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간 공급
- 공급면적 26평형 미만(전용면적 60㎡ 미만) : 소득 4분위와 5분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표 4.6>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60㎡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li> <li>•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3인 이하 가구 2,805,360원 이하, 4인가구)</li> <li>• 3,112,900원이하, 5인 이상 가구 3,296,830원이하) - 총 보유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li> <li>• 청약저축 가입자</li> <li>• 일반공급자: 만65세 이상인 자. - 우선공급자: 장애인, 3자녀 세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li> </ul>
60㎡ <sup>2</sup> -85㎡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li> <li>•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3인 이하 가구 6,011,500원이하, 4인가구 6,670,510원이하, 5인이상가구 7,064,640원이하)</li> <li>• 총 보유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li> <li>• 청약저축가입자</li> <li>• 일반공급(고령자) - 우선공급(노부모 부양자 / 3자녀가구)</li> </ul>
85㎡ <sup>2</sup>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거주 만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만20세 미만 포함, 2, 3순위 신청자 중에서 유주택자는 당첨 시 입주전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모두의 소유주택을 처분하여야 입주 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80% 이하인 자(3인 이하 가구 7,213,800원이하, 4인 가구 8,004,610원이하, 5인 이상 가구 8,477,570원이하) - 총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 특별공급: 3자녀 이상 가구, 4자녀이상</li> </ul>
재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li> <li>•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3인이하가구 4,007,670원이하, 4인가구 4,447,000원이하, 5인이상가구 4,709,760원이하) - 총 보유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li> <li>•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li> <li>• 우선공급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자, 3자녀이상가구(전용85㎡이하),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대상: 신혼부부</li> </ul>

자료: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장기전세주택(SHift) 운영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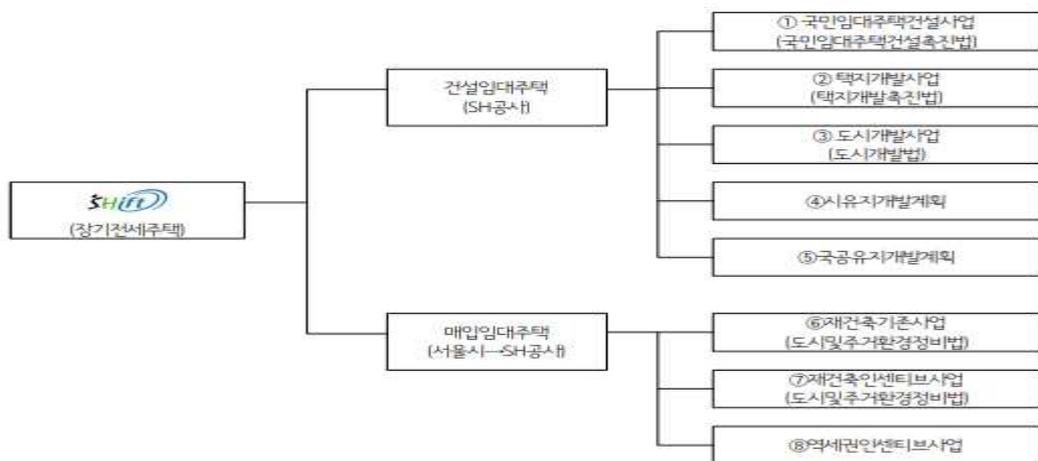
##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사업의 법제화과정

-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제도 도입 초기에 국토해양부에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수차례 걸쳐 요청하였고, 그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60/100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시도지사에게 표준건축비로 공급하고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역세권 민간부문 장기전세주택공급방안이 명시된 개정 주택법이 2009년 2월 3일 공포되었고 주택법시행령은 2009년 4월 21일 개정 공포되었음
-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하기 위한 주택조례가 2009년 5월 28일 개정되어 완화된 용적률의 50/100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모법인 임대주택법에 20년 범위 안에서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유형인 장기전세주택을 신설하는 개정 임대주택법이 2009년 3월 25일 개정 공포됐으며, 그 후속조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같은 해 6월 26일 공포 시행되었음
- 향후 장기전세주택 매입 재원확보를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개정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였음

##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사업의 추진·운영체계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사업의 공급운영주체는 SH공사이며,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SH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유형과 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유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음
-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물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 관리체제의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관리인력 및 경비를 절감을 위해 직영관리와 위탁관리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
- 특히,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소규모 물량이 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추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산재되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 통합관리센터를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 순회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입주인 관리를 운영하고 있음
- 연 2회의 입주자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장기전세주택 순회관리 전담팀을 통해 첫 입주 후 6개월간은 월1회 방문조사를 통해 입주실태를 조사하고 6개월 이후에는 입주자 실태조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입주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임

〈그림 4.2〉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장기전세주택(SHift) 운영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 3) 성공요인과 한계점

#### ■ 서민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10년 장기전세 운영으로 ‘주거사다리’로써 역할함

- 장기전세주택(SHift)을 대상으로 10년형의 거주기간으로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는 물론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의 상향이동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데 성과를 보임
  - 저소득계층 이외에 무주택 중산층을 정책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어 임차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거비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발생시킴

#### ■ 사회적 혼합(social mix)형태로 운영하여 ‘슬럼화’와 ‘사회적격리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

- 서울 장기전세 시프트 사업의 경우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품질로 보급되고 있으며 동이나 호 구분이 안되게 혼합단지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주택촌에서 지적되어온 ‘슬럼화’ ‘사회적격리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창출함
  - 시프트 사업의 매입형의 경우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합원에게 분양이 끝나고 남은 주택을 동별로 혼합하여 매입 후 운영함
  - 주거계층의 분화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지역별로 주민의 사회계층을 확연히 구분시키며, 도시 내 지역분화 문제를 심화시켜 사회적 분리가 일어나게 됨. 즉, 인종적인, 빈부의 격차로 인해 건강한 주거환경, 교육의 기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혼합단지형태로 운영된 시프트 사업의 경우 혼합단지로 운영하지 않은 단지보다 저소득 계층의 거주민들의 반사회적 행위가 줄어들고, 분양아파트 거주자들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저감 되는 등 혼합단지 구성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도출됨
  - 시프트 사업은 혼합적 배치형태로 소득계층 간의 혼합에 의한 거주자 간의 접촉 기회를 증대시켜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주의향이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인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지만 공용시설의 공동사용문제, 출입구 분리 등 입주 주민 간의 다양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함

## 제3절 설자리 관련 사례

###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 1) 정책 추진배경

##### ■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실업률 증가

- 경기도의 청년실업 인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청년니트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필요하였음(김도균 외, 2017)
  - 청년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이란 취업을 실패하거나 정서적인 문제로 인하여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거나 교육받지 않아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구직 단념 상태인 것을 의미함
  - 2017년 사업을 기획할 당시 청년실업자와 청년니트족의 수를 40만~45만 정도 추정함
- 2016년 경기도 청년의 실업률은 9.8%로 전체 실업률인 3.9% 대비 5.9%p 높게 나타났음(김도균 외, 2017)

##### ■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구인 및 구직난: 노동시장 수요공급 불일치

- 추진 당시 경기도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83만여개의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9%이며 종사자 비율도 88.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제조업 미충원율은 27.1%로 전체 산업 대비 11.4%p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

〈표 4.7〉 사업체 당 종사자수('15년) 및 미충원율 ('16년) 현황

	중소 사업체(개)	중소 종사자	중소 사업체당 종사자(명)	미충원율
전체	827,352	4,096,352	5.0	15.7%
제조업	123,657	1,052,916	8.5	27.1%

자료: 임희정 외(2017)에서 재인용 10p

## ■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단계적 지원책 마련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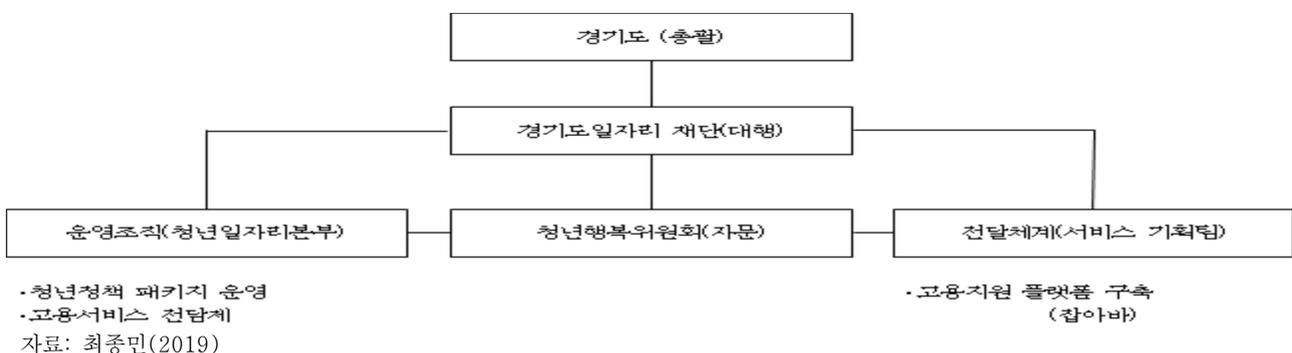
-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구직-구인 간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대두됨.
- 중소기업의 인력매치 현상은 숙련, 보상, 정보에 따른 미스매치가 주요 요인임 (박성재 외, 2014; 최강식 외, 2014)
- 청년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임금지원-복리후생이라는 세 가지 연계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함

## 2) 세부 추진 내용

### ■ 추진체계

- 경기도가 추진하고,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 관련 청년 정책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함
- 경기도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실제 사업의 수행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진행함. 사업 초기 복지사업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음<sup>16)</sup>
  - 청년일자리본부가 운영조직으로 청년정책패키지 운영, 고용서비스 전담제를 담당하며, 청년행복위원회에서는 청년정책 관련 자문을 담당, 서비스 기획팀에서는 고용지원 플랫폼인 잡아바를 구축 및 운영함

〈그림 4.3〉 청년 복지사업 추진체계



16) 본 추진체계는 2017년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됨. 현재와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기준

- 사업 초기 청년 복지사업 중 복지포인트 사업은 전액 도비로 운영됨.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3가지 사업 중 복지포인트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청년연금(171억원), 청년 마이스터 통장(345억원), 청년 복지포인트(570억원)<sup>17)</sup>
- 사업을 설계하기에 앞서 경기도 내 종사자의 모수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함
  - 모수 추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가능함

〈그림 4.4〉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원대상 후보자 모수

	경기도 거주 및 도내 기업 종사자 (3,889,947명)				
	전산업	중소기업 (300인 미만)	100인 미만	제조업	중소제조업 (300인미만)
전연령	① 3,298,547명			⑦ 949,130명	
청년(18~34세)	② 970,780명			⑥ 300,082명	
250만원 이하	③ 733,754명 <b>일하는청년시리즈 전체 모수</b>	④ 669,282명	⑥ 594,737명 <b>복지포인트</b>		
퇴직연금 가입 & 250만원 이하		⑤ 112,439명 <b>연금</b>			
200만원 이하				⑨ 153,615명	⑩ 135,335명 <b>마이스터 통장</b>

※ 출처: <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이용하여 재추정 >  
 ※ 참조 ① = [도내 거주 & 도내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전산업 및 전연령) 재직자(3,889,947명)] 중  
 (36시간이상 근로하는 전산업 및 전연령 취업자)  
 ② = ① - (17세 이하 및 35세 이상 근로자)  
 ③ = ② 중 (3개월 평균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④ = ③ × 91.2% (도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율)  
 ⑤ = ④ × 16.8% (2016년 하반기 퇴직연금 가입 사업체 비율)  
 ⑥ = ③ × 81.1%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율)  
 ⑦ = ① 중 (도내 제조업 재직자수)  
 ⑧ = ⑦ - (17세 이하 및 35세 이상 근로자)  
 ⑨ = ⑧ 중 (3개월 평균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  
 ⑩ = ⑨ × 88.1% (도내 300인 미만 중소제조기업 비율)

자료: 임희정 외(2017)

17) 2023년 현재 청년복지포인트와 청년연금(모집종료)만 운영되고 있으며, 마이스터 통장 대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

○ 지원 대상 및 조건은 연령, 거주,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선정함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연령은 만 18세~만 34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노동자 지원사업과 복지포인트는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시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함
- 각 사업마다 근무조건이 상이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나 청년 복지포인트는 가능함

〈표 4.8〉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연금
자격 요건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경기도 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자료: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선정요건 중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4.9〉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동점자 처리 기준

구분	선발기준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자료: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참고

##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각 분기별로 지급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이 중심임

- 연 2회(5월, 9월) 모집하며 선발규모는 7,400명임

○ 청년 복지 포인트는 1년 동안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함. 해당 복지 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청년 연금의 사업기간은 10년으로 개인납입에 대한 1:1 매칭금액을 지원함

- 개인납부액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이 가능하며 납입에 따라 1:1 매칭금액을 지원함

- 청년 연금 사업은 2018년 2회 선발 이후 사업이 종료된 상태임

〈표 4.10〉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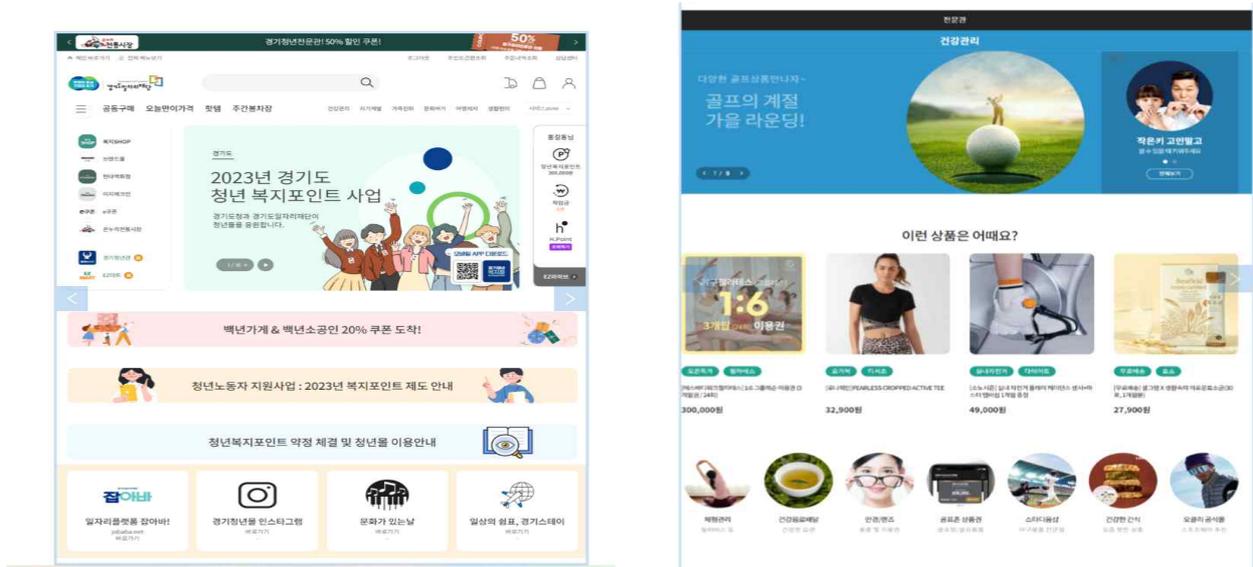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연금
사업 기간	2년	1년	10년
지원 내용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지원 금액 : 개인 납입에 대한 1:1 매칭금액 지원 - 개인납부액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에서 선택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		가능하며, 개인 납입에 따라 1:1 매칭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
선발 규모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연간 총 33,000명 모집 (4월, 7월, 11월 모집)	2018년 2회 선발 이후 사업종료 (추후 선발예정 없음)

자료: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참고

- 경기청년몰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관리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임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행/레저 등에 사용 가능함
  - 해당 복지포인트는 상품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을 구매하거나 복권 등의 사행성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있음

〈그림 4.5〉 경기청년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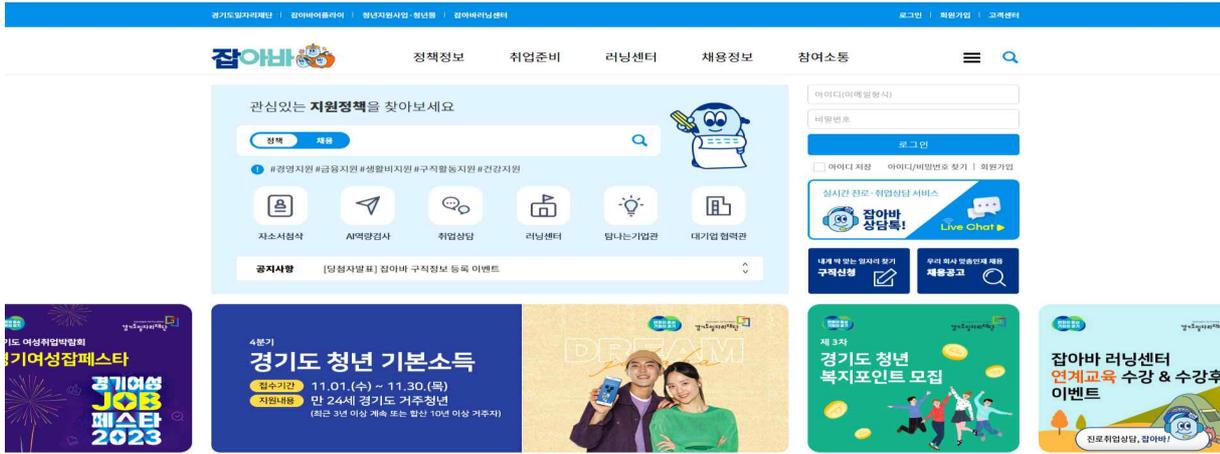


자료: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참고

- 경기도의 일자리 사업, 민간기업 채용공고, 경기청년몰 운영, 정책정보 등 일자리 관

련 정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잡아바" 플랫폼에서 진행됨

<그림 4.6>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플랫폼



자료: 경기도 잡아바 홈페이지 참고

## ■ 제출서류

- 신청은 온라인(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main>)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사업별 필요한 제출서류에 차이가 존재

<표 4.11>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 서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연금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서</li> <li>2. 개인정보제공동의서</li> <li>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li> <li>4. 주민등록표초본</li> <li>5. 사업자등록증사본</li> <li>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li> <li>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부 확인서</li> <li>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서</li> <li>2. 개인정보제공동의서</li> <li>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li> <li>4. 주민등록표초본</li> <li>5.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li> <li>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li> <li>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등록표초본 - (최근 5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신고/발생일, 인적사항 변경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남성의 경우 병역사항도 포함), 전체 페이지 첨부</li> <li>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li> <li>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li> </ol>

자료: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참고

### 3) 성공요인 및 한계점

#### ■ 일자리 중심의 정책에서 포괄적 복지를 포함한 청년 정책으로의 전환

-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초점을 맞추어 일자리 또는 주거 분야에 정책 쏠림 현상이 있었음
-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실업과 고용 관련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 이후의 복지에 관심을 두었음
  -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복지혜택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일자리 미스매치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
  - 정부가 중소기업의 임금 보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간접적인 수단으로써의 청년 복지임
- 포괄적 복지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낮은 임금을 복지포인트와 지역화폐 지급 등 간접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청년에게는 복리증진 기회를, 중소기업은 고용증진 효과를 가져옴

#### ■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의 뒷받침

- 경기도는 일자리 사업을 경기도 일자리 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사업에 충분한 사업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성공요인 중 하나임
  - 본래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한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이며, 경제진흥원에서 이를 담당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실시한 사업초기 복지포인트 예산은 경상북도 예산에 2배 이상임(중소기업연구원, 2021)

#### ■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유도 한계

-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장기 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업 기간이 짧아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 청년 복지포인트는 1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혜택 종료 이후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관둘 수 있음
- 하지만 최소 2년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재직함으로써 일경험을 축적하여 전문성 확보할 수 있으며, 결국 도내 타 중소기업으로의 이전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내 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 제 5 장

---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

제1절 대구광역시 쟁점 및

청년정책 평가

제2절 정책과제



---

# 제5장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

## 제1절 대구광역시 쟁점 및 청년정책 평가

### 1. 대구광역시 청년 쟁점

#### 1) 청년의 일자리

##### ■ 좋은 조건의 기업이 부족

-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뜻함
- 특히 30-34세, 35-39세의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
  - 30대 청년층은 급여가 높은 일자리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
- 대구 연고지 청년층의 경우 급여 수준이 만족된다면 대구광역시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 좋은 일자리 핵심은 “높은 1인당 (실)급여액 수준”

- 대기업보다 급여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급여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검토 필요
  - 중소기업의 실질임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정책은 시장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간접적인 대안 검토 필요함
  - 예) 청년복지지원, 주거지원 강화 등 청년층의 실제 급여 수령액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입한다면 청년층의 이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2) 청년의 설자리

##### ■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이 아닌 “금전 부족”이 낮은 문화생활 향유의 원인

- 청년층이 문화여가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여가 인프라시설의 부족보다는 금전의 부족으로 나타남
  - 대출금 상환, 이자부담의 압박으로 인해 실질 소득 감소
- 청년층에게 “풍부한 문화기반시설 지역”보다 “일자리기회가 풍부한, 임금수준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게 우선순위로 작용

### ■ 청년의 필요가 반영된 정책 기획이 필요

- 대구광역시 청년층은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한 적이 대부분 없는 것(9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년층의 수요가 명확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대구 청년이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청년층 수요 기반 정책 발굴 필요

## 3) 청년의 살자리

### ■ 연령대를 고려한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 정비

- 청년층의 주된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식비를 제외하고 주거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정지출인 주택이자 상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올라갈수록 주거에 대한 압박이 커져 저출산/낮은 문화생활 및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짐
-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저렴한 임대료 정책, 다양한 주거비 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주거사다리“ 마련이 필요
  - 주거사다리란 생애주기에 걸쳐 거주 주택의 자산 가치를 점차 높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무주택 임차가구가 ‘자가 소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밟는 단계적 수단
- 연고지가 대구인 청년층은 대구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낮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타 지역으로의 이전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

## 2.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의 평가

### 1)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분야별 예산·사업 측면 평가

■ 2023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총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분야로 쏠림 현상이 발생

- 2023년 기준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에 반영된 총 예산은 198,655 백만원으로 청년정책 총 예산 대비로 볼 때, 교육 49.2%, 일자리 24.4%, 복지문화 12.8%, 주거 11.4%, 참여권리 2.2% 순으로 나타나, 현시점에서 대구광역시에서는 청년교육사업에 관련된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청년교육사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68,600백만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K 3.0) 22,054백만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2,100백만원으로 나타나 대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및 상생발전 활성화를 위한 부문에 많은 비중의 청년교육예산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표 5.1〉 대구광역시 분야별 청년사업 분야별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청년사업 예산	분야별 청년예산 비율
일자리	48,411	24.4
주거	22,703	11.4
교육	97,699	49.2
복지문화	25,472	12.8
참여권리	4,306	2.2
총계	198,655	100

자료: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전체사업 중 가장 다채롭게 사업이 기획·집행되고 있는 분야는 교육과 참여권리

- 2023년 기준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총 사업수는 75개로 청년정책 총 사업수 대비로 볼 때, 교육 26.7%, 참여권리 26.7%, 일자리 및 복지문화 22.7%, 주거 14.7% 순으로 나타나 현시점에서 대구광역시에서는 청년교육 및 참여권리에 관련된 사업이 다채롭게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청년정책 전체 사업 중 53.3%에 해당되는 사업이 교육 및 참여권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은 22.7%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동시에 청년주거에 관련된 사업은 1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53.3% 비중을 나타내는 청년교육 및 참여권리에 해당되는 사업수와 큰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표 5.2> 대구광역시 분야별 청년사업 사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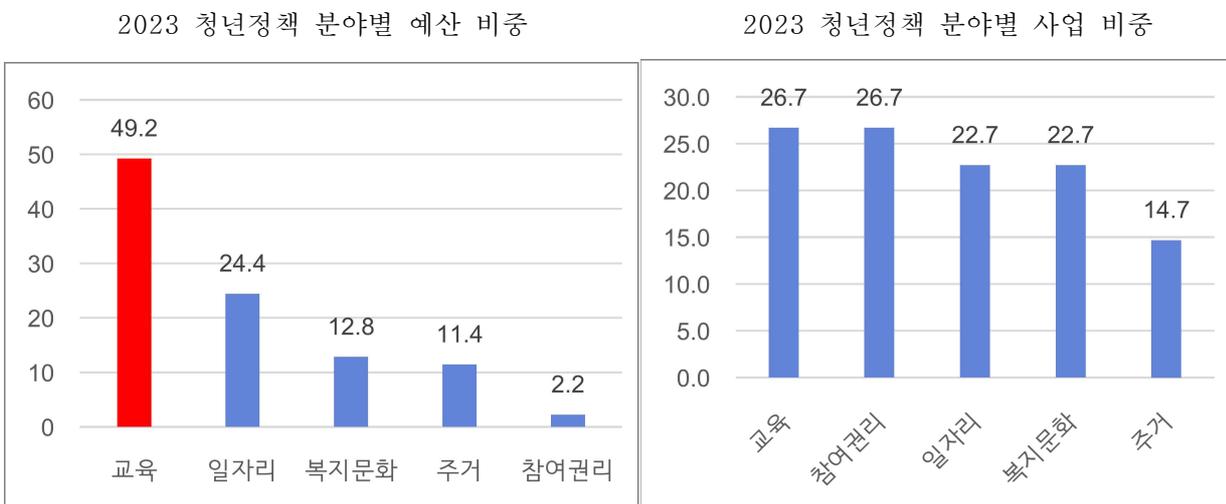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청년사업수	분야별 청년예산 비율
일자리	17	22.7
주거	11	14.7
교육	20	26.7
복지문화	17	22.7
참여권리	20	26.7
총계	75	100

자료: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그림 5.1>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분야별 예산·사업 비중

(단위: %)



## ■ 청년들의 수요와 대구광역시의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간의 미스매치 존재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좋은 조건의 기업부족”이라고 응답한 청년층의 비율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확보된 환경 조성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청년교육 및 참여권리에 대한 예산집행과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 및 중소기업 환경개선, 질 좋은 일자리 등 청년층의 수요가 반영된 정책기획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음

## ■ 최근 3년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총예산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적인 사업의 수는 변동이 크지 않음

- 2021년 기준 청년정책 총예산액은 1,339 억원, 2022년 기준 1,576 억원, 2023년 기준 1,986 억원으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21년에서 2023년간 총 647 억원의 예산이 청년정책 분야에서 증액되었지만 같은 기간동안 증가된 청년정책 사업수는 총 4개로 파악됨
  - 구체적으로 청년정책 분야별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수는 2021년 32개 → 2022년 19개 → 2023년 17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반면에 청년정책 분야별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주거에 관련된 사업은 2021년 4개 → 2022년 9개 → 2023년 11개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청년교육에 관련된 사업 역시 2021년 12개 → 2022년 15개 → 2023년 20개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5.3〉 최근 3년간 대구광역시 청년사업 추진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2021	2022	2023
청년정책 총 예산액	1,339	1,576	1,986
청년정책 총 사업수	71	72	75

자료: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표 5.4〉 대구광역시 분야별 청년사업 수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일자리	32	19	17
주거	4	9	11
교육	12	15	20
복지문화	12	14	17
참여권리	11	15	10
총계	71	72	75

자료: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2) 대구광역시 청년 주거정책 측면 평가

###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중 주거분야에서는 청년층 전월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어서 「제1·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면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주거·복지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주거분야에서의 사업은 크게 ①청년주택 공급 확대, ②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③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④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2021년 8월 국무회의 안건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제출되면서, 청년특별대책의 주거분야 추진과제 중 하나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의결 확정된 상태
  -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집 마련을 지원해 줄 계획

■ 대학생의 주거공간 지원, 청년층의 월세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정책은 이미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주거사다리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발굴 필요

- 대학내 캠퍼스 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리면서 동시에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의 지속적 시행
- 또한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시 월평균 20만원(최대12개월)의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원스톱 주거상담 서비스 플랫폼인 「청년안방」을 운영중에 있음
- 청년희망주택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전세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11개의 사업이 진행중임(2023년 기준)

<표 5.5>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주거부분 사업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1	청년 행복주택사업
2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
3	대구행복기숙사 운영
4	청년월세 지원
5	청년희망주택 임대료지원
6	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7	청년 전세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8	청년 전세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9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10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1	원스톱 주거상담 서비스 플랫폼 운영

자료: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3)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 측면 평가

■ 대구지역의 산업구조 특성과 연관된 지역 주도형 일자리 공모사업 확보를 통

## 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 담당하고 있으나, 간접적인 지원인 청년 복지 관련 정책이 다소 미흡

-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는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규모 역시 열악, 유가증권 시장(KOSPI)이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된 업체 수가 적으며, 시가총액 역시 미약한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콘텐츠 청년일자리창출사업, 고용친화기업 청년채용지원사업, 디지털 활용 청년일자리 예스매칭 사업, 스포츠융복합 산업 중소기업 인력 채용 지원, 언택트 디지털산업 융합인재 일자리 지원, 자동차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사업 등 다수 사업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취업) 창출에 도움을 주는 사업 추진
  -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리쿠르트 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
  - 회사 소개, 인재상, 급여 수준, 복리 후생, 근무 환경, 직무 소개 등 지역 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친화 대표기업 지정’ 확대 추진
  -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임금, 후생복지, 근로시간 등) 우수 기업을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 질의 개선을 유도
  - 산업단지 내 주거와 환경개선 지원 →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 추진
  - 국내외 인턴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지역 및 국외 기업에서의 일 경험추진

## ■ 기회 추구적이며 생활 혁신적인 창업지원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유사·중복 사업의 개편 필요

- 기회추구형(혁신형) 창업 분야인 미래산업분야 스타트업 지원, 생계형 창업분야인 청년 소상공인 지원 등 창업 지원 사업을 균형 있게 배치
  -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청년세대의 창의성을 원동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다수
  - 데이터, 의료, 콘텐츠, 스마트 모빌리티, 업사이클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

- 청년창업 수요가 높은 외식업 분야의 실전 창업 경험을 지원하는 청년팝업 레스토랑 사업을 통해 창업실패 위험 감소
-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고 있지만, 수혜대상자가 유사한 사업들이 존재하기에 이들 사업의 재편을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 요구됨

〈표 5.6〉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일자리 부분 사업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1	지역인재합동채용설명회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	스타기업 히어로 육성사업
4	청년대상 도시농업 치유프로그램 운영
5	청년테마별 취업지원
6	글로벌 청년 취업사관학교
7	청년도전 지원사업
8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 채용공제
9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지원
10	청년 인재유입 정착지원
11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12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13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사업지원
14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5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
16	게임아카데미 운영
17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 캠프사업

자료: 202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 3.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과제

#### 1) 일자리 관련 과제

##### ■ 대구광역시 일자리 재단 설립을 통한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 관리

- 대구광역시 일자리 정책의 유사·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일자리 관련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일자리 재단 설립이 필요함

- 대구광역시 일자리 재단은 기존의 대구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구청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 등 일자리 관련 센터를 통합시키고 일자리 이외 각종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 또한 일자리 지원 정책 개발 및 연구, 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직업능력 개발, 정보제공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
- 단순히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미취업 청년자소서 검색, 기업매칭 지원, 모의면접 지원 등을 취업 지원 및 역량검사, 채용정보, 정책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플랫폼 운영
  - 대구광역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컨설팅 등 지원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 강화,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조직혁신 지원, 기업 네트워킹 활성화
  - 대구광역시 직업훈련 고도화 및 재직자 지원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복지사업 운영
- 대구광역시 일자리 재단은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일자리 관련 전문 기관으로써 대구광역시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대구광역시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일자리 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 보장제도 실시

- 대구광역시 청년일자리보장제는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미취업-재취업-실직·장기미취업-육아, 가사돌봄-취업 등 다양한 고용상황에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련한 일자리 보장을 제공

〈표 5.7〉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 보장제도

사업명	대상	내용
대구광역시 갭이어 프로그램	만 19~39세	청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도전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
공공일경험플랫폼	만 19~39세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공공일자리 정보를 등록하여 청년들이 관련 경험을 쌓도록 지원
대구광역시 뉴딜일자리	만 19~39세	미래 유망분야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관련된 현장실무 경험과 실습 기회 제공
대구광역시 성공불용자 사업	(예비) 창업자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의 사업화 지원

- (대구광역시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 인생설계학교) 대구광역시 생활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은 스스로 탐색 및 다양한 경험을 하며 주체적으로 삶의 경로를 모색, 주도적인 프로그램의 참여나 스스로의 인생설계와 개인적인 환경으로 시도해 볼 수 없었던 인생도전 프로젝트에 참여
- (공공일경험플랫폼) 대구광역시 일자리 재단 플랫폼에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일자리 정보를 등록하고 청년들이 관련 경험을 쌓음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는데 밑거름이 됨
- (대구광역시 뉴딜일자리)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유망 업종에 진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공공서비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참여 청년들에게 현장실무경험과 실습의 기회를 제공.
- (대구광역시 성공불용자 사업) 대구광역시 거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즉시 사업화 가능성있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정책자금을 융자해주고,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여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상환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청년 창업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

## ■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역할 강화

- 2016년 대구광역시 청년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청년센터를 청년들의 일자리/일경험 등에 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존재함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다채로운 의견이 교환되고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강화. 대구광역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의 장을 마련
  - (일경험/일자리 공유 시스템 구축) 미취업자의 취업 후기, 취업 노하우 등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스토리를 공유
  - (주제별/지역별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금융/주거/진로 등의 컨설팅, 경제상담, 전·월세 법률 상담 등 사회초보자인 청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오픈형 플랫폼 구축. 또한 대구광역시 내 지역별 청년 소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청년센터 내 지역별 모임 사업 추진 및 지원

##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복지 지원

- 대구광역시 청년들이 역외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는 빠른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임
  -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구광역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으로 인하여 금전적 부족이 발생하는 것임
  - 금전적인 부족은 결국 삶의 질 하락과 더 나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 등으로 이전하는 상황을 귀결됨
  - 따라서 대구광역시 청년들이 재직 기간동안 일정금액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주거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 중 일정 소득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사업을 실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대구광역시 지역화폐를 지급
  - (청년 복지포인트) 대구광역시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재직자 청년들에게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 해당 복지포인트는 대구광역시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복지포인트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표 5.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기간	2년	1년
지원내용	최대 480만원의 대구광역시 지역화폐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대구광역시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2) 주거 관련 과제

### ■ 도심융합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역세권 중심의 청년주택 공급 지원 방안 수립

- 도심융합특구, 대구광역시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 기존의 대구광역시 사업과 연계된 청년주거정책 세부전략 마련 필요
  -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이나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0월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도 도심특화형 스마트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사업조성을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청년인재의 유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주거인프라 시설을 역세권 혹은 도심융합특구 인접지역((구)경북도청 후적지 일대)을 중심으로 공급 지원책 방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함
  - 도심융합특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고밀도 청년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유입과 거주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청년주택 공급 지원 방안 수립
  - 동시에 동대구역과 접근성이 뛰어난 기존 대구 도심지 내에 청년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인구<sup>18)</sup>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주거만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닌 일자리·청년지역정착과 연계된 주거정책 마련

- 청년주거정책은 주로 공공임대나 공적지원임대주택을 직접공급하는 방식과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한 대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예: 행복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대부분의 수혜자는 취약청년계층 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지역정착과 연계된 주거공급정책은 부재한 실정임
  - 주거만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닌 일자리와 지역정착이 연계된 주거정책 마련 필요

18)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가 업무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뜻함

- 대구광역시에서는 일자리연계형 청년지원주택(가칭)을 통해 청년 창업인과, 도심 융합특구 및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일자리확보를 통해 지역을 떠나지 않는 청년층을 확보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연계형 특화 임대주택사업(가칭)」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 현재 주거 여건이 심각한 상태인 청년의 문제를 치유하면서 향후 청년층이 시장에서 주거권을 자생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접근에서의 투트랙 지원체계 운영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돕는 정책과 더 나은 주거 여건으로 상향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수립에 대해서 사업의 구체화가 필요함
  - 이미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마련이 불가능한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평생임차세대(generation rent)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에서 취약청년계층의 월세지원 사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지원은 청년층이 자력으로 주거권이 보장되는 수준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로 역부족. 따라서 청년층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주거권을 마련하고 유지할 수 것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중요함
  - 동시에 신혼부부나 유자녀 주거지원, 1인가구 주거정책과 연계된 통합적인 틀에서 청년주거정책이 논의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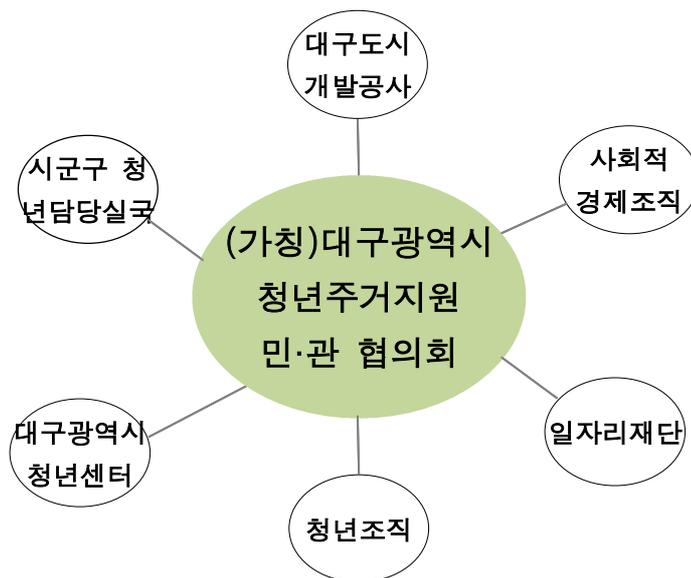
## ■ 대구광역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조례(가칭) 제정

-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 필요계층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6개의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청년주거 관련 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청년 주거 기준 설정, 청년주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대구광역시는 현재 청년 기본조례 기반으로 청년주거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대구광역시에서도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대구광역시 청년 주거지원 협력체계 구축

- 대구광역시 일자리재단을 거점으로 청년주거와 관련된 민관의 유관기관 즉 시·구·군 관련 부서, 주거복지센터, 대구도시공사, LH,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로 전북 전주시에서는 주거복지과, 주거복지센터 등의 맞춤 조직을 기반으로 민관 협력 주거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년주거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지역 내 관련 기관별 추진 사업과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청년의 주거정책수요에 따른 전문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대구광역시 청년주거지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청년주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청년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혹은 대구광역시 일자리재단을 구심점으로 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지자체, 대구도시개발공사, 사회적경제조직, 민간기업 등이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작동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필요

〈그림 5.2〉 대구광역시 청년주거지원 협의체 구축(안)



---

# 참 고 문 헌

---

- 관계부처합동(2020.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2021.4).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관계부처합동·일자리위원회(2018.3). 「청년고용 촉진 방안」.
- 관계부처합동·일자리위원회(2018.3).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 관계부처합동·일자리위원회(2018.3).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 관계부처합동·일자리위원회(2018.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 김도균, 최석현, & 유보배. (2017).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태운, & 박선주. (2019). 지역 청년고용사업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1(1), 1-31.
- 대구광역시. (2017). 「제1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17~20)」.
- 대구광역시. (2021). 「제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박성재, 신현구, 김향아, 이종임, & 주민경. (2014). “중소기업 미스매치 관련 고용영향평가 현장점검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서울연구원. (2021).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 엄창욱, 노광욱, & 박상우.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6(3), 259-283.
- 임희정, 김민영, 이혜민 & 강승규. (2017).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정책 도입방안 기초 연구”, 경기연구원 정책보고서

- 우석훈. (2008). 왜 ‘88 만원 세대’ 는 저항하지 않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31), 133-140.
- 최강식, 박철성, & 장기표. (2014). “청년 중소기업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연구” , 고용노동부 보고서
- 최종민. (2019).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보고서
- 연합뉴스(2018.01.25.일자): ‘에코붐 세대’ 마주한 문 대통령...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주문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5067751001>
- 머니투데이(2019.05.01.): ‘88만원 세대가 부러운 ‘요즘 애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564446&memberNo=36310338&vType=VERTICAL>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잡아바(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https://www.jobaba.net/>
- 통계청: <https://www.kostat.go.kr/>

---

# 부 록 1:

## 설문조사 특성별 세부결과

---

## 1. 통계표

〈표 1〉 구직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

		응답 수	경험 경력 및 스펙 부족	일자리 자체의 부족	좋은 조건 의 기업 부족	취업정보 부족	전공 부적합 / 전문성 부족	생계 활동으로 준비 미흡	기타
전체		200	22.5%	15.0%	45.0%	5.5%	5.5%	4.0%	2.5%
나이	19~24세	54	25.9%	18.5%	35.2%	7.4%	3.7%	5.6%	3.7%
	25~29세	51	25.5%	9.8%	45.1%	9.8%	3.9%	3.9%	2.0%
	30~34세	49	18.4%	18.4%	51.0%	0.0%	4.1%	4.1%	4.1%
	35~39세	46	19.6%	13.0%	50.0%	4.3%	10.9%	2.2%	0.0%
성별	남성	105	17.1%	15.2%	54.3%	4.8%	2.9%	2.9%	2.9%
	여성	95	28.4%	14.7%	34.7%	6.3%	8.4%	5.3%	2.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37.0%	11.1%	25.9%	11.1%	3.7%	3.7%	7.4%
	전문대 재학/졸업	44	15.9%	18.2%	45.5%	4.5%	2.3%	11.4%	2.3%
	대학교 재학/졸업	111	24.3%	13.5%	46.8%	5.4%	7.2%	1.8%	0.9%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5.6%	22.2%	61.1%	0.0%	5.6%	0.0%	5.6%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15.9%	13.1%	55.1%	7.5%	3.7%	1.9%	2.8%
	비정규직	35	22.9%	20.0%	37.1%	2.9%	14.3%	0.0%	2.9%
	미취업/ 취업준비	31	38.7%	25.8%	22.6%	0.0%	0.0%	9.7%	3.2%
	학생	17	35.3%	5.9%	29.4%	11.8%	5.9%	11.8%	0.0%
	창업/창업 준비 중	10	20.0%	0.0%	60.0%	0.0%	10.0%	10.0%	0.0%
거주지	중구	12	8.3%	8.3%	75.0%	0.0%	0.0%	0.0%	8.3%
	동구	41	24.4%	24.4%	31.7%	17.1%	0.0%	2.4%	0.0%
	서구	13	46.2%	7.7%	15.4%	0.0%	7.7%	7.7%	15.4%
	남구	10	40.0%	0.0%	60.0%	0.0%	0.0%	0.0%	0.0%
	북구	28	14.3%	21.4%	46.4%	0.0%	10.7%	7.1%	0.0%
	수성구	27	22.2%	14.8%	48.1%	7.4%	7.4%	0.0%	0.0%
	달서구	60	18.3%	11.7%	50.0%	1.7%	8.3%	6.7%	3.3%
	달성군	9	33.3%	11.1%	44.4%	11.1%	0.0%	0.0%	0.0%

〈표 2〉 대구지역에서의 근무 여부

		응답 수	예	아니오
전체		200	76.5%	23.5%
나이	19~24세	54	79.6%	20.4%
	25~29세	51	66.7%	33.3%
	30~34세	49	79.6%	20.4%
	35~39세	46	80.4%	19.6%
성별	남성	105	80.0%	20.0%
	여성	95	72.6%	27.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81.5%	18.5%
	전문대 재학/졸업	44	86.4%	13.6%
	대학교 재학/졸업	111	74.8%	25.2%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55.6%	44.4%
경제활동유형	정규직	107	77.6%	22.4%
	비정규직	35	71.4%	28.6%
	미취업/취업준비	31	80.6%	19.4%
	학생	17	64.7%	35.3%
	창업/창업준비 중	10	90.0%	10.0%
거주지	중구	12	75.0%	25.0%
	동구	41	70.7%	29.3%
	서구	13	76.9%	23.1%
	남구	10	80.0%	20.0%
	북구	28	82.1%	17.9%
	수성구	27	70.4%	29.6%
	달서구	60	76.7%	23.3%
	달성군	9	100.0%	0.0%

〈표 3〉 대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1)

		응답 수	취업스펙, 출신학교, 전공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이 힘들어서	급여가 수도권 일자리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아서	수도권은 집값 등 생활비 부담이 크니까	연고지가 원래 대구라서
전체		153	3.3%	2.0%	34.0%	53.6%
나이	19~24세	43	7.0%	2.3%	39.5%	44.2%
	25~29세	34	2.9%	0.0%	44.1%	44.1%
	30~34세	39	2.6%	2.6%	28.2%	61.5%
	35~39세	37	0.0%	2.7%	24.3%	64.9%
성별	남성	84	2.4%	2.4%	34.5%	53.6%
	여성	69	4.3%	1.4%	33.3%	53.6%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	9.1%	0.0%	27.3%	59.1%
	전문대 재학/졸업	38	0.0%	2.6%	42.1%	52.6%
	대학교 재학/졸업	83	3.6%	1.2%	34.9%	50.6%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0	0.0%	10.0%	10.0%	7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83	2.4%	2.4%	33.7%	53.0%
	비정규직	25	0.0%	4.0%	32.0%	60.0%
	미취업/ 취업준비	25	8.0%	0.0%	28.0%	52.0%
	학생	11	9.1%	0.0%	81.8%	9.1%
	창업/창업 준비 중	9	0.0%	0.0%	0.0%	100.0%
거주지	중구	9	0.0%	11.1%	22.2%	44.4%
	동구	29	3.4%	0.0%	24.1%	65.5%
	서구	10	0.0%	0.0%	40.0%	60.0%
	남구	8	0.0%	12.5%	75.0%	12.5%
	북구	23	4.3%	0.0%	39.1%	47.8%
	수성구	19	10.5%	0.0%	47.4%	42.1%
	달서구	46	2.2%	2.2%	21.7%	65.2%
	달성군	9	0.0%	0.0%	55.6%	33.3%

〈표 4〉 대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2)

		응답 수	대구에서 만든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대구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어서	급여는 적지만 대기업보다 일찍 퇴출되지 않으니까	기타
전체		153	4.6%	1.3%	0.7%	0.5%
나이	19~24세	43	2.3%	2.3%	2.3%	0.0%
	25~29세	34	5.9%	2.9%	0.0%	0.0%
	30~34세	39	2.6%	0.0%	0.0%	2.6%
	35~39세	37	8.1%	0.0%	0.0%	0.0%
성별	남성	84	3.6%	1.2%	1.2%	1.2%
	여성	69	5.8%	1.4%	0.0%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	0.0%	0.0%	0.0%	4.5%
	전문대 재학/졸업	38	2.6%	0.0%	0.0%	0.0%
	대학교 재학/졸업	83	6.0%	2.4%	1.2%	0.0%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0	10.0%	0.0%	0.0%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83	7.2%	0.0%	1.2%	0.0%
	비정규직	25	0.0%	4.0%	0.0%	0.0%
	미취업/ 취업준비	25	4.0%	4.0%	0.0%	4.0%
	학생	11	0.0%	0.0%	0.0%	0.0%
	창업/창업 준비 중	9	0.0%	0.0%	0.0%	0.0%
거주지	중구	9	22.2%	0.0%	0.0%	0.0%
	동구	29	6.9%	0.0%	0.0%	0.0%
	서구	10	0.0%	0.0%	0.0%	0.0%
	남구	8	0.0%	0.0%	0.0%	0.0%
	북구	23	4.3%	4.3%	0.0%	0.0%
	수성구	19	0.0%	0.0%	0.0%	0.0%
	달서구	46	4.3%	2.2%	0.0%	2.2%
	달성군	9	0.0%	0.0%	11.1%	0.0%

〈표 5〉 대구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1)

		응답 수	대구에서 일하거나 정착하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 같아서	대구는 서비스업보다 주로 제조업 일자리여서	대학에 오기 전에 연고지가 원래 타 지역이라서	대구보다 큰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전체		47	8.5%	2.2%	8.5%	25.5%
나이	19~24세	11	0.0%	0.0%	0.0%	27.3%
	25~29세	17	11.8%	0.0%	5.9%	29.4%
	30~34세	10	10.0%	10.0%	10.0%	30.0%
	35~39세	9	11.1%	0.0%	22.2%	11.1%
성별	남성	21	4.8%	4.8%	4.8%	19.0%
	여성	26	11.5%	0.0%	11.5%	30.8%
최종학력	고졸 이하	5	0.0%	0.0%	0.0%	20.0%
	전문대 재학/졸업	6	0.0%	0.0%	16.7%	16.7%
	대학교 재학/졸업	28	3.6%	3.6%	10.7%	28.6%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8	37.5%	0.0%	0.0%	25.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24	8.3%	4.2%	8.3%	25.0%
	비정규직	10	10.0%	0.0%	20.0%	20.0%
	미취업/취업준비	6	0.0%	0.0%	0.0%	33.3%
	학생	6	16.7%	0.0%	0.0%	33.3%
	창업/창업준비 중	1	0.0%	0.0%	0.0%	0.0%
거주지	중구	3	0.0%	0.0%	33.3%	33.3%
	동구	12	16.7%	0.0%	0.0%	33.3%
	서구	3	0.0%	0.0%	0.0%	0.0%
	남구	2	0.0%	0.0%	50.0%	0.0%
	북구	5	0.0%	0.0%	0.0%	20.0%
	수성구	8	12.5%	0.0%	25.0%	12.5%
	달서구	14	7.1%	7.1%	0.0%	35.7%

〈표 6〉 대구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2)

		응답 수	대구에 갈만한 기업체가 어디인지 몰라서	나중에도 돌아오더라도 일단은 수도권 취업이 나올 것 같아서	대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이 들어서	기타
전체		47	12.8%	19.1%	10.6%	12.8%
나이	19~24세	11	0.0%	36.4%	27.3%	9.1%
	25~29세	17	11.8%	5.9%	11.8%	23.5%
	30~34세	10	20.0%	20.0%	0.0%	0.0%
	35~39세	9	22.2%	22.2%	0.0%	11.1%
성별	남성	21	19.0%	14.3%	19.0%	14.3%
	여성	26	7.7%	23.1%	3.8%	11.5%
최종학력	고졸 이하	5	0.0%	60.0%	0.0%	20.0%
	전문대 재학/졸업	6	16.7%	16.7%	16.7%	16.7%
	대학교 재학/졸업	28	14.3%	10.7%	14.3%	14.3%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8	12.5%	25.0%	0.0%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24	12.5%	16.7%	8.3%	16.7%
	비정규직	10	20.0%	10.0%	10.0%	10.0%
	미취업/ 취업준비	6	16.7%	33.3%	16.7%	0.0%
	학생	6	0.0%	33.3%	16.7%	0.0%
	창업/창업 준비 중	1	0.0%	0.0%	0.0%	100.0%
거주지	중구	3	0.0%	0.0%	0.0%	33.3%
	동구	12	33.3%	8.3%	0.0%	8.3%
	서구	3	66.7%	33.3%	0.0%	0.0%
	남구	2	0.0%	0.0%	50.0%	0.0%
	북구	5	0.0%	40.0%	40.0%	0.0%
	수성구	8	0.0%	37.5%	12.5%	0.0%
	달서구	14	0.0%	14.3%	7.1%	28.6%

〈표 7〉 일자리 정보 탐색처

		응답 수	학교 취업 지원 센터	민간 구직사 이트	정부 운영 고용 센터, 워크넷	교수나 가족 친지 등	선후배 등 주변 지인	취업박 람회 및 리쿠르 팅	인터넷 유명 취업 카페 등	기타
전체		200	5.0%	58.0%	16.5%	2.0%	7.5%	2.5%	6.0%	2.5%
나이	19~24세	54	7.4%	51.9%	20.4%	1.9%	5.6%	7.4%	1.9%	3.7%
	25~29세	51	9.8%	60.8%	5.9%	5.9%	9.8%	0.0%	5.9%	2.0%
	30~34세	49	0.0%	61.2%	20.4%	0.0%	10.2%	0.0%	8.2%	0.0%
	35~39세	46	2.2%	58.7%	19.6%	0.0%	4.3%	2.2%	8.7%	4.3%
성별	남성	105	5.7%	56.2%	13.3%	1.0%	8.6%	4.8%	9.5%	1.0%
	여성	95	4.2%	60.0%	20.0%	3.2%	6.3%	0.0%	2.1%	4.2%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0.0%	55.6%	14.8%	0.0%	14.8%	0.0%	11.1%	3.7%
	전문대 재학/졸업	44	2.3%	63.6%	20.5%	2.3%	6.8%	0.0%	2.3%	2.3%
	대학교 재학/졸업	111	6.3%	57.7%	16.2%	0.9%	5.4%	4.5%	6.3%	2.7%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11.1%	50.0%	11.1%	11.1%	11.1%	0.0%	5.6%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5.6%	62.6%	9.3%	0.9%	9.3%	3.7%	5.6%	2.8%
	비정규직	35	0.0%	54.3%	28.6%	2.9%	5.7%	0.0%	2.9%	5.7%
	미취업/ 취업준비	31	3.2%	51.6%	29.0%	3.2%	3.2%	3.2%	6.5%	0.0%
	학생	17	17.6%	41.2%	23.5%	5.9%	5.9%	0.0%	5.9%	0.0%
	창업/창업 준비 중	10	0.0%	70.0%	0.0%	0.0%	10.0%	0.0%	20.0%	0.0%
거주지	중구	12	0.0%	66.7%	0.0%	8.3%	8.3%	0.0%	8.3%	8.3%
	동구	41	2.4%	63.4%	19.5%	0.0%	4.9%	2.4%	7.3%	0.0%
	서구	13	7.7%	76.9%	7.7%	0.0%	7.7%	0.0%	0.0%	0.0%
	남구	10	0.0%	40.0%	40.0%	10.0%	0.0%	0.0%	10.0%	0.0%
	북구	28	3.6%	57.1%	7.1%	0.0%	10.7%	7.1%	10.7%	3.6%
	수성구	27	7.4%	59.3%	11.1%	3.7%	3.7%	3.7%	3.7%	7.4%
	달서구	60	6.7%	53.3%	20.0%	1.7%	11.7%	1.7%	3.3%	1.7%
	달성군	9	11.1%	44.4%	33.3%	0.0%	0.0%	0.0%	11.1%	0.0%

〈표 8〉 일자리 고려요소(임금 수준)

		응답 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200	1.0%	4.0%	24.0%	33.5%	37.5%
나이	19~24세	54	3.7%	5.6%	25.9%	29.6%	35.2%
	25~29세	51	0.0%	5.9%	35.3%	21.6%	37.3%
	30~34세	49	0.0%	2.0%	14.3%	38.8%	44.9%
	35~39세	46	0.0%	2.2%	19.6%	45.7%	32.6%
성별	남성	105	1.0%	2.9%	27.6%	33.3%	35.2%
	여성	95	1.1%	5.3%	20.0%	33.7%	4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3.7%	3.7%	33.3%	29.6%	29.6%
	전문대 재학/졸업	44	0.0%	0.0%	29.5%	34.1%	36.4%
	대학교 재학/졸업	111	0.9%	5.4%	22.5%	32.4%	38.7%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5.6%	5.6%	44.4%	44.4%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1.9%	3.7%	18.7%	37.4%	38.3%
	비정규직	35	0.0%	5.7%	28.6%	31.4%	34.3%
	미취업/취업준비	31	0.0%	3.2%	48.4%	29.0%	19.4%
	학생	17	0.0%	5.9%	11.8%	35.3%	47.1%
	창업/창업준비 중	10	0.0%	0.0%	10.0%	10.0%	80.0%
거주지	중구	12	0.0%	8.3%	0.0%	33.3%	58.3%
	동구	41	0.0%	2.4%	24.4%	31.7%	41.5%
	서구	13	0.0%	0.0%	46.2%	15.4%	38.5%
	남구	10	0.0%	0.0%	40.0%	40.0%	20.0%
	북구	28	3.6%	3.6%	17.9%	35.7%	39.3%
	수성구	27	0.0%	11.1%	18.5%	29.6%	40.7%
	달서구	60	1.7%	3.3%	26.7%	36.7%	31.7%
	달성군	9	0.0%	0.0%	22.2%	44.4%	33.3%

〈표 9〉 일자리 고려요소(임금 이외 직원복지)

		응답 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200	2.0%	3.0%	30.0%	42.5%	22.5%
나이	19~24세	54	5.6%	1.9%	33.3%	33.3%	25.9%
	25~29세	51	2.0%	3.9%	35.3%	35.3%	23.5%
	30~34세	49	0.0%	2.0%	28.6%	46.9%	22.4%
	35~39세	46	0.0%	4.3%	21.7%	56.5%	17.4%
성별	남성	105	2.9%	3.8%	33.3%	41.0%	19.0%
	여성	95	1.1%	2.1%	26.3%	44.2%	26.3%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3.7%	11.1%	37.0%	29.6%	18.5%
	전문대 재학/졸업	44	2.3%	0.0%	27.3%	50.0%	20.5%
	대학교 재학/졸업	111	1.8%	1.8%	30.6%	40.5%	25.2%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5.6%	22.2%	55.6%	16.7%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3.7%	4.7%	28.0%	43.0%	20.6%
	비정규직	35	0.0%	2.9%	37.1%	37.1%	22.9%
	미취업/취업준비	31	0.0%	0.0%	29.0%	48.4%	22.6%
	학생	17	0.0%	0.0%	17.6%	58.8%	23.5%
	창업/창업준비 중	10	0.0%	0.0%	50.0%	10.0%	40.0%
거주지	중구	12	0.0%	8.3%	25.0%	50.0%	16.7%
	동구	41	0.0%	4.9%	39.0%	31.7%	24.4%
	서구	13	7.7%	0.0%	15.4%	38.5%	38.5%
	남구	10	0.0%	0.0%	40.0%	40.0%	20.0%
	북구	28	3.6%	3.6%	10.7%	53.6%	28.6%
	수성구	27	3.7%	0.0%	37.0%	40.7%	18.5%
	달서구	60	1.7%	3.3%	33.3%	41.7%	20.0%
	달성군	9	0.0%	0.0%	22.2%	66.7%	11.1%

〈표 10〉 일자리 고려요소(근로조건)

		응답 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200	2.5%	3.0%	29.5%	40.0%	25.0%
나이	19~24세	54	5.6%	1.9%	35.2%	31.5%	25.9%
	25~29세	51	0.0%	5.9%	27.5%	35.3%	31.4%
	30~34세	49	4.1%	2.0%	22.4%	49.0%	22.4%
	35~39세	46	0.0%	2.2%	32.6%	45.7%	19.6%
성별	남성	105	2.9%	2.9%	38.1%	34.3%	21.9%
	여성	95	2.1%	3.2%	20.0%	46.3%	28.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3.7%	3.7%	51.9%	25.9%	14.8%
	전문대 재학/졸업	44	2.3%	6.8%	18.2%	43.2%	29.5%
	대학교 재학/졸업	111	2.7%	1.8%	30.6%	39.6%	25.2%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0.0%	16.7%	55.6%	27.8%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3.7%	3.7%	24.3%	44.9%	23.4%
	비정규직	35	2.9%	2.9%	37.1%	25.7%	31.4%
	미취업/취업준비	31	0.0%	3.2%	38.7%	41.9%	16.1%
	학생	17	0.0%	0.0%	29.4%	41.2%	29.4%
	창업/창업준비 중	10	0.0%	0.0%	30.0%	30.0%	40.0%
거주지	중구	12	0.0%	0.0%	25.0%	58.3%	16.7%
	동구	41	0.0%	7.3%	26.8%	41.5%	24.4%
	서구	13	0.0%	7.7%	15.4%	30.8%	46.2%
	남구	10	0.0%	0.0%	40.0%	40.0%	20.0%
	북구	28	3.6%	0.0%	28.6%	28.6%	39.3%
	수성구	27	7.4%	3.7%	33.3%	29.6%	25.9%
	달서구	60	3.3%	1.7%	28.3%	48.3%	18.3%
	달성군	9	0.0%	0.0%	55.6%	33.3%	11.1%

〈표 11〉 일자리 고려요소(고용안정)

		응답 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200	3.5%	4.0%	36.0%	33.5%	23.0%
나이	19~24세	54	3.7%	3.7%	35.2%	35.2%	22.2%
	25~29세	51	3.9%	3.9%	41.2%	27.5%	23.5%
	30~34세	49	4.1%	4.1%	34.7%	32.7%	24.5%
	35~39세	46	2.2%	4.3%	32.6%	39.1%	21.7%
성별	남성	105	2.9%	2.9%	35.2%	34.3%	24.8%
	여성	95	4.2%	5.3%	36.8%	32.6%	21.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7.4%	7.4%	44.4%	22.2%	18.5%
	전문대 재학/졸업	44	0.0%	2.3%	47.7%	27.3%	22.7%
	대학교 재학/졸업	111	3.6%	2.7%	30.6%	37.8%	25.2%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5.6%	11.1%	27.8%	38.9%	16.7%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3.7%	4.7%	35.5%	34.6%	21.5%
	비정규직	35	5.7%	5.7%	42.9%	20.0%	25.7%
	미취업/취업준비	31	0.0%	3.2%	32.3%	48.4%	16.1%
	학생	17	0.0%	0.0%	29.4%	35.3%	35.3%
	창업/창업준비 중	10	10.0%	0.0%	40.0%	20.0%	30.0%
거주지	중구	12	0.0%	8.3%	33.3%	58.3%	0.0%
	동구	41	2.4%	2.4%	24.4%	36.6%	34.1%
	서구	13	0.0%	0.0%	46.2%	30.8%	23.1%
	남구	10	0.0%	0.0%	60.0%	20.0%	20.0%
	북구	28	0.0%	7.1%	39.3%	17.9%	35.7%
	수성구	27	7.4%	3.7%	33.3%	37.0%	18.5%
	달서구	60	6.7%	3.3%	35.0%	35.0%	20.0%
	달성군	9	0.0%	11.1%	55.6%	33.3%	0.0%

〈표 12〉 일자리 고려요소(자신의 적성 및 전공)

		응답 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200	6.0%	9.0%	40.5%	30.0%	14.5%
나이	19~24세	54	9.3%	5.6%	38.9%	27.8%	18.5%
	25~29세	51	3.9%	5.9%	45.1%	29.4%	15.7%
	30~34세	49	4.1%	6.1%	42.9%	38.8%	8.2%
	35~39세	46	6.5%	19.6%	34.8%	23.9%	15.2%
성별	남성	105	7.6%	9.5%	38.1%	32.4%	12.4%
	여성	95	4.2%	8.4%	43.2%	27.4%	16.8%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11.1%	14.8%	48.1%	18.5%	7.4%
	전문대 재학/졸업	44	4.5%	13.6%	52.3%	22.7%	6.8%
	대학교 재학/졸업	111	6.3%	7.2%	36.9%	33.3%	16.2%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0.0%	22.2%	44.4%	33.3%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3.7%	11.2%	37.4%	33.6%	14.0%
	비정규직	35	11.4%	8.6%	37.1%	20.0%	22.9%
	미취업/취업준비	31	6.5%	6.5%	48.4%	38.7%	0.0%
	학생	17	0.0%	0.0%	47.1%	23.5%	29.4%
	창업/창업준비 중	10	20.0%	10.0%	50.0%	10.0%	10.0%
거주지	중구	12	0.0%	0.0%	41.7%	50.0%	8.3%
	동구	41	4.9%	7.3%	31.7%	43.9%	12.2%
	서구	13	0.0%	0.0%	76.9%	15.4%	7.7%
	남구	10	0.0%	10.0%	40.0%	20.0%	30.0%
	북구	28	3.6%	21.4%	46.4%	17.9%	10.7%
	수성구	27	3.7%	7.4%	48.1%	18.5%	22.2%
	달서구	60	13.3%	8.3%	28.3%	33.3%	16.7%
	달성군	9	0.0%	11.1%	66.7%	22.2%	0.0%

〈표 13〉 일자리 고려요소(자신의 성장 가능성)

		응답 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200	3.5%	5.0%	29.0%	44.5%	18.0%
나이	19~24세	54	5.6%	5.6%	29.6%	37.0%	22.2%
	25~29세	51	2.0%	7.8%	29.4%	47.1%	13.7%
	30~34세	49	2.0%	2.0%	22.4%	53.1%	20.4%
	35~39세	46	4.3%	4.3%	34.8%	41.3%	15.2%
성별	남성	105	3.8%	4.8%	24.8%	45.7%	21.0%
	여성	95	3.2%	5.3%	33.7%	43.2%	14.7%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7.4%	7.4%	29.6%	37.0%	18.5%
	전문대 재학/졸업	44	2.3%	2.3%	25.0%	54.5%	15.9%
	대학교 재학/졸업	111	3.6%	5.4%	31.5%	43.2%	16.2%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5.6%	22.2%	38.9%	33.3%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2.8%	6.5%	26.2%	45.8%	18.7%
	비정규직	35	2.9%	2.9%	31.4%	45.7%	17.1%
	미취업/취업준비	31	3.2%	3.2%	35.5%	48.4%	9.7%
	학생	17	0.0%	0.0%	29.4%	41.2%	29.4%
	창업/창업준비 중	10	20.0%	10.0%	30.0%	20.0%	20.0%
거주지	중구	12	0.0%	8.3%	33.3%	58.3%	0.0%
	동구	41	4.9%	7.3%	31.7%	34.1%	22.0%
	서구	13	0.0%	7.7%	38.5%	46.2%	7.7%
	남구	10	0.0%	0.0%	30.0%	50.0%	20.0%
	북구	28	3.6%	3.6%	25.0%	60.7%	7.1%
	수성구	27	0.0%	7.4%	37.0%	40.7%	14.8%
	달서구	60	6.7%	3.3%	21.7%	38.3%	30.0%
	달성군	9	0.0%	0.0%	33.3%	66.7%	0.0%

〈표 14〉 일자리 고려요소(회사의 발전 가능성)

		응답 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200	4.5%	5.0%	31.5%	41.0%	18.0%
나이	19~24세	54	3.7%	1.9%	38.9%	37.0%	18.5%
	25~29세	51	3.9%	13.7%	25.5%	35.3%	21.6%
	30~34세	49	6.1%	0.0%	32.7%	44.9%	16.3%
	35~39세	46	4.3%	4.3%	28.3%	47.8%	15.2%
성별	남성	105	3.8%	3.8%	26.7%	42.9%	22.9%
	여성	95	5.3%	6.3%	36.8%	38.9%	12.6%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3.7%	11.1%	33.3%	29.6%	22.2%
	전문대 재학/졸업	44	0.0%	6.8%	38.6%	40.9%	13.6%
	대학교 재학/졸업	111	6.3%	2.7%	31.5%	41.4%	18.0%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5.6%	5.6%	11.1%	55.6%	22.2%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1.9%	5.6%	30.8%	44.9%	16.8%
	비정규직	35	11.4%	8.6%	20.0%	40.0%	20.0%
	미취업/취업준비	31	3.2%	3.2%	45.2%	38.7%	9.7%
	학생	17	0.0%	0.0%	35.3%	29.4%	35.3%
	창업/창업준비 중	10	20.0%	0.0%	30.0%	30.0%	20.0%
거주지	중구	12	0.0%	8.3%	33.3%	58.3%	0.0%
	동구	41	2.4%	2.4%	36.6%	34.1%	24.4%
	서구	13	7.7%	15.4%	38.5%	30.8%	7.7%
	남구	10	10.0%	10.0%	30.0%	20.0%	30.0%
	북구	28	3.6%	3.6%	14.3%	67.9%	10.7%
	수성구	27	3.7%	7.4%	37.0%	33.3%	18.5%
	달서구	60	6.7%	1.7%	30.0%	40.0%	21.7%
	달성군	9	0.0%	11.1%	44.4%	33.3%	11.1%

〈표 15〉 일자리 고려요소(교통편의, 생활여건)

		응답 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200	2.5%	4.5%	32.5%	36.0%	24.5%
나이	19~24세	54	7.4%	3.7%	33.3%	35.2%	20.4%
	25~29세	51	0.0%	3.9%	33.3%	39.2%	23.5%
	30~34세	49	0.0%	2.0%	30.6%	36.7%	30.6%
	35~39세	46	2.2%	8.7%	32.6%	32.6%	23.9%
성별	남성	105	2.9%	5.7%	41.0%	25.7%	24.8%
	여성	95	2.1%	3.2%	23.2%	47.4%	24.2%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7.4%	7.4%	33.3%	29.6%	22.2%
	전문대 재학/졸업	44	2.3%	2.3%	29.5%	36.4%	29.5%
	대학교 재학/졸업	111	1.8%	4.5%	33.3%	37.8%	22.5%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5.6%	33.3%	33.3%	27.8%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2.8%	3.7%	35.5%	32.7%	25.2%
	비정규직	35	5.7%	8.6%	25.7%	31.4%	28.6%
	미취업/취업준비	31	0.0%	3.2%	29.0%	48.4%	19.4%
	학생	17	0.0%	5.9%	29.4%	47.1%	17.6%
	창업/창업준비 중	10	0.0%	0.0%	40.0%	30.0%	30.0%
거주지	중구	12	0.0%	0.0%	25.0%	25.0%	50.0%
	동구	41	2.4%	4.9%	36.6%	41.5%	14.6%
	서구	13	0.0%	0.0%	23.1%	46.2%	30.8%
	남구	10	10.0%	0.0%	30.0%	40.0%	20.0%
	북구	28	0.0%	7.1%	50.0%	28.6%	14.3%
	수성구	27	3.7%	3.7%	22.2%	40.7%	29.6%
	달서구	60	3.3%	5.0%	30.0%	31.7%	30.0%
	달성군	9	0.0%	11.1%	33.3%	44.4%	11.1%

〈표 16〉 일자리 고려요소(기업의 명성)

		응답 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200	5.5%	11.5%	40.0%	32.0%	11.0%
나이	19~24세	54	5.6%	5.6%	35.2%	38.9%	14.8%
	25~29세	51	7.8%	13.7%	45.1%	29.4%	3.9%
	30~34세	49	6.1%	16.3%	32.7%	32.7%	12.2%
	35~39세	46	2.2%	10.9%	47.8%	26.1%	13.0%
성별	남성	105	5.7%	15.2%	41.0%	29.5%	8.6%
	여성	95	5.3%	7.4%	38.9%	34.7%	13.7%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11.1%	22.2%	29.6%	18.5%	18.5%
	전문대 재학/졸업	44	2.3%	11.4%	52.3%	27.3%	6.8%
	대학교 재학/졸업	111	6.3%	9.0%	38.7%	36.0%	9.9%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11.1%	33.3%	38.9%	16.7%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4.7%	14.0%	35.5%	33.6%	12.1%
	비정규직	35	5.7%	11.4%	45.7%	25.7%	11.4%
	미취업/취업준비	31	6.5%	3.2%	48.4%	38.7%	3.2%
	학생	17	0.0%	5.9%	47.1%	35.3%	11.8%
	창업/창업준비 중	10	20.0%	20.0%	30.0%	10.0%	20.0%
거주지	중구	12	0.0%	8.3%	41.7%	50.0%	0.0%
	동구	41	4.9%	9.8%	29.3%	34.1%	22.0%
	서구	13	0.0%	7.7%	46.2%	30.8%	15.4%
	남구	10	10.0%	20.0%	40.0%	20.0%	10.0%
	북구	28	0.0%	17.9%	35.7%	35.7%	10.7%
	수성구	27	7.4%	3.7%	51.9%	25.9%	11.1%
	달서구	60	10.0%	15.0%	36.7%	31.7%	6.7%
	달성군	9	0.0%	0.0%	77.8%	22.2%	0.0%

〈표 17〉 일자리 고려요소(소재지)

		응답 수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200	9.5%	20.0%	37.5%	20.0%	13.0%
나이	19~24세	54	11.1%	16.7%	48.1%	13.0%	11.1%
	25~29세	51	5.9%	23.5%	37.3%	17.6%	15.7%
	30~34세	49	12.2%	20.4%	18.4%	38.8%	10.2%
	35~39세	46	8.7%	19.6%	45.7%	10.9%	15.2%
성별	남성	105	9.5%	26.7%	33.3%	20.0%	10.5%
	여성	95	9.5%	12.6%	42.1%	20.0%	15.8%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18.5%	29.6%	33.3%	3.7%	14.8%
	전문대 재학/졸업	44	9.1%	13.6%	54.5%	11.4%	11.4%
	대학교 재학/졸업	111	9.0%	21.6%	32.4%	27.9%	9.0%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11.1%	33.3%	16.7%	38.9%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5.6%	21.5%	32.7%	27.1%	13.1%
	비정규직	35	17.1%	20.0%	40.0%	8.6%	14.3%
	미취업/취업준비	31	9.7%	16.1%	58.1%	12.9%	3.2%
	학생	17	5.9%	5.9%	47.1%	17.6%	23.5%
	창업/창업준비 중	10	30.0%	40.0%	0.0%	10.0%	20.0%
거주지	중구	12	0.0%	25.0%	25.0%	41.7%	8.3%
	동구	41	12.2%	17.1%	31.7%	24.4%	14.6%
	서구	13	7.7%	0.0%	61.5%	15.4%	15.4%
	남구	10	20.0%	0.0%	40.0%	30.0%	10.0%
	북구	28	0.0%	32.1%	42.9%	17.9%	7.1%
	수성구	27	7.4%	14.8%	40.7%	14.8%	22.2%
	달서구	60	13.3%	25.0%	33.3%	18.3%	10.0%
	달성군	9	11.1%	22.2%	44.4%	0.0%	22.2%

〈표 18〉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1)

		응답 수	직업 교육·훈련 지원	창업·창직 지원	취업/일자리 정보 지원	취업장려금 지원	청년 복지 지원
전체		200	10.0%	10.5%	18.0%	12.0%	9.5%
나이	19~24세	54	11.1%	7.4%	18.5%	11.1%	11.1%
	25~29세	51	13.7%	3.9%	13.7%	15.7%	5.9%
	30~34세	49	4.1%	14.3%	16.3%	18.4%	16.3%
	35~39세	46	10.9%	17.4%	23.9%	2.2%	4.3%
성별	남성	105	9.5%	14.3%	14.3%	8.6%	5.7%
	여성	95	10.5%	6.3%	22.1%	15.8%	13.7%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7.4%	7.4%	11.1%	22.2%	14.8%
	전문대 재학/졸업	44	9.1%	4.5%	25.0%	18.2%	13.6%
	대학교 재학/졸업	111	10.8%	13.5%	19.8%	7.2%	8.1%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11.1%	11.1%	0.0%	11.1%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7.5%	11.2%	15.0%	9.3%	12.1%
	비정규직	35	8.6%	14.3%	17.1%	0.0%	11.4%
	미취업/ 취업준비	31	12.9%	9.7%	29.0%	25.8%	3.2%
	학생	17	17.6%	0.0%	17.6%	23.5%	5.9%
	창업/창업 준비 중	10	20.0%	10.0%	20.0%	20.0%	0.0%
거주지	중구	12	8.3%	0.0%	8.3%	25.0%	33.3%
	동구	41	2.4%	22.0%	12.2%	4.9%	7.3%
	서구	13	15.4%	0.0%	23.1%	15.4%	0.0%
	남구	10	20.0%	10.0%	10.0%	10.0%	10.0%
	북구	28	7.1%	7.1%	28.6%	10.7%	7.1%
	수성구	27	18.5%	14.8%	25.9%	0.0%	11.1%
	달서구	60	11.7%	8.3%	15.0%	16.7%	8.3%
	달성군	9	0.0%	0.0%	22.2%	33.3%	11.1%

〈표 19〉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2)

		응답 수	고용창출 지원	고용 환경 개선지원	기업지원	기타
전체		200	14.0%	8.0%	11.5%	6.5%
나이	19~24세	54	16.7%	5.6%	9.3%	9.3%
	25~29세	51	9.8%	9.8%	19.6%	7.8%
	30~34세	49	12.2%	8.2%	8.2%	2.0%
	35~39세	46	17.4%	8.7%	8.7%	6.5%
성별	남성	105	13.3%	12.4%	11.4%	10.5%
	여성	95	14.7%	3.2%	11.6%	2.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14.8%	7.4%	11.1%	3.7%
	전문대 재학/졸업	44	4.5%	6.8%	13.6%	4.5%
	대학교 재학/졸업	111	16.2%	8.1%	9.0%	7.2%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22.2%	11.1%	22.2%	11.1%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13.1%	10.3%	13.1%	8.4%
	비정규직	35	14.3%	8.6%	14.3%	11.4%
	미취업/취업준비	31	9.7%	3.2%	6.5%	0.0%
	학생	17	23.5%	5.9%	5.9%	0.0%
	창업/창업준비 중	10	20.0%	0.0%	10.0%	0.0%
거주지	중구	12	8.3%	8.3%	0.0%	8.3%
	동구	41	17.1%	9.8%	17.1%	7.3%
	서구	13	15.4%	15.4%	15.4%	0.0%
	남구	10	20.0%	10.0%	0.0%	10.0%
	북구	28	7.1%	7.1%	14.3%	10.7%
	수성구	27	14.8%	3.7%	11.1%	0.0%
	달서구	60	11.7%	8.3%	11.7%	8.3%
	달성군	9	33.3%	0.0%	0.0%	0.0%

〈표 20〉 주된 소비·지출 항목

		응답 수	식비 및 주류	주거비	부채·이자 상환	교통 및 통신비	의류·신발 상품 소비	문화·여가생활비	기타상품 서비스
전체		200	46.0%	26.0%	19.0%	3.0%	0.5%	5.0%	0.5%
나이	19~24세	54	48.1%	22.2%	16.7%	5.6%	1.9%	5.6%	0.0%
	25~29세	51	51.0%	27.5%	11.8%	2.0%	0.0%	7.8%	0.0%
	30~34세	49	36.7%	32.7%	22.4%	2.0%	0.0%	4.1%	2.0%
	35~39세	46	47.8%	21.7%	26.1%	2.2%	0.0%	2.2%	0.0%
성별	남성	105	40.0%	24.8%	25.7%	3.8%	0.0%	4.8%	1.0%
	여성	95	52.6%	27.4%	11.6%	2.1%	1.1%	5.3%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37.0%	29.6%	25.9%	3.7%	0.0%	3.7%	0.0%
	전문대 재학/졸업	44	43.2%	25.0%	25.0%	2.3%	0.0%	4.5%	0.0%
	대학교 재학/졸업	111	48.6%	24.3%	17.1%	3.6%	0.9%	4.5%	0.9%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50.0%	33.3%	5.6%	0.0%	0.0%	11.1%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44.9%	27.1%	19.6%	1.9%	0.9%	5.6%	0.0%
	비정규직	35	45.7%	25.7%	20.0%	2.9%	0.0%	5.7%	0.0%
	미취업/취업준비	31	35.5%	29.0%	19.4%	9.7%	0.0%	3.2%	3.2%
	학생	17	70.6%	17.6%	5.9%	0.0%	0.0%	5.9%	0.0%
	창업/창업준비 중	10	50.0%	20.0%	30.0%	0.0%	0.0%	0.0%	0.0%
거주지	중구	12	41.7%	41.7%	8.3%	0.0%	0.0%	8.3%	0.0%
	동구	41	48.8%	24.4%	19.5%	0.0%	0.0%	7.3%	0.0%
	서구	13	23.1%	30.8%	23.1%	15.4%	0.0%	7.7%	0.0%
	남구	10	60.0%	30.0%	10.0%	0.0%	0.0%	0.0%	0.0%
	북구	28	39.3%	25.0%	17.9%	7.1%	3.6%	7.1%	0.0%
	수성구	27	40.7%	29.6%	22.2%	0.0%	0.0%	7.4%	0.0%
	달서구	60	51.7%	23.3%	18.3%	3.3%	0.0%	1.7%	1.7%
	달성군	9	55.6%	11.1%	33.3%	0.0%	0.0%	0.0%	0.0%

〈표 21〉 재정상태 개선 시 소비·지출을 늘릴 항목

		응답 수	식비 및 주류	주거비	부채·이자상환	교통 및 통신비	의류·신발·상품 소비	문화·여가생활비	기타 상품 서비스	보건 의료비
전체		200	9.0%	15.0%	20.5%	1.0%	8.5%	42.0%	1.5%	2.5%
나이	19~24세	54	13.0%	9.3%	13.0%	1.9%	13.0%	46.3%	1.9%	1.9%
	25~29세	51	5.9%	23.5%	13.7%	0.0%	9.8%	41.2%	2.0%	3.9%
	30~34세	49	8.2%	12.2%	22.4%	2.0%	10.2%	42.9%	0.0%	2.0%
	35~39세	46	8.7%	15.2%	34.8%	0.0%	0.0%	37.0%	2.2%	2.2%
성별	남성	105	8.6%	17.1%	22.9%	0.0%	8.6%	38.1%	1.9%	2.9%
	여성	95	9.5%	12.6%	17.9%	2.1%	8.4%	46.3%	1.1%	2.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11.1%	18.5%	14.8%	0.0%	11.1%	33.3%	3.7%	7.4%
	전문대 재학/졸업	44	6.8%	11.4%	18.2%	2.3%	4.5%	56.8%	0.0%	0.0%
	대학교 재학/졸업	111	9.9%	16.2%	18.0%	0.9%	8.1%	42.3%	1.8%	2.7%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5.6%	11.1%	50.0%	0.0%	16.7%	16.7%	0.0%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8.4%	16.8%	23.4%	0.0%	8.4%	38.3%	1.9%	2.8%
	비정규직	35	0.0%	20.0%	22.9%	0.0%	5.7%	48.6%	0.0%	2.9%
	미취업/취업준비	31	12.9%	6.5%	19.4%	6.5%	3.2%	48.4%	0.0%	3.2%
	학생	17	17.6%	11.8%	5.9%	0.0%	29.4%	35.3%	0.0%	0.0%
	창업/창업준비 중	10	20.0%	10.0%	10.0%	0.0%	0.0%	50.0%	10.0%	0.0%
거주지	중구	12	0.0%	8.3%	8.3%	0.0%	0.0%	83.3%	0.0%	0.0%
	동구	41	12.2%	19.5%	19.5%	0.0%	14.6%	29.3%	0.0%	4.9%
	서구	13	15.4%	15.4%	7.7%	0.0%	7.7%	53.8%	0.0%	0.0%
	남구	10	20.0%	10.0%	20.0%	0.0%	10.0%	40.0%	0.0%	0.0%
	북구	28	0.0%	14.3%	35.7%	3.6%	0.0%	39.3%	3.6%	3.6%
	수성구	27	11.1%	11.1%	18.5%	0.0%	3.7%	55.6%	0.0%	0.0%
	달서구	60	6.7%	16.7%	23.3%	1.7%	13.3%	31.7%	3.3%	3.3%
	달성군	9	22.2%	11.1%	0.0%	0.0%	0.0%	66.7%	0.0%	0.0%

〈표 22〉 문화·여가 생활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응답 수	금전적 부족	시간적 부족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부족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전체		200	61.5%	22.5%	8.0%	6.5%	1.5%
나이	19~24세	54	55.6%	18.5%	13.0%	11.1%	1.9%
	25~29세	51	66.7%	15.7%	7.8%	7.8%	2.0%
	30~34세	49	61.2%	28.6%	6.1%	4.1%	0.0%
	35~39세	46	63.0%	28.3%	4.3%	2.2%	2.2%
성별	남성	105	64.8%	20.0%	7.6%	4.8%	2.9%
	여성	95	57.9%	25.3%	8.4%	8.4%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74.1%	14.8%	3.7%	0.0%	7.4%
	전문대 재학/졸업	44	70.5%	15.9%	6.8%	6.8%	0.0%
	대학교 재학/졸업	111	57.7%	25.2%	9.9%	6.3%	0.9%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44.4%	33.3%	5.6%	16.7%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59.8%	27.1%	5.6%	4.7%	2.8%
	비정규직	35	57.1%	20.0%	20.0%	2.9%	0.0%
	미취업/취업준비	31	77.4%	3.2%	6.5%	12.9%	0.0%
	학생	17	47.1%	29.4%	5.9%	17.6%	0.0%
	창업/창업준비 중	10	70.0%	30.0%	0.0%	0.0%	0.0%
거주지	중구	12	75.0%	25.0%	0.0%	0.0%	0.0%
	동구	41	53.7%	22.0%	12.2%	12.2%	0.0%
	서구	13	84.6%	7.7%	0.0%	7.7%	0.0%
	남구	10	60.0%	40.0%	0.0%	0.0%	0.0%
	북구	28	46.4%	35.7%	7.1%	7.1%	3.6%
	수성구	27	51.9%	29.6%	11.1%	7.4%	0.0%
	달서구	60	66.7%	16.7%	8.3%	5.0%	3.3%
	달성군	9	88.9%	0.0%	11.1%	0.0%	0.0%

〈표 23〉 대구지역 프로그램, 인프라 만족도

		응답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긍정 응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00	9.5%	24.5%	50.5%	15.5%	13.5%	2.0%
나이	19~24세	54	3.7%	31.5%	50.0%	14.8%	14.8%	0.0%
	25~29세	51	9.8%	19.6%	54.9%	15.7%	13.7%	2.0%
	30~34세	49	12.2%	20.4%	53.1%	14.3%	8.2%	6.1%
	35~39세	46	13.0%	26.1%	43.5%	17.4%	17.4%	0.0%
성별	남성	105	8.6%	26.7%	48.6%	16.2%	13.3%	2.9%
	여성	95	10.5%	22.1%	52.6%	14.7%	13.7%	1.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3.7%	18.5%	59.3%	18.5%	11.1%	7.4%
	전문대 재학/졸업	44	15.9%	29.5%	47.7%	6.8%	6.8%	0.0%
	대학교 재학/졸업	111	8.1%	25.2%	49.5%	17.1%	15.3%	1.8%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11.1%	16.7%	50.0%	22.2%	22.2%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7.5%	26.2%	51.4%	15.0%	14.0%	0.9%
	비정규직	35	11.4%	22.9%	48.6%	17.1%	11.4%	5.7%
	미취업/취업준비	31	9.7%	29.0%	48.4%	12.9%	12.9%	0.0%
	학생	17	11.8%	0.0%	64.7%	23.5%	23.5%	0.0%
	창업/창업준비 중	10	20.0%	40.0%	30.0%	10.0%	0.0%	10.0%
거주지	중구	12	8.3%	16.7%	66.7%	8.3%	8.3%	0.0%
	동구	41	7.3%	22.0%	56.1%	14.6%	12.2%	2.4%
	서구	13	30.8%	7.7%	46.2%	15.4%	15.4%	0.0%
	남구	10	0.0%	10.0%	70.0%	20.0%	20.0%	0.0%
	북구	28	14.3%	28.6%	39.3%	17.9%	17.9%	0.0%
	수성구	27	7.4%	22.2%	51.9%	18.5%	11.1%	7.4%
	달서구	60	6.7%	31.7%	46.7%	15.0%	13.3%	1.7%
	달성군	9	11.1%	33.3%	44.4%	11.1%	11.1%	0.0%

〈표 24〉 대구광역시 문화·여가 시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응답 수	관련시설이 다양하지 않아서	관련시설 주변에 갈만한 곳이 없어서	관련시설을 잘 알지 못해서	관련시설 이용 시간대가 맞지않아서	관련시설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전체		68	48.5%	29.4%	7.4%	5.9%	7.4%	1.4%
나이	19~24세	19	63.2%	10.5%	5.3%	10.5%	10.5%	0.0%
	25~29세	15	46.7%	33.3%	13.3%	0.0%	6.7%	0.0%
	30~34세	16	43.8%	31.3%	6.3%	6.3%	6.3%	6.3%
	35~39세	18	38.9%	44.4%	5.6%	5.6%	5.6%	0.0%
성별	남성	37	37.8%	35.1%	8.1%	5.4%	10.8%	2.7%
	여성	31	61.3%	22.6%	6.5%	6.5%	3.2%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6	33.3%	50.0%	16.7%	0.0%	0.0%	0.0%
	전문대 재학/졸업	20	35.0%	40.0%	10.0%	5.0%	10.0%	0.0%
	대학교 재학/졸업	37	56.8%	18.9%	5.4%	8.1%	8.1%	2.7%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5	60.0%	40.0%	0.0%	0.0%	0.0%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36	47.2%	30.6%	5.6%	5.6%	8.3%	2.8%
	비정규직	12	50.0%	41.7%	8.3%	0.0%	0.0%	0.0%
	미취업/취업준비	12	25.0%	25.0%	16.7%	16.7%	16.7%	0.0%
	학생	2	50.0%	50.0%	0.0%	0.0%	0.0%	0.0%
	창업/창업준비 중	6	100.0%	0.0%	0.0%	0.0%	0.0%	0.0%
거주지	중구	3	66.7%	0.0%	0.0%	0.0%	33.3%	0.0%
	동구	12	33.3%	33.3%	16.7%	8.3%	8.3%	0.0%
	서구	5	40.0%	60.0%	0.0%	0.0%	0.0%	0.0%
	남구	1	100.0%	0.0%	0.0%	0.0%	0.0%	0.0%
	북구	12	58.3%	33.3%	0.0%	0.0%	0.0%	8.3%
	수성구	8	62.5%	25.0%	12.5%	0.0%	0.0%	0.0%
	달서구	23	43.5%	26.1%	8.7%	8.7%	13.0%	0.0%
	달성군	4	50.0%	25.0%	0.0%	25.0%	0.0%	0.0%

〈표 25〉 생활·문화 여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응답 수	다양한 청년문화 여가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년 생활문화 센터 운영 및 활성화	기본소득 지원, 부채완화 등 금융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문화 예술거리 조성 및 거리문화 활성화	청년문화 예술인의 활동 지원
전체		200	27.5%	13.0%	43.5%	2.5%	12.0%	1.5%
나이	19~24세	54	35.2%	9.3%	42.6%	3.7%	7.4%	1.9%
	25~29세	51	21.6%	13.7%	39.2%	5.9%	17.6%	2.0%
	30~34세	49	28.6%	14.3%	44.9%	0.0%	10.2%	2.0%
	35~39세	46	23.9%	15.2%	47.8%	0.0%	13.0%	0.0%
성별	남성	105	22.9%	13.3%	48.6%	2.9%	12.4%	0.0%
	여성	95	32.6%	12.6%	37.9%	2.1%	11.6%	3.2%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3.7%	14.8%	59.3%	3.7%	11.1%	7.4%
	전문대 재학/졸업	44	20.5%	6.8%	52.3%	4.5%	15.9%	0.0%
	대학교 재학/졸업	111	34.2%	11.7%	39.6%	1.8%	11.7%	0.9%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38.9%	33.3%	22.2%	0.0%	5.6%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24.3%	14.0%	44.9%	2.8%	13.1%	0.9%
	비정규직	35	28.6%	14.3%	37.1%	2.9%	14.3%	2.9%
	미취업/취업준비	31	22.6%	12.9%	51.6%	3.2%	9.7%	0.0%
	학생	17	52.9%	11.8%	23.5%	0.0%	5.9%	5.9%
	창업/창업준비 중	10	30.0%	0.0%	60.0%	0.0%	10.0%	0.0%
거주지	중구	12	50.0%	25.0%	8.3%	0.0%	16.7%	0.0%
	동구	41	19.5%	19.5%	39.0%	4.9%	14.6%	2.4%
	서구	13	46.2%	0.0%	38.5%	7.7%	7.7%	0.0%
	남구	10	20.0%	10.0%	60.0%	0.0%	10.0%	0.0%
	북구	28	28.6%	10.7%	42.9%	3.6%	14.3%	0.0%
	수성구	27	44.4%	14.8%	29.6%	0.0%	7.4%	3.7%
	달서구	60	15.0%	11.7%	58.3%	1.7%	11.7%	1.7%
	달성군	9	44.4%	0.0%	44.4%	0.0%	11.1%	0.0%

〈표 26〉 청년 공간을 조성할 경우 가장 필요한 공간

		응답 수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심 공간	취업, 창업지원 등의 일자리 공간	교류·모임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	교육 및 강좌 중심 공간	공방·작업 시설 중심 공간	기타
전체		200	34.5%	38.5%	14.5%	6.0%	5.5%	1.0%
나이	19~24세	54	31.5%	35.2%	16.7%	9.3%	5.6%	1.9%
	25~29세	51	41.2%	31.4%	11.8%	3.9%	11.8%	0.0%
	30~34세	49	36.7%	46.9%	10.2%	2.0%	4.1%	0.0%
	35~39세	46	28.3%	41.3%	19.6%	8.7%	0.0%	2.2%
성별	남성	105	30.5%	41.0%	18.1%	6.7%	2.9%	1.0%
	여성	95	38.9%	35.8%	10.5%	5.3%	8.4%	1.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14.8%	55.6%	14.8%	11.1%	3.7%	0.0%
	전문대 재학/졸업	44	36.4%	38.6%	11.4%	6.8%	6.8%	0.0%
	대학교 재학/졸업	111	38.7%	34.2%	15.3%	3.6%	6.3%	1.8%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33.3%	38.9%	16.7%	11.1%	0.0%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36.4%	35.5%	15.0%	5.6%	6.5%	0.9%
	비정규직	35	34.3%	37.1%	11.4%	11.4%	2.9%	2.9%
	미취업/취업준비	31	29.0%	54.8%	12.9%	3.2%	0.0%	0.0%
	학생	17	35.3%	29.4%	23.5%	5.9%	5.9%	0.0%
	창업/창업준비 중	10	30.0%	40.0%	10.0%	0.0%	20.0%	0.0%
거주지	중구	12	66.7%	8.3%	16.7%	0.0%	8.3%	0.0%
	동구	41	34.1%	48.8%	12.2%	4.9%	0.0%	0.0%
	서구	13	30.8%	46.2%	23.1%	0.0%	0.0%	0.0%
	남구	10	20.0%	20.0%	40.0%	0.0%	10.0%	10.0%
	북구	28	35.7%	35.7%	3.6%	10.7%	14.3%	0.0%
	수성구	27	44.4%	44.4%	3.7%	0.0%	3.7%	3.7%
	달서구	60	26.7%	38.3%	18.3%	10.0%	6.7%	0.0%
	달성군	9	33.3%	33.3%	22.2%	11.1%	0.0%	0.0%

〈표 27〉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응답 수	청년정책 대상자 확대	청년정책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청년 발굴	저소득 가구, 보호시설, 한부모 청년 등 취약계층 우선지원	청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수준의 급여, 서비스 제공	청년정책 신청 및 지원의 간소화
전체		200	12.0%	10.5%	7.5%	21.5%	46.0%	2.5%
나이	19~24세	54	13.0%	13.0%	11.1%	31.5%	31.5%	0.0%
	25~29세	51	13.7%	5.9%	7.8%	23.5%	47.1%	2.0%
	30~34세	49	10.2%	8.2%	4.1%	16.3%	57.1%	4.1%
	35~39세	46	10.9%	15.2%	6.5%	13.0%	50.0%	4.3%
성별	남성	105	9.5%	12.4%	7.6%	20.0%	47.6%	2.9%
	여성	95	14.7%	8.4%	7.4%	23.2%	44.2%	2.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11.1%	18.5%	0.0%	14.8%	48.1%	7.4%
	전문대 재학/졸업	44	13.6%	9.1%	11.4%	20.5%	43.2%	2.3%
	대학교 재학/졸업	111	12.6%	9.9%	5.4%	24.3%	45.9%	1.8%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5.6%	5.6%	22.2%	16.7%	50.0%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14.0%	10.3%	6.5%	20.6%	46.7%	1.9%
	비정규직	35	5.7%	17.1%	5.7%	14.3%	54.3%	2.9%
	미취업/취업준비	31	16.1%	6.5%	9.7%	22.6%	38.7%	6.5%
	학생	17	5.9%	11.8%	17.6%	41.2%	23.5%	0.0%
	창업/창업준비 중	10	10.0%	0.0%	0.0%	20.0%	70.0%	0.0%
거주지	중구	12	8.3%	0.0%	16.7%	33.3%	41.7%	0.0%
	동구	41	7.3%	14.6%	4.9%	19.5%	51.2%	2.4%
	서구	13	23.1%	0.0%	7.7%	15.4%	53.8%	0.0%
	남구	10	30.0%	0.0%	20.0%	20.0%	20.0%	10.0%
	북구	28	7.1%	10.7%	7.1%	21.4%	53.6%	0.0%
	수성구	27	11.1%	18.5%	0.0%	25.9%	40.7%	3.7%
	달서구	60	13.3%	10.0%	8.3%	16.7%	48.3%	3.3%
	달성군	9	11.1%	11.1%	11.1%	44.4%	22.2%	0.0%

〈표 28〉 거주지 유형

		응답 수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전체		200	10.0%	58.5%	22.5%	6.5%	1.0%	1.5%
나이	19~24세	54	9.3%	66.7%	16.7%	5.6%	0.0%	1.9%
	25~29세	51	13.7%	43.1%	35.3%	7.8%	0.0%	0.0%
	30~34세	49	8.2%	61.2%	20.4%	6.1%	0.0%	4.1%
	35~39세	46	8.7%	63.0%	17.4%	6.5%	4.3%	0.0%
성별	남성	105	8.6%	61.0%	22.9%	4.8%	1.0%	1.9%
	여성	95	11.6%	55.8%	22.1%	8.4%	1.1%	1.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7.4%	44.4%	40.7%	3.7%	0.0%	3.7%
	전문대 재학/졸업	44	11.4%	50.0%	31.8%	4.5%	0.0%	2.3%
	대학교 재학/졸업	111	10.8%	65.8%	15.3%	5.4%	1.8%	0.9%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5.6%	55.6%	16.7%	22.2%	0.0%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9.3%	63.6%	20.6%	5.6%	0.0%	0.9%
	비정규직	35	11.4%	40.0%	28.6%	14.3%	5.7%	0.0%
	미취업/ 취업준비	31	12.9%	51.6%	29.0%	6.5%	0.0%	0.0%
	학생	17	5.9%	70.6%	17.6%	0.0%	0.0%	5.9%
	창업/창업 준비 중	10	10.0%	70.0%	10.0%	0.0%	0.0%	10.0%
거주지	중구	12	0.0%	58.3%	33.3%	8.3%	0.0%	0.0%
	동구	41	12.2%	53.7%	24.4%	9.8%	0.0%	0.0%
	서구	13	46.2%	23.1%	23.1%	0.0%	7.7%	0.0%
	남구	10	10.0%	30.0%	50.0%	10.0%	0.0%	0.0%
	북구	28	14.3%	64.3%	14.3%	3.6%	0.0%	3.6%
	수성구	27	3.7%	63.0%	14.8%	14.8%	3.7%	0.0%
	달서구	60	3.3%	70.0%	21.7%	1.7%	0.0%	3.3%
	달성군	9	11.1%	55.6%	22.2%	11.1%	0.0%	0.0%

〈표 29〉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유(1)

		응답 수	주거비 부담이 없어서	통근/통학의 접근성	교통이 편리해서	동네 환경이 쾌적해서	상업·편의·문화 여가시설이 좋아서
전체		200	17.0%	8.5%	2.5%	3.0%	4.0%
나이	19~24세	54	20.4%	7.4%	1.9%	3.7%	7.4%
	25~29세	51	23.5%	13.7%	5.9%	0.0%	0.0%
	30~34세	49	14.3%	10.2%	0.0%	2.0%	2.0%
	35~39세	46	8.7%	2.2%	2.2%	6.5%	6.5%
성별	남성	105	19.0%	8.6%	3.8%	1.0%	2.9%
	여성	95	14.7%	8.4%	1.1%	5.3%	5.3%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11.1%	7.4%	3.7%	3.7%	7.4%
	전문대 재학/졸업	44	18.2%	9.1%	4.5%	2.3%	0.0%
	대학교 재학/졸업	111	18.9%	9.9%	1.8%	3.6%	2.7%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11.1%	0.0%	0.0%	0.0%	16.7%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21.5%	11.2%	3.7%	1.9%	2.8%
	비정규직	35	11.4%	2.9%	2.9%	2.9%	2.9%
	미취업/취업준비	31	12.9%	6.5%	0.0%	3.2%	6.5%
	학생	17	17.6%	11.8%	0.0%	5.9%	11.8%
	창업/창업준비 중	10	0.0%	0.0%	0.0%	10.0%	0.0%
거주지	중구	12	8.3%	50.0%	0.0%	16.7%	0.0%
	동구	41	14.6%	0.0%	2.4%	0.0%	0.0%
	서구	13	30.8%	0.0%	0.0%	0.0%	7.7%
	남구	10	30.0%	10.0%	0.0%	0.0%	20.0%
	북구	28	17.9%	3.6%	3.6%	0.0%	3.6%
	수성구	27	22.2%	11.1%	0.0%	7.4%	7.4%
	달서구	60	11.7%	8.3%	5.0%	1.7%	3.3%
	달성군	9	22.2%	11.1%	0.0%	11.1%	0.0%

〈표 30〉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유(2)

		응답 수	치안 및 안전이 좋아서	교육환경이 좋아서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기타
전체		200	0.5%	1.0%	59.0%	4.5%
나이	19~24세	54	0.0%	0.0%	55.6%	3.7%
	25~29세	51	0.0%	2.0%	49.0%	5.9%
	30~34세	49	0.0%	0.0%	69.4%	2.0%
	35~39세	46	2.2%	2.2%	63.0%	6.5%
성별	남성	105	0.0%	1.0%	60.0%	3.8%
	여성	95	1.1%	1.1%	57.9%	5.3%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0.0%	0.0%	63.0%	3.7%
	전문대 재학/졸업	44	0.0%	0.0%	63.6%	2.3%
	대학교 재학/졸업	111	0.0%	0.9%	56.8%	5.4%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5.6%	5.6%	55.6%	5.6%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0.9%	0.9%	51.4%	5.6%
	비정규직	35	0.0%	0.0%	71.4%	5.7%
	미취업/취업준비	31	0.0%	0.0%	71.0%	0.0%
	학생	17	0.0%	5.9%	41.2%	5.9%
	창업/창업준비 중	10	0.0%	0.0%	90.0%	0.0%
거주지	중구	12	0.0%	0.0%	8.3%	16.7%
	동구	41	0.0%	0.0%	80.5%	2.4%
	서구	13	0.0%	0.0%	53.8%	7.7%
	남구	10	0.0%	0.0%	40.0%	0.0%
	북구	28	0.0%	3.6%	60.7%	7.1%
	수성구	27	0.0%	0.0%	44.4%	7.4%
	달서구	60	1.7%	1.7%	65.0%	1.7%
	달성군	9	0.0%	0.0%	55.6%	0.0%

<표 31> 주거입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중요 요인

		응답 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주변에 공공 편의 시설이 있는지	주거 비용이 저렴한지	주변에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지	주변의 교육 환경이 좋은지	기타
전체		200	19.0%	28.0%	9.5%	16.0%	21.0%	4.5%	2.0%
나이	19~24세	54	22.2%	29.6%	11.1%	5.6%	20.4%	7.4%	3.7%
	25~29세	51	15.7%	31.4%	11.8%	19.6%	19.6%	2.0%	0.0%
	30~34세	49	24.5%	24.5%	6.1%	14.3%	24.5%	6.1%	0.0%
	35~39세	46	13.0%	26.1%	8.7%	26.1%	19.6%	2.2%	4.3%
성별	남성	105	15.2%	29.5%	6.7%	20.0%	22.9%	4.8%	1.0%
	여성	95	23.2%	26.3%	12.6%	11.6%	18.9%	4.2%	3.2%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14.8%	33.3%	7.4%	22.2%	22.2%	0.0%	0.0%
	전문대 재학/졸업	44	18.2%	27.3%	13.6%	20.5%	15.9%	4.5%	0.0%
	대학교 재학/졸업	111	23.4%	25.2%	7.2%	13.5%	22.5%	4.5%	3.6%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38.9%	16.7%	11.1%	22.2%	11.1%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15.0%	32.7%	9.3%	15.0%	22.4%	3.7%	1.9%
	비정규직	35	28.6%	20.0%	5.7%	14.3%	22.9%	5.7%	2.9%
	미취업/취업준비	31	25.8%	22.6%	9.7%	19.4%	16.1%	6.5%	0.0%
	학생	17	17.6%	29.4%	23.5%	5.9%	11.8%	5.9%	5.9%
	창업/창업준비 중	10	10.0%	20.0%	0.0%	40.0%	30.0%	0.0%	0.0%
거주지	중구	12	8.3%	33.3%	8.3%	8.3%	41.7%	0.0%	0.0%
	동구	41	19.5%	34.1%	12.2%	14.6%	14.6%	4.9%	0.0%
	서구	13	15.4%	38.5%	7.7%	15.4%	15.4%	0.0%	7.7%
	남구	10	10.0%	30.0%	20.0%	30.0%	10.0%	0.0%	0.0%
	북구	28	14.3%	28.6%	10.7%	10.7%	21.4%	10.7%	3.6%
	수성구	27	29.6%	14.8%	14.8%	7.4%	25.9%	3.7%	3.7%
	달서구	60	20.0%	21.7%	5.0%	21.7%	25.0%	5.0%	1.7%
	달성군	9	22.2%	55.6%	0.0%	22.2%	0.0%	0.0%	0.0%

〈표 32〉 희망하는 공공주택 형태

		응답 수	공공분양	공공임대	선호하지 않는다
전체		200	39.5%	38.0%	22.5%
나이	19~24세	54	42.6%	27.8%	29.6%
	25~29세	51	23.5%	56.9%	19.6%
	30~34세	49	51.0%	30.6%	18.4%
	35~39세	46	41.3%	37.0%	21.7%
성별	남성	105	40.0%	35.2%	24.8%
	여성	95	38.9%	41.1%	2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40.7%	44.4%	14.8%
	전문대 재학/졸업	44	29.5%	38.6%	31.8%
	대학교 재학/졸업	111	45.0%	36.0%	18.9%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27.8%	38.9%	33.3%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43.0%	36.4%	20.6%
	비정규직	35	34.3%	45.7%	20.0%
	미취업/취업준비	31	32.3%	41.9%	25.8%
	학생	17	35.3%	35.3%	29.4%
	창업/창업준비 중	10	50.0%	20.0%	30.0%
거주지	중구	12	41.7%	41.7%	16.7%
	동구	41	53.7%	26.8%	19.5%
	서구	13	38.5%	30.8%	30.8%
	남구	10	30.0%	70.0%	0.0%
	북구	28	35.7%	32.1%	32.1%
	수성구	27	33.3%	48.1%	18.5%
	달서구	60	33.3%	40.0%	26.7%
	달성군	9	55.6%	33.3%	11.1%

〈표 33〉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응답 수	도심지와 떨어져 있어서	주거 면적이 좁아서	주변 생활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마감재/소음 등이 좋지 않아서	학교/직장과 거리가 멀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서	임대 주택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전체		45	4.4%	13.3%	22.2%	17.8%	4.4%	4.4%	33.5%
나이	19~24세	16	6.3%	25.0%	12.5%	0.0%	12.5%	6.3%	37.5%
	25~29세	10	10.0%	0.0%	20.0%	30.0%	0.0%	10.0%	30.0%
	30~34세	9	0.0%	22.2%	44.4%	11.1%	0.0%	0.0%	22.2%
	35~39세	10	0.0%	0.0%	20.0%	40.0%	0.0%	0.0%	40.0%
성별	남성	26	3.8%	11.5%	23.1%	19.2%	3.8%	3.8%	34.6%
	여성	19	5.3%	15.8%	21.1%	15.8%	5.3%	5.3%	31.6%
최종학력	고졸 이하	4	0.0%	25.0%	50.0%	0.0%	0.0%	0.0%	25.0%
	전문대 재학/졸업	14	0.0%	14.3%	14.3%	28.6%	7.1%	14.3%	21.4%
	대학교 재학/졸업	21	9.5%	14.3%	23.8%	9.5%	4.8%	0.0%	38.1%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6	0.0%	0.0%	16.7%	33.3%	0.0%	0.0%	5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22	4.5%	9.1%	18.2%	18.2%	4.5%	4.5%	40.9%
	비정규직	7	0.0%	14.3%	0.0%	28.6%	0.0%	14.3%	42.9%
	미취업/취업준비	8	12.5%	25.0%	37.5%	12.5%	0.0%	0.0%	12.5%
	학생	5	0.0%	0.0%	40.0%	0.0%	20.0%	0.0%	40.0%
	창업/창업준비 중	3	0.0%	33.3%	33.3%	33.3%	0.0%	0.0%	0.0%
거주지	중구	2	0.0%	0.0%	0.0%	50.0%	0.0%	0.0%	50.0%
	동구	8	12.5%	37.5%	12.5%	12.5%	0.0%	12.5%	12.5%
	서구	4	0.0%	25.0%	25.0%	25.0%	0.0%	0.0%	25.0%
	북구	9	0.0%	0.0%	22.2%	22.2%	11.1%	0.0%	44.4%
	수성구	5	0.0%	0.0%	20.0%	20.0%	0.0%	0.0%	60.0%
	달서구	16	6.3%	12.5%	31.3%	12.5%	0.0%	6.3%	31.3%
	달성군	1	0.0%	0.0%	0.0%	0.0%	100.0%	0.0%	0.0%

〈표 34〉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

		응답 수	주거자금 대출지원	공공주택 청년층 우선 임대	주거자금 비용 보조	주거비 명목 목돈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	청년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거 관련 청년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기타
전체		200	29.5%	10.5%	16.0%	22.0%	17.0%	4.5%	0.5%
나이	19~24세	54	24.1%	18.5%	11.1%	20.4%	20.4%	5.6%	0.0%
	25~29세	51	27.5%	5.9%	13.7%	25.5%	21.6%	5.9%	0.0%
	30~34세	49	26.5%	10.2%	16.3%	24.5%	18.4%	4.1%	0.0%
	35~39세	46	41.3%	6.5%	23.9%	17.4%	6.5%	2.2%	2.2%
성별	남성	105	33.3%	8.6%	18.1%	20.0%	15.2%	3.8%	1.0%
	여성	95	25.3%	12.6%	13.7%	24.2%	18.9%	5.3%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25.9%	7.4%	18.5%	29.6%	14.8%	3.7%	0.0%
	전문대 재학/졸업	44	25.0%	4.5%	18.2%	25.0%	18.2%	9.1%	0.0%
	대학교 재학/졸업	111	30.6%	14.4%	14.4%	19.8%	16.2%	3.6%	0.9%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38.9%	5.6%	16.7%	16.7%	22.2%	0.0%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32.7%	9.3%	17.8%	19.6%	17.8%	1.9%	0.9%
	비정규직	35	28.6%	8.6%	11.4%	25.7%	20.0%	5.7%	0.0%
	미취업/ 취업준비	31	25.8%	6.5%	16.1%	29.0%	16.1%	6.5%	0.0%
	학생	17	29.4%	17.6%	11.8%	11.8%	17.6%	11.8%	0.0%
	창업/창업 준비 중	10	10.0%	30.0%	20.0%	30.0%	0.0%	10.0%	0.0%
거주지	중구	12	33.3%	8.3%	0.0%	41.7%	16.7%	0.0%	0.0%
	동구	41	31.7%	12.2%	12.2%	22.0%	19.5%	2.4%	0.0%
	서구	13	30.8%	0.0%	30.8%	15.4%	7.7%	15.4%	0.0%
	남구	10	50.0%	0.0%	10.0%	20.0%	20.0%	0.0%	0.0%
	북구	28	28.6%	10.7%	21.4%	21.4%	10.7%	3.6%	3.6%
	수성구	27	33.3%	22.2%	11.1%	18.5%	14.8%	0.0%	0.0%
	달서구	60	23.3%	8.3%	20.0%	23.3%	18.3%	6.7%	0.0%
	달성군	9	22.2%	11.1%	11.1%	11.1%	33.3%	11.1%	0.0%

〈표 35〉 청년정책 수립과정 참여/활동 여부

		응답 수	예	아니오
전체		200	9.0%	91.0%
나이	19~24세	54	9.3%	90.7%
	25~29세	51	5.9%	94.1%
	30~34세	49	10.2%	89.8%
	35~39세	46	10.9%	89.1%
성별	남성	105	8.6%	91.4%
	여성	95	9.5%	90.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0.0%	100.0%
	전문대 재학/졸업	44	11.4%	88.6%
	대학교 재학/졸업	111	10.8%	89.2%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5.6%	94.4%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10.3%	89.7%
	비정규직	35	8.6%	91.4%
	미취업/취업준비	31	12.9%	87.1%
	학생	17	0.0%	100.0%
	창업/창업준비 중	10	0.0%	100.0%
거주지	중구	12	0.0%	100.0%
	동구	41	2.4%	97.6%
	서구	13	15.4%	84.6%
	남구	10	10.0%	90.0%
	북구	28	10.7%	89.3%
	수성구	27	11.1%	88.9%
	달서구	60	11.7%	88.3%
	달성군	9	11.1%	88.9%

〈표 36〉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참여나 활동하지 않은 이유

		응답 수	정책 참여기회에 대해 잘 몰라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인원/자격 등이 제한적이어서	시간 부족 등 개인적인 이유로	정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참여해도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잘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기타
전체		182	51.1%	4.9%	14.3%	12.1%	17.0%	0.6%
나이	19~24세	49	53.1%	6.1%	14.3%	14.3%	10.2%	2.0%
	25~29세	48	58.3%	2.1%	16.7%	12.5%	10.4%	0.0%
	30~34세	44	45.5%	4.5%	18.2%	13.6%	18.2%	0.0%
	35~39세	41	46.3%	7.3%	7.3%	7.3%	31.7%	0.0%
성별	남성	96	57.3%	3.1%	10.4%	7.3%	20.8%	1.0%
	여성	86	44.2%	7.0%	18.6%	17.4%	12.8%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63.0%	0.0%	22.2%	7.4%	3.7%	3.7%
	전문대 재학/졸업	39	53.8%	5.1%	15.4%	12.8%	12.8%	0.0%
	대학교 재학/졸업	99	47.5%	7.1%	12.1%	13.1%	20.2%	0.0%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7	47.1%	0.0%	11.8%	11.8%	29.4%	0.0%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96	54.2%	2.1%	10.4%	13.5%	18.8%	1.0%
	비정규직	32	40.6%	12.5%	12.5%	6.3%	28.1%	0.0%
	미취업/취업준비	27	55.6%	7.4%	14.8%	14.8%	7.4%	0.0%
	학생	17	52.9%	5.9%	29.4%	11.8%	0.0%	0.0%
	창업/창업준비 중	10	40.0%	0.0%	30.0%	10.0%	20.0%	0.0%
거주지	중구	12	66.7%	0.0%	16.7%	8.3%	8.3%	0.0%
	동구	40	57.5%	0.0%	10.0%	17.5%	15.0%	0.0%
	서구	11	36.4%	9.1%	9.1%	18.2%	27.3%	0.0%
	남구	9	77.8%	11.1%	11.1%	0.0%	0.0%	0.0%
	북구	25	40.0%	12.0%	12.0%	12.0%	24.0%	0.0%
	수성구	24	41.7%	4.2%	20.8%	20.8%	12.5%	0.0%
	달서구	53	52.8%	5.7%	15.1%	5.7%	18.9%	1.9%
	달성군	8	37.5%	0.0%	25.0%	12.5%	25.0%	0.0%

〈표 37〉 청년정책 필요성(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제공)

		응답 수	전혀 필요 없음	약간 불필요	보통	일부 필요	매우 필요
전체		200	5.5%	7.5%	21.5%	44.5%	21.0%
나이	19~24세	54	5.6%	5.6%	18.5%	46.3%	24.1%
	25~29세	51	3.9%	7.8%	17.6%	49.0%	21.6%
	30~34세	49	4.1%	4.1%	28.6%	46.9%	16.3%
	35~39세	46	8.7%	13.0%	21.7%	34.8%	21.7%
성별	남성	105	7.6%	9.5%	21.9%	41.0%	20.0%
	여성	95	3.2%	5.3%	21.1%	48.4%	22.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7.4%	0.0%	40.7%	37.0%	14.8%
	전문대 재학/졸업	44	9.1%	0.0%	25.0%	47.7%	18.2%
	대학교 재학/졸업	111	4.5%	10.8%	17.1%	45.9%	21.6%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16.7%	11.1%	38.9%	33.3%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7.5%	9.3%	20.6%	47.7%	15.0%
	비정규직	35	2.9%	14.3%	22.9%	42.9%	17.1%
	미취업/ 취업준비	31	3.2%	0.0%	29.0%	38.7%	29.0%
	학생	17	0.0%	0.0%	17.6%	47.1%	35.3%
	창업/창업 준비 중	10	10.0%	0.0%	10.0%	30.0%	50.0%
거주지	중구	12	0.0%	8.3%	0.0%	83.3%	8.3%
	동구	41	4.9%	12.2%	24.4%	39.0%	19.5%
	서구	13	7.7%	7.7%	7.7%	53.8%	23.1%
	남구	10	10.0%	0.0%	10.0%	60.0%	20.0%
	북구	28	3.6%	7.1%	17.9%	53.6%	17.9%
	수성구	27	7.4%	7.4%	25.9%	40.7%	18.5%
	달서구	60	6.7%	5.0%	26.7%	33.3%	28.3%
	달성군	9	0.0%	11.1%	33.3%	44.4%	11.1%

〈표 38〉 청년정책 필요성(청년참여 보장 법률 제정)

		응답 수	전혀 필요 없음	약간 불필요	보통	일부 필요	매우 필요
전체		200	4.5%	4.0%	25.0%	38.0%	28.5%
나이	19~24세	54	3.7%	3.7%	27.8%	35.2%	29.6%
	25~29세	51	0.0%	2.0%	25.5%	41.2%	31.4%
	30~34세	49	8.2%	6.1%	20.4%	36.7%	28.6%
	35~39세	46	6.5%	4.3%	26.1%	39.1%	23.9%
성별	남성	105	6.7%	3.8%	25.7%	36.2%	27.6%
	여성	95	2.1%	4.2%	24.2%	40.0%	29.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3.7%	0.0%	40.7%	29.6%	25.9%
	전문대 재학/졸업	44	6.8%	2.3%	20.5%	43.2%	27.3%
	대학교 재학/졸업	111	4.5%	6.3%	23.4%	37.8%	27.9%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0.0%	22.2%	38.9%	38.9%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5.6%	3.7%	20.6%	40.2%	29.9%
	비정규직	35	0.0%	5.7%	25.7%	40.0%	28.6%
	미취업/ 취업준비	31	6.5%	3.2%	35.5%	41.9%	12.9%
	학생	17	0.0%	5.9%	23.5%	29.4%	41.2%
	창업/창업 준비 중	10	10.0%	0.0%	40.0%	10.0%	40.0%
거주지	중구	12	0.0%	0.0%	16.7%	83.3%	0.0%
	동구	41	4.9%	7.3%	24.4%	31.7%	31.7%
	서구	13	7.7%	7.7%	15.4%	30.8%	38.5%
	남구	10	10.0%	0.0%	30.0%	40.0%	20.0%
	북구	28	7.1%	3.6%	7.1%	35.7%	46.4%
	수성구	27	7.4%	7.4%	29.6%	37.0%	18.5%
	달서구	60	1.7%	1.7%	31.7%	35.0%	30.0%
	달성군	9	0.0%	0.0%	44.4%	44.4%	11.1%

〈표 39〉 청년정책 필요성(청년참여 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응답 수	전혀 필요 없음	약간 불필요	보통	일부 필요	매우 필요
전체		200	5.5%	3.0%	26.0%	36.5%	29.0%
나이	19~24세	54	3.7%	0.0%	29.6%	33.3%	33.3%
	25~29세	51	3.9%	2.0%	29.4%	39.2%	25.5%
	30~34세	49	6.1%	4.1%	16.3%	42.9%	30.6%
	35~39세	46	8.7%	6.5%	28.3%	30.4%	26.1%
성별	남성	105	8.6%	3.8%	24.8%	34.3%	28.6%
	여성	95	2.1%	2.1%	27.4%	38.9%	29.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3.7%	3.7%	25.9%	37.0%	29.6%
	전문대 재학/졸업	44	9.1%	0.0%	22.7%	40.9%	27.3%
	대학교 재학/졸업	111	5.4%	4.5%	27.9%	33.3%	28.8%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0.0%	22.2%	44.4%	33.3%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7.5%	4.7%	25.2%	36.4%	26.2%
	비정규직	35	0.0%	2.9%	31.4%	37.1%	28.6%
	미취업/ 취업준비	31	6.5%	0.0%	25.8%	38.7%	29.0%
	학생	17	0.0%	0.0%	29.4%	41.2%	29.4%
	창업/창업 준비 중	10	10.0%	0.0%	10.0%	20.0%	60.0%
거주지	중구	12	0.0%	8.3%	25.0%	41.7%	25.0%
	동구	41	2.4%	2.4%	24.4%	43.9%	26.8%
	서구	13	7.7%	7.7%	15.4%	23.1%	46.2%
	남구	10	10.0%	0.0%	50.0%	30.0%	10.0%
	북구	28	7.1%	7.1%	17.9%	32.1%	35.7%
	수성구	27	7.4%	3.7%	14.8%	51.9%	22.2%
	달서구	60	6.7%	0.0%	31.7%	28.3%	33.3%
	달성군	9	0.0%	0.0%	44.4%	44.4%	11.1%

〈표 40〉 청년정책 필요성(청년 대상 의견수렴/협력 정례회)

		응답 수	전혀 필요 없음	약간 불필요	보통	일부 필요	매우 필요
전체		200	2.5%	2.0%	21.0%	42.5%	32.0%
나이	19~24세	54	3.7%	0.0%	22.2%	38.9%	35.2%
	25~29세	51	0.0%	2.0%	15.7%	49.0%	33.3%
	30~34세	49	0.0%	0.0%	18.4%	51.0%	30.6%
	35~39세	46	6.5%	6.5%	28.3%	30.4%	28.3%
성별	남성	105	2.9%	2.9%	18.1%	40.0%	36.2%
	여성	95	2.1%	1.1%	24.2%	45.3%	27.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0.0%	0.0%	22.2%	33.3%	44.4%
	전문대 재학/졸업	44	4.5%	0.0%	20.5%	43.2%	31.8%
	대학교 재학/졸업	111	2.7%	3.6%	21.6%	42.3%	29.7%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0.0%	16.7%	55.6%	27.8%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3.7%	3.7%	16.8%	46.7%	29.0%
	비정규직	35	0.0%	0.0%	31.4%	37.1%	31.4%
	미취업/ 취업준비	31	3.2%	0.0%	25.8%	38.7%	32.3%
	학생	17	0.0%	0.0%	23.5%	47.1%	29.4%
	창업/창업 준비 중	10	0.0%	0.0%	10.0%	20.0%	70.0%
거주지	중구	12	0.0%	0.0%	8.3%	75.0%	16.7%
	동구	41	0.0%	2.4%	19.5%	48.8%	29.3%
	서구	13	7.7%	0.0%	15.4%	30.8%	46.2%
	남구	10	0.0%	0.0%	40.0%	30.0%	30.0%
	북구	28	3.6%	7.1%	7.1%	53.6%	28.6%
	수성구	27	7.4%	0.0%	25.9%	40.7%	25.9%
	달서구	60	1.7%	1.7%	25.0%	33.3%	38.3%
	달성군	9	0.0%	0.0%	33.3%	33.3%	33.3%

〈표 41〉 청년정책 필요성(청년에게 의제 발굴 및 예산편성 권한 부여)

		응답 수	전혀 필요 없음	약간 불필요	보통	일부 필요	매우 필요
전체		200	4.0%	5.0%	23.0%	41.0%	27.0%
나이	19~24세	54	3.7%	7.4%	18.5%	46.3%	24.1%
	25~29세	51	2.0%	2.0%	27.5%	41.2%	27.5%
	30~34세	49	6.1%	2.0%	22.4%	46.9%	22.4%
	35~39세	46	4.3%	8.7%	23.9%	28.3%	34.8%
성별	남성	105	5.7%	6.7%	18.1%	38.1%	31.4%
	여성	95	2.1%	3.2%	28.4%	44.2%	22.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0.0%	0.0%	29.6%	40.7%	29.6%
	전문대 재학/졸업	44	6.8%	2.3%	18.2%	38.6%	34.1%
	대학교 재학/졸업	111	4.5%	8.1%	22.5%	41.4%	23.4%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0.0%	27.8%	44.4%	27.8%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5.6%	4.7%	15.0%	44.9%	29.9%
	비정규직	35	0.0%	8.6%	31.4%	37.1%	22.9%
	미취업/ 취업준비	31	6.5%	6.5%	35.5%	35.5%	16.1%
	학생	17	0.0%	0.0%	29.4%	47.1%	23.5%
	창업/창업 준비 중	10	0.0%	0.0%	30.0%	20.0%	50.0%
거주지	중구	12	0.0%	0.0%	16.7%	58.3%	25.0%
	동구	41	2.4%	9.8%	24.4%	36.6%	26.8%
	서구	13	7.7%	0.0%	15.4%	38.5%	38.5%
	남구	10	10.0%	10.0%	30.0%	30.0%	20.0%
	북구	28	3.6%	7.1%	10.7%	60.7%	17.9%
	수성구	27	7.4%	0.0%	29.6%	37.0%	25.9%
	달서구	60	3.3%	5.0%	25.0%	35.0%	31.7%
	달성군	9	0.0%	0.0%	33.3%	44.4%	22.2%

〈표 42〉 청년정책 필요성(청년참여에 대한 금전지원)

		응답 수	전혀 필요 없음	약간 불필요	보통	일부 필요	매우 필요
전체		200	4.0%	4.0%	17.0%	40.0%	35.0%
나이	19~24세	54	3.7%	7.4%	7.4%	51.9%	29.6%
	25~29세	51	2.0%	5.9%	25.5%	35.3%	31.4%
	30~34세	49	4.1%	0.0%	12.2%	38.8%	44.9%
	35~39세	46	6.5%	2.2%	23.9%	32.6%	34.8%
성별	남성	105	4.8%	5.7%	16.2%	36.2%	37.1%
	여성	95	3.2%	2.1%	17.9%	44.2%	32.6%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0.0%	0.0%	33.3%	11.1%	55.6%
	전문대 재학/졸업	44	6.8%	2.3%	13.6%	38.6%	38.6%
	대학교 재학/졸업	111	4.5%	5.4%	14.4%	46.8%	28.8%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0.0%	5.6%	16.7%	44.4%	33.3%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6.5%	2.8%	15.9%	40.2%	34.6%
	비정규직	35	0.0%	2.9%	28.6%	42.9%	25.7%
	미취업/ 취업준비	31	3.2%	6.5%	9.7%	41.9%	38.7%
	학생	17	0.0%	11.8%	17.6%	41.2%	29.4%
	창업/창업 준비 중	10	0.0%	0.0%	10.0%	20.0%	70.0%
거주지	중구	12	0.0%	8.3%	8.3%	66.7%	16.7%
	동구	41	2.4%	4.9%	22.0%	26.8%	43.9%
	서구	13	15.4%	0.0%	15.4%	23.1%	46.2%
	남구	10	0.0%	0.0%	30.0%	30.0%	40.0%
	북구	28	7.1%	3.6%	7.1%	42.9%	39.3%
	수성구	27	7.4%	3.7%	22.2%	59.3%	7.4%
	달서구	60	1.7%	5.0%	16.7%	38.3%	38.3%
	달성군	9	0.0%	0.0%	11.1%	44.4%	44.4%

<표 43> 청년정책 필요성(청년대상 정책전문가 운영)

		응답 수	전혀 필요 없음	약간 불필요	보통	일부 필요	매우 필요
전체		200	5.5%	6.0%	19.0%	35.0%	34.5%
나이	19~24세	54	3.7%	7.4%	14.8%	42.6%	31.5%
	25~29세	51	7.8%	3.9%	19.6%	37.3%	31.4%
	30~34세	49	4.1%	4.1%	18.4%	30.6%	42.9%
	35~39세	46	6.5%	8.7%	23.9%	28.3%	32.6%
성별	남성	105	7.6%	7.6%	16.2%	27.6%	41.0%
	여성	95	3.2%	4.2%	22.1%	43.2%	27.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7	7.4%	7.4%	18.5%	25.9%	40.7%
	전문대 재학/졸업	44	6.8%	6.8%	13.6%	34.1%	38.6%
	대학교 재학/졸업	111	4.5%	5.4%	21.6%	36.0%	32.4%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18	5.6%	5.6%	16.7%	44.4%	27.8%
경제활동 유형	정규직	107	8.4%	4.7%	18.7%	35.5%	32.7%
	비정규직	35	0.0%	11.4%	25.7%	31.4%	31.4%
	미취업/ 취업준비	31	3.2%	6.5%	16.1%	45.2%	29.0%
	학생	17	0.0%	0.0%	17.6%	41.2%	41.2%
	창업/창업 준비 중	10	10.0%	10.0%	10.0%	0.0%	70.0%
거주지	중구	12	0.0%	0.0%	8.3%	75.0%	16.7%
	동구	41	2.4%	7.3%	22.0%	34.1%	34.1%
	서구	13	7.7%	0.0%	15.4%	30.8%	46.2%
	남구	10	0.0%	20.0%	40.0%	30.0%	10.0%
	북구	28	3.6%	3.6%	10.7%	35.7%	46.4%
	수성구	27	11.1%	3.7%	29.6%	37.0%	18.5%
	달서구	60	8.3%	6.7%	15.0%	30.0%	40.0%
	달성군	9	0.0%	11.1%	22.2%	22.2%	44.4%

---

---

## 부 록 2:

### 설문조사지

---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정부학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뢰로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평가 및 개선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엄격하게 보장되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의 실태분석 및 향후 청년정책의 수립과 이를 통해 대구광역시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 설문지 작성방법

본 설문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청년층을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 ✓ ) 해주시거나 해당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내용이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괄호안에 의견을 기재해주시고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시오.

- ▶ 주관 : 대구광역시의회
- ▶ 조사 : (사)한국정부학회
- ▶ 문의사항 : (사)한국정부학회 ☎ 010-7268-5400



- ⑦ 대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이 들어서
- ⑧ 기타 ( )

3. 귀하는 일자리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 ① 학교 취업지원센터
- ② 민간 구직사이트(예: 사람인 등)
- ③ 정부 운영 고용센터, 워크넷 등
- ④ 교수나 가족 친지 등
- ⑤ 선후배 등 주변 지인
- ⑥ 취업박람회 및 리쿠르팅
- ⑦ 인터넷 유명 취업카페 등
- ⑧ 기타 ( )

4. 다음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주요 항목들입니다. 귀하가 일자리를 선택하실 때 각 항목마다 중요시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주요 항목	중요 정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① 임금(소득)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② (임금 이외) 직원복지	①	②	③	④	⑤
③ 근로조건(업무시간, 근무환경·강도 등)	①	②	③	④	⑤
④ 고용안정(정년보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⑤ 자신의 적성 및 전공	①	②	③	④	⑤
⑥ 자신의 성장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⑦ 회사의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⑧ 교통편의·주변의 생활여건	①	②	③	④	⑤
⑨ 기업의 명성 (대기업·공기업 등)	①	②	③	④	⑤
⑩ 기업의 소재지 (수도권 여부 등)	①	②	③	④	⑤

5. 청년의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직업 교육·훈련 지원
- ② 창업·창직(새로운 직업/직종) 지원
- ③ 취업/일자리 정보 지원
- ④ 취업장려금 지원
- ⑤ 청년 복지 지원 (청년노동자 복리후생 지원)
- ⑥ 고용창출 지원(국가/지자체 취업프로그램 이수 청년 고용 수당 지원)
- ⑦ (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 (셔틀버스 운행, 기숙사 등)
- ⑧ 기업지원 (유연근무 지원 등)
- ⑨ 기타 ( )

6. 귀하의 주된 소비·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식비 및 주류       | ②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
| ③ 부채·이자상환(대출 등) | ④ 교통 및 통신비       |
| ⑤ 의류·신발 상품 소비   | ⑥ 문화·여가생활비       |
| ⑦ 기타 상품 서비스     | ⑧ 보건 의료비         |

7. 귀하의 재정상태가 개선된다면 소비·지출을 늘릴 항목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식비 및 주류       | ②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
| ③ 부채·이자상환(대출 등) | ④ 교통 및 통신비       |
| ⑤ 의류·신발 상품 소비   | ⑥ 문화·여가생활비       |
| ⑦ 기타 상품 서비스     | ⑧ 보건 의료비         |

8. 귀하의 문화·여가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금전적 부족               | ② 시간적 부족       |
| ③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부족 | ④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 |
| ⑤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                |

9. 대구지역의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인프라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불만족 → (9-1로 이동) | ② 불만족 → (9-1로 이동) |
| ③ 보통                 | ④ 만족              |
|                      | ⑤ 매우 만족           |

9-1. (9번 문항에서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항목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

대구광역시 문화·여가 시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관련시설이 다양하지 않아서    | ② 관련시설 주변에 갈만한 곳이 없어서 |
| ③ 관련시설을 잘 알지 못해서    | ④ 관련시설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
| ⑤ 관련시설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 ⑥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

10. 청년의 생활·문화 여건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한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① 다양한 청년문화 여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② 청년 생활 문화 센터 운영 및 활성화     |
| ③ 기본소득 지원, 부채 완화 등 금융지원    |





18-1. (18번 문항에서 '②아니오'항목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나 활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책 참여기회에 대해 잘 몰라서
- ②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인원/자격 등이 제한적이어서
- ③ 시간 부족 등 개인적인 이유로
- ④ 정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 ⑤ 참여해도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잘 반영 안 될 것 같아서
- ⑥ 기타 (                      )

19. 다음의 청년정책 주요 항목들마다 그 필요성을 정도에 따라 선택해 주십시오.

주요 항목	필요 정도				
	전혀 필요없 음	약간 불필요	보통	일부 필요	매우 필요
①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② 청년참여 보장 법률 제정	①	②	③	④	⑤
③ 청년참여 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②	③	④	⑤
④ 청년대상 의견수렴/협력 정례화	①	②	③	④	⑤
⑤ 청년에게 의제 발굴 및 예산편성 권한 부여	①	②	③	④	⑤
⑥ 청년참여에 대한 금전지원 (청년정책 의제설정/결정/집행/평가가 시)	①	②	③	④	⑤
⑦ 청년대상 정책전문가 육성	①	②	③	④	⑤

SQ1.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세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2-3년제) 재학/졸업  
③ 대학교(4년제) 재학/졸업 ④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SQ4. 귀하의 경제활동 유형은 무엇에 해당되십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미취업/취업준비  
④ 학생(대학/대학원)            ⑤ 창업/창업 준비 중

SQ5.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중구                            ② 동구                            ③ 서구                            ④ 남구  
⑤ 북구                            ⑥ 수성구                            ⑦ 달서구                            ⑧ 달성군

---

# 부 록 3:

## 조례(안)

---

〈표 1〉 대구광역시 일자리재단 조례(안)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양질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대구광역시민의 고용증진·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 (법인격)	대구광역시 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구광역시 공공 일자리 지원정책 개발 및 연구</li> <li>2.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알선·교육·정보·훈련 제공</li> <li>3.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4.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 구직자 등 대상별 취업 지원</li> <li>5.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li> <li>6. 여성 취업·창업 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li> <li>7.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선에 관한 연구</li> <li>8. 국가 전략 직종 기술훈련 교육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li> <li>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li> </ol>
제4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은 통합대상기관에서 운영하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교육훈련과정과 취업·창업교육의 공공기능을 재단이 계속 유지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협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재단의 운영재원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구광역시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다.</li> <li>②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구광역시 및 시·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li> <li>2.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li> <li>3.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li> <li>4. 각종 수익사업 또는 그 밖의 수입</li> </ol> </li> <li>③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li> </ol>

제7조 (조직과 직원)	<p>① 재단의 조직은 폐지되는 통합대상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p> <p>② 재단의 직원 정원은 통합대상기관이 폐지되는 당시에 소속되었던 직원 수를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p> <p>③ 재단의 직원은 제2항의 정원범위에서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p>
제8조 (물적 시설)	<p>① 시장은 통합대상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재단에 출연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p> <p>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p>
제9조 (사업양수 등)	<p>재단은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일자리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사업과 그 조직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할 수 있다.</p>
제10조 (사무위탁 및 사업대행)	<p>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출자출연조례”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p>
제11조 (지도·감독 등)	<p>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제12조 (공무원의 파견근무)	<p>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제13조 (준용)	<p>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출자출연조례를 준용한다.</p>

※ 출처: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

〈표 2〉 대구광역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조례(안) 예시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청년의 주거안정과 이를 통한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시장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p>대구광역시 시장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청년 주거 수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li> <li>3. 청년 주거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li>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li> <li>5.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li> </ol>
제5조 (청년 주거 실태 조사 등)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청년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li> <li>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li> <li>3. 청년 주거 수요 사항</li> <li>4.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 사항</li> <li>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li> <li>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li> </ol> <p>②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을 참조하여, 대구광역시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대구광역시 청년주거 실태 조사 및 대구광역시 청년주거기준을 정하는 경우 주거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대구광역시 사무위탁 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청년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p>
제6조 (청년 주거 지원 사업)	<p>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li> <li>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li> <li>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li> </ol>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년 주거안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대구광역시 사무위탁 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p>
제7조(위원회)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li> <li>2. 제5조에 따른 청년주거 실태 조사, 청년주거기준에 대한 사항</li> <li>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li> </ol>

	<p>4.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p> <p>5.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의 위탁에 대한 사항</p> <p>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p>
제8조(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p>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 청년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p> <p>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 「대구광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출처: 경기도 청년주거안정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

## 주 의

1. 이 보고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결과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이 보고서의 내용이 반드시 대구광역시의회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